2015
한국 유교 레포트

2015년도 한국 학계의
유교 연구 성과 분석 및 전망

* 이 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보조금 지원을 받아 간행하였습니다.
(사업명: 율곡학 콘텐츠 개발 및 사회적 · 국제적 확산 사업)

2015 한국 유교 레포트
2015년도 한국 학계의 유교 연구 성과 분석 및 전망

2016년 12월 25일 인쇄
2016년 12월 25일 발행

펴낸곳 ㈔율곡연구원 율곡학 콘텐츠 개발 및 사회적 · 국제적 확산 사업단
주소 강원도 강릉시 죽헌길 124(죽헌동)
전화 033 642 4982 ● 팩스 033 647 4046
홈페이지 www.yulgok.or.kr
전자우편 yulgokee@hanmail.net

* 이 책은 무단으로 복제 또는 전제하실 수 없습니다.
* 비매품

2015
한국 유교 레포트

2015년도 한국 학계의 유교 연구 성과 분석 및 전망

율곡연구원
율곡학 콘텐츠 개발 및 사회적 · 국제적 확산 사업단

발 간 사

율곡 이이 선생은 한국 유교를 대표하는 학자로서 문(文) · 사(史) · 철(哲)을 겸비하여 동방의 대현(大賢)으로 추앙받는 인물입니다. 선생은 49년이란 비교적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철학, 정치, 교육, 역사 등 각 방면에 걸쳐서 방대하고도 심오한 저술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선생의 학문과 사상을 계승하기 위해 설립한 우리 율곡연구원은 그동안 다양한 학술활동과 출판사업 등을 통해 율곡 선생의 사상과 업적을 재조명해 왔습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국고 지원을 받아 전담 사업단을 발족하여 율곡학 콘텐츠 개발, 율곡 문집을 활용한 한자 · 한문교육 교재 개발, 인성교육 지도자 양성, 대중강연회 실시, 나아가 해외에 율곡의 학문과 사상을 널리 알리는 홍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한국유교 레포트는 율곡학을 포함한 한국 유교의 연구 현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분석한 것입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국내적으로는 우리 학계에 보다 풍성한 한국유교 연구 성과가 나

오길 기대하며, 국제적으로는 우리 유교에 대해서 해외학자들이 보다 깊이 있는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연구에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모쪼록 이러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우리의 학문과 사상이 재평가되고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될 것을 희망합니다.

2016년 12월 15일

사단법인 율곡연구원 이사장 윤사순

유학이 처음 한국에 수용된 시기에 대하여는 아직 정설은 없습니다. 그러나 삼국시대 이전인 것만은 분명하며, 유학이 고려 말부터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한국사회를 주도한 것 또한 분명합니다. 특히 조선 중기 주자학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기반으로 조선성리학이 정립되고 17세기 이후 사림파가 정권을 장악하여 주자학이 강력한 통치이념으로 작동되면서 유학사상에 대한 철저한 연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17세기부터 160여년에 걸쳐 『주자대전』에 대한 주석 작업이 진행되어 19세기 이항로(李恒老)에 의하여 『주자대전차의집보(朱子大全箚疑輯補)』가 집대성된 사실을 들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유학사상은 치열한 논쟁을 통하여 발전하였습니다. 16세기의 사단칠정논쟁, 18세기의 호락논쟁, 19세기의 심설논쟁이 그 대표적입니다. 이 논쟁의 주역들은 자신의 학설을 정당화하고 논적의 주장을 비판하기 위하여 사서오경 등 유교경전과 주자학에 대하여 치밀하게 분석하고 재해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전통은 현대 유학연구자들에게 계승되어 한국학계에는 유학사상에 대한 수준 높은 연구 성과

가 축적되었으며 매년 새로운 논문과 저서가 발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학에 대한 연구 성과를 분석 · 비판하고 정리하여 새로운 연구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시도는 극히 드문 실정입니다. 각 논문과 저서들은 개별적으로 발간되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몇몇 전공자들에게만 읽힐 뿐, 학계와 사회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본 사업단은 2015년도 한국에서 이루어진 유학 연구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연구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작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과물을 한국어와 중국어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처럼 본 사업단은 개별 논문과 저서라는 구술을 꿰어 한국유학이라는 보배로 만들고자 한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우리는 치열한 논쟁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레포트를 계기로 연구자들의 연구물들이 사장되지 않고 학계와 사회의 이슈로 부각되어 생산적인 논쟁의 공간이 형성되기를 기대합

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의 중국어판 발간을 계기로 한국 유학의 현주소와 연구 성과가 국제적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본 보고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제작된 것입니다.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사업단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격려해 주시는 사단법인 율곡연구원 윤사순이사장님과 율곡평생교육원 정문교원장님, 레포트 집필자 여러분, 그리고 사업단의 행정업무를 주관하는 임태홍박사와 유경선간사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 12월 15일

명륜동 연구실에서

율곡학 콘텐츠 개발 및 사회적 · 국제적 확산사업단 단장 최영진

차 례

발간사 · 윤사순 4

서문 · 최영진 6

제1편 중국유학

제1장 선진 · 한당시기 유학 연구 · 김동민 13

제2장 송대 유학 연구 · 단윤진 47

제3장 명청대 유학 연구 · 선병삼 71

제4장 근대 중국 유학 연구 · 김현우 99

제2편 한국유학

제5장 한국 성리학 연구 · 안유경 117

제6장 한국 양명학 연구 · 선병삼 157

제7장 한국 실학 연구 · 허종은 177

제8장 한국 경학사상 연구 · 김유곤 195

제9장 한국 근대유학 연구 · 김현우 217

제10장 '한류와 유교' 연구 · 임태홍 231

제1편 중국유학

제1장

선진 · 한당시기 유학 연구

김동민

1. 머리말

본 보고서는 〈2015년 한국유교문화 레포트〉의 한 부분으로, 2015년도 한국에서 발표된 학술 논문과 박사학위논문 중에서 〈중국: 선진 및 한당〉 관련 연구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논문 색인의 대상은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에 정식으로 수록된 논문(KCI)과 2015년 국내 대학에 제출된 박사학위논문을 기준으로 삼았다. 선별 논문의 발표 시기는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의 기간이다. 먼저 본 보고서의 작성을 위해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논문집은 모두 22개의 철학 전문 학술지이다. 학술지를 분석한 결과, 〈중국: 선진 및 한당〉 시기에 해당되는 논문은 총100편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선진시기가 총94편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고, 진한시기가 4편, 한대 이후부터 수당시대까지가 2편이었다. 이 논문들 중에서 유학 이외의 노장철학이나 도교 관련 논문 24편과 기타 제자백가 5편은 본 조사의 대상에서는 제외하였다. 본 조사의 분석 대상인 유학 사상과 관련된 논문은 모두 71편이다.

전체 논문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분류 방식에 따라 나누어보았다. 첫째, 인물별 분류, 둘째, 주제별 분류이다. 인물별 분류에서는 유가 사상을 대표하는 공자 · 맹자 · 순자 세 인물을 대표적으로 살펴보고, 유가 이론과 관련된 인물들을 함께 묶어서 기타 인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주제별 분류에서는 첫째 경학사상, 둘째 철학, 셋째 정치 및 경제, 넷째 종교, 다섯째 교육, 여섯째 기타로 분류하였다.

2. 인물별 분류

인물별 분류에서는 ① 공자: 16편, ② 맹자: 6편, ③ 순자: 11편, ④ 기타 인물: 4편으로 나타났다. 선진 유가를 대표하는 공자 · 맹자 · 순자 관련 논문이 33편이고, 기타 인물은 한대의 유가 사상가인 陸賈 · 賈誼 · 董仲舒 · 揚雄과 관련된 논문이 각 1편씩이다. 2014년도의 조사에서는 공자 관련 논문이 11편, 맹자 관련 논문이 13편, 순자 관련 논문이 4편으로, 맹자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많았는데, 2015년도에는 순자에 대한 연구가 눈에 띄게 많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선진시대 이후의 인물은 2014년도와 마찬가지로 연구가 매우 미진한 실정이다. 董仲舒 관련 박사학위 논문은 1편이 제외하고, 王充이나 鄭玄 등의 한대를 대표하 인물이나 한대 이후의 유학자들에 대한 연구 성과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현재 한국 학계에서 한대 이후부터 송대 신유학이 전개되기 전까지는 거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는데, 각 시대마다 전개된 유학의 다양한 모습을 발굴하여 연구하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 공자 관련 논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최정묵	공자의 학문관	『동서철학연구』 79	한국동서철학회
2	임헌규	『논어』에서 학(學)의 의미	『동방학』 33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3	정대환 유지웅	공자철학에서 '性'과 '習'의 의미	『유교사상문화연구』 59	한국유교학회
4	이승모	공자의 정의관에 대한 일고찰 –'의'와 '정명'을 중심으로–	『동양철학연구』 84	동양철학연구회
5	박평선	孔子 大同思想의 實現 主體와 方法	『동양고전연구』 61	동양고전학회
6	이철승	공자의 '華夷'관과 문화의식	『중국학보』 74	한국중국학회
7	안희진	공자의 '소정묘 사건'을 논함	『중국학보』 73	한국중국학회
8	윤용남	공자의 단비교육법	『동양철학』 44	한국동양철학회
9	임헌규	공자의 인문주의와 그 교육	『한국철학논집』 46	한국철학사연구회
10	이광소	孔子의 對象適格敎育論	『공자학』 28	한국공자학회
11	김재경	자로에 대한 공자의 피드백 분석	『유교사상문화연구』 61	한국유교학회
12	박성규	『논어』에서 공자의 완곡어법	『유교사상문화연구』 59	한국유교학회
13	이기원	공자의 인인시언적 방법과 철학상담 –『논어』에 나타난 공자의 문답법을 중심으로–	『퇴계학과 유교문화』 57	경북대학교 퇴계학연구소
14	이상호	孔子의 윤리 상담에 관한 硏究	『동양철학연구』 81	동양철학연구회
15	이임찬	노자와 공자의 인간에 대한 이해와 '爲'의 문제– '樸'과 '直'을 중심으로	『동서철학연구』 76	한국동서철학회
16	안춘분	孔子의 『春秋』大義思想 硏究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

공자 및 『논어』와 관련된 논문은 모두 16편으로, 2014년의 11편에 비해 약간 많다. 그 내용은 공자와 『논어』에 관한 거시적인 이해부터 미시적인 분석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첫 번째 유형은 『논어』에 보이는 핵심 개념을 분석하거나 공자의 주요 사상이 지닌 철학적 의미를 밝히는 내용이다. 『논어』의 '學'이나 '習' 등의 세부 개념을

분석하여 새로운 이론을 도출하는 방법을 취하기도 하고, 정명론이나 대동사상, 화이관 등 기존의 이론을 토대로 공자의 사상에 접근하는 시도도 보인다. 두 번째 유형은 최근 인성 교육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논어』나 공자의 사상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작업이다. 이와 관련된 논문이 7편 정도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한다. 특히 공자의 교육 방법을 최근 한국 교육에서 주목하는 교육 기법과 관련지어 그 의미를 찾으려는 시도가 주요한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맞춤식 교육이나 문답식 교육, 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피드백이나 언어사용법 등 매우 구체적인 교육기법을 동원하여, 공자의 교육이 지닌 현대적 의미와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철학상담이나 윤리상담 등 심리학의 관심 분야를 공자와 접목함으로써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를 찾으려는 신선한 시도도 보인다. 마지막으로 공자와 노자의 비교를 통해 유학의 인간 이해가 가진 특징을 보다 선명하게 밝힌 논문도 주목할 만하다.

2) 맹자 관련 논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이애란	『맹자』「觳觫」장 분석을 통해 바라본 性善과 도덕적 확장	『유교사상문화연구』 59	한국유교학회
2	이경무	유개념에 대한 맹자의 인식과 활용	『공자학』 29	한국공자학회
3	이종우	맹자의 시비지심, 智 = 선의 의미: 주희와 왕수인의 해석을 중심으로	『공자학』 29	한국공자학회
4	류청평	맹자 '民貴'설에 있어서 '尊君'의 실질	『퇴계학논총』 25	퇴계학부산연구원
5	김철운	孟子의 用夏變夷說	『중국학보』 72	한국중국학회
6	성동권	孟子의 四端擴充에 관한 硏究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

맹자 및 『맹자』와 관련된 논문은 6편에 불과하다. 2014년에 13편이었던 것에 비하면 상당한 폭으로 감소하였다. 먼저 맹자 철학의 핵심인 性善論이나 是非之心 등과 같은 윤리적 문제를 주제로 다룸으로써 기존의 이론을 더욱 강화하는 형태의 논문들이 보인다. 「곡속」장을 분석한 이애란의 논문에서는 性善이 도덕 감정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성선론이 단순한 이론의 차원을 뛰어넘어 도덕적 행위까지 포함한 개념임을 밝힘으로써 성선론의 의미를 기존의 시각보다 훨씬 넓은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기존의 연구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맹자의 정치 이론을 다룬 두 편의 논문이 주목할 만하다. 그 중에서 「맹자 '民貴' 설에 있어서 '尊君'의 실질」이라는 논문에서는 맹자의 대표적인 정치 구호인 '民貴'를 '民本' 관념과 동일한 의미로 파악하지만, 그것이 향하는 최종 목적은 '尊君'이라는 주장을 펼침으로써 기존의 이론과는 차별화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3) 순자 관련 논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지준호	순자의 학문관 고찰	『한국철학논집』 46	한국철학사연구회
2	이택용	『순자』 性惡論의 바탕에서 '禮'는 원초적으로 성립가능한가?	『동양철학연구』 82	동양철학연구회
3	장원태	순자의 '群' 개념을 통해 본 욕망과 본성	『동양철학』 44	한국동양철학회
4	윤태양	순자에게 있어서 도덕행위 주체로서의 마음(心)	『한국철학논집』 45	한국철학사연구회
5	김정희	순자철학에서 심과 성 및 예의의 관계	『동서철학연구』 75	한국동서철학회
6	김정희	순자의 合과 和를 위한 分사상	『동서철학연구』 77	한국동서철학회
7	구연상	荀子의 惡 개념에 대한 철학적 분석	『동서철학연구』 78	한국동서철학회
8	강지연	『荀子』에서 본 '情'의 의미	『동방학』 32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9	김상래	荀子의 孟子批判, 그 윤리적 의의	『동양철학연구』 84	동양철학연구회
10	김철운	荀子의 觀相 비판과 道德實踐 근거	『퇴계학보』 138	퇴계학연구원
11	지준호	荀子의 도덕교육론 – 化性起僞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철학논집』47	한국철학사연구회

순자 관련 논문은 2014년의 4편에 비해 상당히 많이 증가한 11편이다. 내용에 있어서도 순자의 주요 철학을 세부적으로 다룬 내용부터 교육과 관련된 내용까지 다방면으로 폭넓게 진행되었다. 먼저 惡·情·心·禮 등의 개념 분석을 통해 性惡論의 의미나 도덕적 행위의 실체를 밝힌 논문들이 몇 편 보인다. 性惡論과 禮의 관계를 다룬 이택용의 논문에서는 인간의 마음이 두 가지의 경향성, 즉 욕망을 쫓는 경향성과 可함을 쫓는 경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점에 주목하여, 禮가 성악론의 바탕 위에서 성립 가능하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한편 도덕행위의 주체인 마음에 대한 다룬 윤태양의 논문에서는 순자의 도덕 이론은 인간의 마음이 가진 도덕적 경향성을 제거함으로써 합리적 사고의 주체인 마음과 도덕규범인 禮를 통해 구성된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처럼 동일하게 순자의 성악론을 다루고 있지만, 각각의 논문들이 서로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논문들을 상호 비교해서 살펴본다면 성악론에 대한 이해의 폭을 보다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순자 성악론의 핵심 개념인 '化性起僞'를 교육과 연결지은 지준호의 논문도 주목할 만하다. 그는 '화성기위'를 자기 성찰의 수양과 자기 변화의 과정으로 이해하고, 이 교육을 통해 사회가 요청하는 인격적 리더의 양성을 강조하였다.

4) 기타 인물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조원일	陸賈의 逆取順守 觀念에 대한 硏究	『중국학논총』 48	한국중국문화학회
2	조원일	賈誼의 政治思想에 관한 硏究	『동양철학연구』 84	동양철학연구회
3	조원일, 박복재	揚雄의 修養論思想硏究	『중국학논총』 45	한국중국문화학회
4	안승석	董仲舒 政治思想에 關한 硏究	박사학위논문	대구한의대

기타 인물과 관련된 논문은 4편인데, 모두 한대를 대표하는 사상가를 다룬 논문이다. 2014년에도 6편의 논문이 모두 한대 사상가를 다루었는데, 2015년에 다룬 네 인물과 함께 鄭玄을 대상으로 한 논문도 있었다. 흥미로운 점은 동중서 관련 박사학위논문을 제외한 세 편의 논문이 모두 한 명의 연구자에 의해 연구되었다는 점이다. 연구의 넓이와 깊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연구자들의 관심과 연구 성과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대를 대표하는 동중서의 이론이 한초의 陸賈와 賈誼 등과 같은 유가 사상가의 이론을 기초로 삼아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연구는 한대 유학의 근본 토대를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3. 주제별 분류

주제별 분류는 ① 경학사상 14편, ② 철학 39편, ③ 교육 9편, ④ 정치 및 경제 5편, ⑤ 기타 4편으로 파악되었다. 2014년에 비해 경학사상 분야가 소폭 감소했고, 철학 분야는 약 10편 정도 상승하였다. 정치 및 경제 분야도 1편에서 5편으로 소폭 상승하였다. 전체적으로 사서오경을 중심으로 한 경전 연구보다는 공자 · 맹자 · 순자 등 주요 사상가들의 이론을 분석한 연구가 많았기 때문에 철학 분야의 연구 성과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경학사상 분야에서는 『논어』와 『주역』 등 기존에 이미 연구 성과가 축적된 경전을 주요한 연구 대상으로 삼았으며, 연구가 부족했던 다른 경전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미진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철학 분야에서는 인물을 대상으로 한 26편의 논문 이외에, 13편의 논문이 다양한 주제로 선진시대의 사상사를 다루고 있다. 선진 유학의 심성론이나 인간론, 윤리론 등과 같이 철학 이론을 주제로 한 논문들도 보이고, 仁과 恕, 禮와 德 등과 같이 핵심 개념을 분석한 논문들도 보인다. 그 외에 『주역』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여, 그 속에 담긴 철학적 의미를 해석한 논문도 보인다.

1) 경학사상 연구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전호근	유가 철학 원전 전승의 문명사적 의의 – 十三經注疏의 성립과 전승을 중심으로	『시대와 철학』 26-4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	윤화중	『中庸』의 費而隱에 관한 현대적 해석	『유교사상문화연구』	한국유교학회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3	김용재	諸註釋을 통해 본 『論語』 經文의 解釋學的 理解[6]-「雍也」를 중심으로	『동양철학연구』 81	동양철학연구회
4	김영호	『論語』 顔淵問仁章 辨釋	『한국철학논집』 44	한국철학사연구회
5	박세늬	『論語 · 子罕』第5章 '子畏於匡…' 句新釋-'玆'字의 해석을 중심으로	『중국학논총』 45	한국중국문화학회
6	이선행	『주역』의 神字의 용례를 통해 본 神의 함의	『동서철학연구』 77	한국동서철학회
7	원용준	상박초간 『주역』 菉괘 고찰	『유교사상문화연구』 60	한국유교학회
8	박재복	『尙書』에 보이는 갑골점복 고찰-최근 발견된 출토자료와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동양고전연구』 61	동양고전학회
9	마사원, 송해연	「禹貢」 '靑茅' 연구	『퇴계학과 유교문화』 57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10	안춘분	『春秋』의 中華思想과 춘추제후국의 中心移動論	『유교사상문화연구』 61	한국유교학회
11	신백훈	『禮記』 「禮運」篇의 大同思想 硏究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
12	복대형	『左傳』의 政治思想 硏究	박사학위논문	공주대
13	안춘분	孔子의 『春秋』大義思想 硏究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
14	장영동	『周易』의 性命思想 硏究	박사학위논문	원광대

경학사상 연구는 유교 경전을 대표하는 四書五經에 대한 훈고학적 분석이나 경전해석학적 측면에서의 연구나 경학사적인 접근을 시도한 논문이다. 개별 경전 각각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중용』 관련 논문 1편, 『논어』 3편, 『주역』 3편, 『상서』 2편, 『춘추』 2편, 『예기』 1편이다. 四書의 경우는 주로 철학 이론을 위주로 연구가 진행되기 때문에 훈고학적 분석이나 경전해석학적 접근, 경학사적 의미 등을 다룬 논문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작년에 비해 『논어』에 대한 경학 연구 성과가 많은 것이 눈에 띈다. 오경 중에서 『주역』과 『상서』 분야는 최근 새로운 출토 자료가 발굴되어 비교적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기존 경전에는 보이지 않는 새로운 자료나 서로 내용의 차이를 보이는 자료를 상호 비교함으로써 각 경전의 원류를 찾는 작업이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잡고 있다. 한편 경학분야에서 가장 연구가 드문 『춘추』 분야의 연구 성과도 3편이나 보인다. 그 중에서 안춘분의 두 편의 논문에서는 『춘추』 大義思想의 본질을 밝히고, 『춘추』 속에 보이는 제후국들의 관계 양상을 다각도로 분석함으로써 중화사상의 근원을 찾으려고 시도하였다. 가장 주목할 만한 논문은 경학사상의 기본 텍스트인 십삼경주소의 경학사적 의미를 다룬 전호근의 논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유가 철학의 핵심 원전인 십삼경주소의 성립과 전승 과정을 통해 유교 경전이 지닌 문명사적 의의를 살펴봄으로써 동아시아에서 형성된 경학의 탄생과 전개 과정을 밝히고 있다. 필자는 유가 철학의 원전인 경전의 탄생이 인류의 문명사적 사건이며, 그 전승 과정도 또한 동아시아 사상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이와 같은 유교 경전의 성립과 전승 과정에 대한 연구가 현대의 우리들이 고전을 읽고 재해석하는 데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도 함께 다루고 있다.

2) 철학 연구 분야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최정묵	공자의 학문관	『동서철학연구』 79	한국동서철학회
2	임헌규	『논어』에서 學의 의미	『동방학』 33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3	정대환, 유지웅	공자철학에서 '性'과 '習'의 의미	『유교사상문화연구』 59	한국유교학회
4	이승모	공자의 정의관에 대한 일고찰 – '의'와 '정명'을 중심으로	『동양철학연구』 84	동양철학연구회
5	박평선	孔子 大同思想의 實現 主體와 方法	『동양고전연구』 61	동양고전학회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6	이철승	공자의 '華夷'관과 문화의식	『중국학보』 74	한국중국학회
7	안희진	공자의 '소정묘 사건'을 논함	『중국학보』 73	한국중국학회
8	이임찬	노자와 공자의 인간에 대한 이해와 '爲'의 문제 – '樸'과 '直'을 중심으로	『동서철학연구』 76	한국동서철학회
9	이애란	『맹자』 「觳觫」장 분석을 통해 바라본 性善과 도덕적 확장	『유교사상문화연구』 59	한국유교학회
10	이경무	유개념에 대한 맹자의 인식과 활용	『공자학』 29	한국공자학회
11	이종우	맹자의 시비지심, 智 = 선의 의미: 주희와 왕수인의 해석을 중심으로	『공자학』 29	한국공자학회
12	류청평	맹자 '民貴'설에 있어서 '尊君'의 실질	『퇴계학논총』 25	퇴계학부산연구원
13	김철운	孟子의 用夏變夷說	『중국학보』 72	한국중국학회
14	지준호	순자의 학문관 고찰	『한국철학논집』 46	한국철학사연구회
15	이택용	『순자』 性惡論의 바탕에서 '禮'는 원초적으로 성립가능한가?	『동양철학연구』 82	동양철학연구회
16	장원태	순자의 '群' 개념을 통해 본 욕망과 본성	『동양철학』 44	한국동양철학회
17	윤태양	순자에게 있어서 도덕행위 주체로서의 마음(心)	『한국철학논집』 45	한국철학사연구회
18	김정희	순자철학에서 심과 성 및 예의의 관계	『동서철학연구』 75	한국동서철학회
19	김정희	순자의 合과 和를 위한 分사상	『동서철학연구』 77	한국동서철학회
20	구연상	荀子의 惡 개념에 대한 철학적 분석	『동서철학연구』 78	한국동서철학회
21	강지연	『荀子』에서 본 '情'의 의미	『동방학』 32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2	김상래	荀子의 孟子批判, 그 윤리적 의의	『동양철학연구』 84	동양철학연구회
23	김철운	荀子의 觀相 비판과 道德實踐 근거	『퇴계학보』 138	퇴계학연구원
24	조원일, 박복재	揚雄의 修養論思想硏究	『중국학논총』 45	한국중국문화학회
25	김성기	동아시아 문명의 기원에 있어서 東夷文化의 지위	『유교사상문화연구』 60	한국유교학회
26	김상준	유교윤리의 기원과 보편성	『사회사상과 문화』 18-1	동양사회사상학회
27	최일범	유학의 심성론과 심리학 – 중용과 분석심리학을 중심으로	『퇴계학과 유교문화』 57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8	류근성	선진 유가 인간론의 자연주의적 토대	『공자학』 28	한국공자학회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29	박길수	性命의 관점에서 본 선진 유학의 행복 관념	『유교사상문화연구』 61	한국유교학회
30	정상봉	共存과 共感의 근거: 仁	『한국철학논집』 46	한국철학사연구회
31	이향준	죄수의 밥그릇	『유교사상문화연구』 62집	한국유교학회
32	김재경	恕와 죄수의 딜레마	『동양철학연구』 83	동양철학연구회
33	이장희	禮와 德	『동방학』 32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34	이찬희	『論語』에서 드러나는 '즐거움'의 생명적 구조와 성격 해석－마르틴 하이데거(Martin Heidegger) 존재론의 방법론적 적용과 비교	『시대와 철학』 26-4	한국철학사상연구회
35	김연재	天道의 페러다임에서 본 周易의 聖人精神과 그 人文主義的 세계	『중국학보』 71	한국중국학회
36	김성기	역경철학중 占관념의 변화연구	『동서철학연구』 76	한국동서철학회
37	김재홍	周易에서의 謙遜에 대한 哲學的 小考	『동서철학연구』 77	한국동서철학회
38	성동권	孟子의 四端擴充에 관한 研究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
39	조주은	陰陽五行의 結合過程 研究 : 天人關係論과의 相關性을 中心으로	박사학위논문	동방문화대학원대

철학 연구 분야는 모두 39편인데, 한대 철학 1편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선진시대의 인물이나 사상과 관련된 내용이다. 공자 · 맹자 · 순자를 중심으로 한 인물 중심의 연구 성과 26편을 제외한 13편의 논문에서 비교적 다양한 주제의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김성기의 논문은 중국 고대의 東夷文化를 통해 동아시아 문명의 기원을 탐색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전통적인 華夷觀에 기초하여, 東夷文化를 中原文化와 대립되는 夷狄의 문화로 인식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한다. 최근의 고고학적 성과를 바탕으로, 동이문화가 다양한 방면에서 수준 높은 문명을 형성했으며, 중화문화의 형성에도 중요한 공헌

을 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 논문은 향후 동아시아 문명의 형성이나 고대사의 전개와 관련된 연구에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선진시대의 윤리학이나 심성론, 인간론 등을 다룬 몇 편의 논문 중에서 유학의 심성론과 현대 분석심리학의 융복합을 시도한 최일범의 논문도 눈여겨 볼만하다. 이 논문에서는 유학이 미래를 위해 공헌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로 유학의 심성론이 가진 현대 심리학적인 의미에 주목하였다. 즉 유학의 핵심 이론인 중용의 원리를 분석심리학적으로 해석함으로써 현대 심리학이 새로운 관점과 방법을 찾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선진 유학의 핵심 주제인 仁과 恕를 현대적 의미로 재해석한 몇 편의 논문이 보인다. 정상봉은 仁이라는 개념이 선진 유학에서 한당 유학, 북송 유학을 거치면서 그 의미가 점차 확대되어가는 철학사적 전개 과정을 다루고 있다. 共存과 共感의 근거가 되는 仁이 형이상학적 사유의 폭과 깊이가 확장되면서 어떻게 변천되었는지 분석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 이향준과 김재경의 논문은 현대 윤리학의 주제 중의 하나인 죄수의 딜레마를 恕개념과 관련지어 논의함으로써 선진시대 유학의 현대적 적용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특히 김재경의 논문에서는 『논어』의 '덕으로써 원망에 보답한다[以德報怨]'라는 말과 '죄수의 딜레마'의 해결책으로 제시된 TFT전략의 상호 비교를 통해, 선진 유가의 윤리학에서 현대 윤리학의 딜레마를 해결할 단서를 찾는 흥미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3) 교육 분야 연구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윤용남	공자의 단비교육법	『동양철학』 44	한국동양철학회
2	임헌규	공자의 인문주의와 그 교육	『한국철학논집』 46	한국철학사연구회
3	이광소	孔子의 對象適格敎育論	『공자학』 28	한국공자학회
4	김재경	자로에 대한 공자의 피드백 분석	『유교사상문화연구』 61	한국유교학회
5	박성규	『논어』에서 공자의 완곡어법	『유교사상문화연구』 59	한국유교학회
6	이기원	공자의 인인시언적 방법과 철학상담 - 『논어』에 나타난 공자의 문답법을 중심으로	『퇴계학과 유교문화』 57	경북대학교 퇴계학연구소
7	이상호	孔子의 윤리 상담에 관한 연구	『동양철학연구』 81	동양철학연구회
8	지준호	荀子의 도덕교육론 - 化性起僞 개념을 중심으로 -	『한국철학논집』 47	한국철학사연구회
9	고대혁	『주역』 蒙卦의 상징과 교육적 의미	『동양고전연구』 58	동양고전학회

교육 분야의 연구는 순자와 『주역』과 관련된 논문 2편을 제외한 7편이 모두 공자와 『논어』의 교육 관련 논문이다. 최근 인문학 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동양의 인문주의 교육의 원류를 밝힌 임헌규의 논문은 주목할 만하다. 이 논문에서는 공자가 오경으로 대표되는 동양적 인문학의 대표 교과를 개발하고, 그것을 통해 동양적 인문주의 정신을 창도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현재 한국의 교육에서 우리의 실정에 맞는 인문학의 토대를 세우는 데 큰 시사점을 던져 주는 논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몇 편의 논문에서는 현대 교육에서 강조하는 강의기법의 구체적인 방법론을 공자의 교육 방법을 통해 찾으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김재경은 이미 작년에 「人性敎育의 기초로서 孔子의 피드백 사례 연구」라는 논문을 통해 공자의 교육 속에 담긴 인성교육의 방법론을 찾는 작업을 진행한 적이 있다. 그리고 이

번에는 그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한 논문을 추가적으로 발표함으로써 학교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유학의 교육 이론을 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편 최근 정신 건강과 관련된 심리치료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공자의 문답법을 분석하여 철학상담이나 윤리상담의 방법론을 찾고 있는 두 편의 논문도 흥미를 끈다. 제자들의 성격이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한 공자의 문답법이 철학상담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임을 밝힘으로써 유학이 현대의 심리 치료에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4) 정치 및 경제 분야 연구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이선경	易의 감응론과 유학의 공감정치	『한국철학논집』 46	한국철학사연구회
2	조원일	陸賈의 逆取順守 觀念에 대한 硏究	『중국학논총』 48	한국중국문화학회
3	조원일	賈誼의 政治思想에 관한 硏究	『동양철학연구』 84	동양철학연구회
4	정병선, 김혁	『周易』 損 · 益卦의 經濟的 含意	『유교사상문화연구』 60	한국유교학회
5	안승석	董仲舒 政治思想에 關한 硏究	박사학위논문	대구한의대

정치 분야의 연구에서는 『주역』의 이론을 통해 유학의 공감정치를 다룬 논문 1편과 한초 유학을 대표하는 董仲舒, 陸賈와 賈誼의 정치 이론을 다룬 논문이 각각 1편씩 보인다. 이선경의 논문에서는 현대 사회에서 소통의 전제 조건인 공감에 주목하여, 그 이론적 토대를 『주역』의 감응론에서 찾고 있다. 전통 유학의 정치사상이 타인에 대한 공감을 그 밑바탕에 깔고 있으며, 그것의 핵심 내용이 『주역』의 감응론에 있다는 것이다. 필자는 유학의 공감의 정치원리가 현대 한국의 정치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조원일은 한나라 초

기의 사상가인 육가와 가의가 현실적 상황을 반영한 정치 이론을 전개한 점을 밝힘으로써 유학의 정치사상이 가진 시의성에 주목하였다. 정병선과 김혁의 논문에서는『주역』속에 포함된 경제적 함의의 현대적 재해석을 통해 현대 사회의 경제에 그것의 적용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특히『주역』의 損益之道가 현대의 자유 시장 경제체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국가와 기업의 경제 정책에 일조할 수 있는 경제이론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5) 기타 연구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김응학	儒家美育과 서예의 品格 考察	『유교사상문화연구』 59	한국유교학회
2	박영진	春秋時代美學思想形成初探 - 以『易傳』·『考工記』·『樂記』爲中心	『동서철학연구』 76	한국동서철학회
3	이동아	『周易』의 變通槪念에서 본 현대리더십의 경향	『유학연구』 32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4	김권환	『論語』와『莊子』에서의 老年 認識 硏究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

기타 연구 분야에는 유가의 미학사상을 다룬 두 편의 논문과『주역』이론을 현대리더십의 측면에서 재해석한 한 편의 논문, 그리고『논어』와『장자』의 노년 인식을 다룬 논문 1편이 보인다. 먼저 박영진의 논문은 1차 원전 자료를 바탕으로 춘추시대 유가 미학사상의 형성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동아시아 미학 사상의 토대가 되는 자료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동아의 논문은『주역』의 變通 개념을 현대리더십에 적용하려는 시도이다. 현대리더십에서는 조직이나 단체의 유지와 성장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변화와 소통을 중요한 요소로 인식한다.『주역」의 변통 개념이 바로 변화와 소통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 리더십의 이론 정립에 중요한 원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김권환의 박사학위논문에서는 『논어』와 『장자』에 보이는 노년 인식을 살펴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현대 고령화 시대에 맞는 윤리를 찾는 작업을 시도하였다.

4. 주요 논문 분석 및 비평

이상에서 인물과 주제로 나누어 논문들을 분류하고, 각 영역별 논문의 주요한 특징과 대표 논문들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진행하였다. 본 보고서에 기록된 71편의 논문은 모두 연구자들의 전공 지식과 역량이 집중된 결과물이기 때문에 한국 학술계의 중요한 자산이다. 따라서 학술 조사 보고서에서는 각 논문 하나하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분석을 통해 논문의 핵심 내용과 그 학술적 가치를 제시해야 하지만, 여기에서는 세 편의 논문을 별도로 선별하여 그 논문의 내용 분석과 학술적 의미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자 한다.

첫 번째 논문은 이임찬의 「노자와 공자의 인간에 대한 이해와 '爲'의 문제 - '樸'과 '直'을 중심으로」이다. 최근 한국 교육계의 주요한 관심사 중의 하나가 인성교육이다. 학문 분야에서도 학제간 융복합이라는 기존의 주제가 인성이라는 화두로 급격하게 옮겨가는 추세처럼 보인다. 사실 인성이라는 주제는 동양철학 분야의 오래된 연구 대상이었는데, 교육이라는 현안과 결합됨으로써 철학 분야의 현실적 고민으로 다가온 것일 뿐이다. 인성 교육이라는 문제는 체계적인 이론과 구체적

인 실행 프로그램, 그리고 교육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혁이 함께 맞물려서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연구와 시행착오가 필요한 과제이다.

이와 같은 우리 사회의 현실적 관심사와 관련지어 본다면, 동양철학적 시각에서 바라본 인간에 대한 이해를 다룬 이 논문은 향후 인성교육의 체계를 확립하는 출발점이자 이론적 토대가 되는 중요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인성교육이라는 장기적인 계획의 실행을 위해서는 인간이라는 존재의 성격 규정과 인간의 마음과 행동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불가결한 전제 조건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본 논문은 학술적인 가치 이외에도 상당히 큰 시사성을 지닌 글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기존 동양철학계의 인간에 대한 이해 방식과는 달리, 새로운 각도에서의 접근을 시도했다는 점이다. 필자의 말을 빌리면, 이 논문의 연구 방법은 '경험적인 차원에서의 인간에 대한 이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선악의 틀'과 같은 '추상적 사변'이 아니라, 德이라는 경험적 층위에서의 인간 이해는 군자나 성인과 같은 이상적 인간상을 제시하는 덕론과는 구별되며, 경험 세계의 인간을 이해한다는 점에서 '사실'의 문제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필자의 연구 방법에 평자도 매우 공감하며, 그 자체만으로도 학술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평자는 이 분야의 지식이 일천하기 때문에 세부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생략하고, 논문의 구성과 전개 방식에 대해 의문이 들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을 간단하게 질문하는 형식으로 평자의 역할을 대신하고자 한다.

먼저 필자는 인간에 대한 경험적 차원의 논의라는 논점 하에, 노자

와 논어의 인간 이해, 그 중에서도 특히 德이라는 개념에 주목하고 있다. 마음[心]과 행위[行]라는 두 측면을 포함한 德이라는 개념이 노자와 공자의 핵심 주제 중의 하나이므로 두 사람의 인간 이해도 마음과 행위라는 두 측면에서 출발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의 마음과 행위를 경험적으로 관찰했을 때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바로 樸과 直이라는 개념이며, 이 개념은 두 사람의 철학 체계에서 인간에 대한 이해가 분기하는 시작점이라고 단정한다. 여기에서 먼저 몇 가지 의문이 든다.

첫째, 덕이라는 개념의 함의와 관련된 부분이다. 노자와 공자가 사용한 德 개념이 마음과 행위라는 두 측면이 결합된 개념인가 하는 점이다. 『논어』의 "德不孤, 必有鄰.", "以德報德", "鄕愿, 德之賊也." 등이나 『노자』의 "生之畜之 , 生而不有 , 爲而不恃 , 長而不宰 , 是謂玄德."이나 "上德不德 , 是以有德. 下德不失德 , 是以無德. 上德無爲而無以爲 , 下德無爲而有以爲." 등과 같은 사례에서 사용된 덕 개념은 대체로 德行이라는 의미를 내포한 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마음이라는 측면과는 무관해 보인다. 陳來가 "덕이라는 개념이 心을 구성 요소로 갖게 된 이후, 인간의 의식, 동기, 심의와 많이 관련되었다"라고 말한 의미의 마음으로서의 德 개념은 맹자의 四德과 같이 후대에 덕의 의미가 확장되어 사용된 경우에 해당되고, 노자와 공자가 사용한 덕 개념은 행위의 측면에 한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필자의 생각은 어떠한지 듣고 싶다.

이와 관련해서, 그들이 사용한 덕의 개념은 맹자 등이 사용한 四德으로서의 덕 개념보다는 축소된 형태이며, 오히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탁월성(德)'이라는 개념과 유사한 개념으로 보이는데, 필자의 생각은 어떤지 듣고 싶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탁월성의 기원을 주로 습관으로부터 설명한다. 즉 탁월성은 본성에 의해 주어진 것도 아니며, 본

성에 반해 주어진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습관은 본성이 허용한 가능성의 범위 내에서 만들어지는데, 그것은 본성을 탁월하게 만들 수도 있고 열등하게 만들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정의라는 탁월성을 놓고 보면, 인간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정의롭게 될 수 있는 가능성과 완전히 부정의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모두 갖추고 태어난다. 정의로운 활동 혹은 부정의한 활동의 반복을 통해 습관화될 때, 그것은 정의라는 탁월성으로 굳어지거나 혹은 부정의한 악덕으로 굳어지는 것이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실현될 수 있는 인간의 고유한 기능을 잘 발휘하는 품성 상태가 곧 탁월성(德)이며, 잘못 발휘하는 품성 상태가 부정의라는 악덕이라는 것이다. 노자나 공자가 사용한 덕 개념도 인간이 본래 타고난 본래 본성으로서의 四德과 같은 철학적 개념이라기보다는 일정한 노력을 통해 획득된 올바른 행동이라는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탁월성과 유사한 의미로 보이는데, 필자의 생각을 듣고 싶다.

둘째, '樸'과 '直'의 도출 과정과 상호 대비의 타당성 문제이다. 필자는 德이라는 틀로 인간을 이해했을 때, 인간의 특징을 가장 잘 대변하는 개념이 '樸'과 '直'이라고 단언한다. 여기에서 의문이 드는 점은 먼저 德이라는 개념으로부터 '박'과 '직'이라는 개념이 어떠한 연관성에서 도출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필자의 논리대로라면, '박'과 '직'은 '덕'의 또 다른 형태의 표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필자의 논의를 참조하면, '박'과 '직'은 아직까지 어떠한 외부적인 노력이 가해지지 않은 인간 본연의 원초적인 상태이다. 이에 비해 '덕'은 일정한 노력을 통해 획득된 상태이며, 현실 세계에서 추구하는 인간의 바람직한 행위의 상태를 말한다. 예를 들어, 노자가 말한 '박'의 상태는 '無知'와 '無

欲'의 순수한 원초적 상태인데, 여기에 '반복적으로 덜어내거나[損之又損]' '버리는[棄]'는 적극적인 활동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획득되는 것이 德이다. 그리고 공자가 말한 '직'도 인간의 원초적인 본래의 모습인데, "直而無禮則絞"나 "好直不好學, 其蔽也絞"와 같이 '禮'나 '學'과 같은 적극적인 노력이 가해져야만 비로소 德을 이루는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 따라서 "以直報怨, 以德報德'과 같이 '직'과 '덕'은 분명히 다르며, '덕'은 '직'보다 도덕적으로 더 높은 단계에 도달한 상태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德'이라는 틀에서 인간을 보았을 때, 그 대표적인 특징이 '박'과 '직'이라는 필자의 논리에 다소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박'과 '직'이 노자와 공자의 인간 이해를 대표하는 개념으로 한 짝을 이루어 함께 사용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박'의 경우는 노자의 철학에서 추구하는 바람직한 인간의 모습을 대표하는 개념이며, 損이나 棄의 노력을 통해 최종적으로 돌아가야 할 목적이기도 하다. 그러나 '직'의 경우는 노자에서 차지하는 '박'의 위치와 같이, 과연 공자가 추구하는 인간의 최종적인 모습이자 공자의 인간 이해를 대표하는 개념인가 하는 점이다.

- 恭而無禮則勞, 愼而無禮則葸, 勇而無禮則亂, 直而無禮則絞.(『논어』「태백」)
- 好仁不好學, 其蔽也愚, 好知不好學, 其蔽也蕩, 好信不好學, 其蔽也賊, 好直不好學, 其蔽也絞, 好勇不好學, 其蔽也亂, 好剛不好學, 其蔽也狂.(『논어』「양화」)

앞의 두 사례를 살펴보면, 直은 노자의 '박'과 같이 인간이 나아가야

할 최종적인 모습이 아니라, 禮와 學과 같은 외부적인 노력에 의해 다듬어져야 할 일종의 원석과 같은 불완전한 상태이다. 이 점은 필자도 이미 지적한 부분이다. 또한 위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直은 恭·愼·勇이나 仁·知·信·勇·剛 등과 같이 인간의 여러 행동 중의 하나일 뿐, 특별히 인간의 모습을 대변하는 중요한 개념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결국 노자의 '박'과 비교 대상으로 삼을 만큼 공자의 인간 이해를 대변하는 핵심 개념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공자가 인간을 이해하는 다양한 개념들 중에서 특별히 '직'을 '박'과 비교 대상으로 삼고, 또 '직'이 공자의 인간 이해를 대표하는 개념이라고 단정한 근거가 분명하게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필자가 구성한 목차를 살펴보면, 논리적인 정합성이라는 측면에서 목차의 재구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한다. 필자가 목차를 구성한 목차들을 연결해보면,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서론의 앞부분에서 필자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문제를 화두로 던지고,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자와 공자의 인간에 대한 이해를 다룬다고 이 논문의 방향성을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이 글의 주제와 맞는 내용은 노자와 공자가 파악한 인간의 본래 모습인 樸과 直, 그리고 인간이 그러한 본래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인 好學과 爲道 등으로 한정된다. 나머지 敎와 治國 부분은 노자와 공자의 정치사상을 다룬 내용이다. 그것이 그들의 인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개된 것이라고 말한다면 앞의 내용들과 연결은 되겠지만, 그렇게 될 경우 필자가 내세운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화두와는 관계가 없는 또 다른 주제가 되어 버린다. 즉 이 목차 전체를 그대로 살린다면, 이 글의 제목은

'인간에 대한 이해에 바탕한 공자와 노자의 정치사상'이 더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화두에만 집중한 글이 되려면, '노자와 공자의 인간 이해', 즉 인간은 어떤 존재이며, 또 어떠한 방식으로 행동해야 하는가 라는 문제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을 듯하다.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가 같다.

- 노자의 인간 이해: 樸(원초적 인간의 상태) → 損, 棄 등을 통한 수양의 노력 → 德의 형성(바람직한 행동의 상태, 柔弱, 無爲 등) → 덕에 기초한 이상적 인간 행위(불언지교, 무위지정)
- 공자의 인간 이해: 직(直, 원초적 인간의 상태) → 學, 禮 등을 통한 수양의 노력 → 德의 형성(바람직한 행동의 상태, 자, 효, 인 등) → 덕에 기초한 이상적 인간 행위(정명지교, 덕행지정)

두 번째 논문은 류근성의 「선진 유가 인간론의 자연주의적 토대」이다. 서론에서 필자는 "실용주의적 자연주의가 선진시기 유가 인간론의 토대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려고 한다."라는 이 글의 핵심 요지를 밝히고 있다. 여기에서 필자가 말하는 선진유가의 범주 속에는 공자와 맹자, 그리고 순자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다. 기존 학계의 시각에서 공자와 맹자, 순자의 인간론을 다룰 때,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 선행 연구의 분석을 통해 필자의 방법론인 실용주의적 자연주의가 기존의 연구와 어떠한 차별성이 있는지 밝혀주는 것이 좋을 듯하다. 필자의 말대로라면, 선진유가의 인간론을 다룰 때 기존의 연구에서는 초자연적인 실체로서의 자연을 끌어와서 인간의 활동이나 상태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인가? 일반적으로 선진 유가에서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다룰 때, 천인합일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만, 이때의 천의 개념 속에는 초자연적인 실체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 공자의 인간론에서는 자연이나 천은 거의 개입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며, 맹자에서는 단지 도덕적인 근거로서의 추상적인 천, 순자의 경우는 인간과 완전히 단절된 자연으로서의 천의 개념이 보인다. 굳이 필자가 방법론으로 채용한 실용주의적 자연주의라는 개념을 끌어들이지 않더라도 필자가 주장하는 유가의 인간론은 기존 학계에서의 일반적인 견해와 별반 다른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차별성은 과연 무엇인가?

또한 필자가 유가 인간론을 독해하고자 하는 방법 중에 "첫째, 인간의 존재 조건인 자연에 관해, 선진 유가는 초월적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고, 인간과 자연을 연속적 관계로 파악했다"라는 주장에서 자연을 초월적 존재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선진 유가의 공통된 특징인데, 인간과 자연을 연속적 관계로 파악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순자의 인간론과는 다소 다른 것이 아닌지? 순자는 천인분이를 주장하면서 철저하게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단절함으로써 기존 유가의 천인합일과는 다른 형식으로 인간론을 전개한 것으로 안다. 과연 공자와 맹자, 그리고 순자까지 함께 포괄해서 논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가?

2장에서는 1. 초월적 상제에서 자연으로, 2. 인간과 자연의 연속성이라는 두 개의 절로 나누어져 있다. 1절의 최종 부분에서 필자는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선진유학은 도덕적 주체성을 핵심적 주제로 삼고 있었지 결코 형이상학적 하늘을 최고 개념으로 삼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그 당시 공맹의 도덕이론에는 형이상학적 하늘 사상이 없었다. 즉 형이상학적 하늘은 선진유학의 핵심적 소재가 아니다"라는 노사광의 주장을 결론으로 대신하고 있다. 사실 이 말은 현재 학계의 일반적

인 논의로 알고 있는데, 어떤 점에서 새로운 주장이며, 또 그것이 필자의 방법론인 실용주의적 자연주의와 어떠한 관계가 있다는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1장에서는 순자의 이론을 끌어들여 논의를 전개하고, 2장에서 인간과 자연의 연속성이라는 제목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는데, 앞에서 언급했듯이, 순자의 이론과 '인간과 자연의 연속성'이라는 내용은 상호 대립적으로 내용으로 보이는데, 두 내용을 하나의 장 속에서 유가의 인간론이라는 동일한 범주 속에 넣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또한 2절에서는 '인간과 자연의 연속성'을 다루면서 중용을 잠시 언급하고, 한대의 자연관 또는 인간론을 단 몇 줄로 소개하고 있다. 한대는 음양오행을 중심으로 한 천인관계론, 나아가 초자연적인 천의 존재를 긍정하는 사유 방식까지 존재하는데, 그것은 필자가 말하는 자연주의와는 상당히 반대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한대의 천인관계에서의 인간론은 선진 유가와는 매우 큰 차별성을 보이는데, 과연 필자가 말하는 '인간과 자연의 연속성'이라는 말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세 번째 논문은 안춘분의 「『春秋』의 中華思想과 춘추제후국의 中心移動論」이다. 『춘추』와 관련된 연구는 국내의 연구 성과가 매우 부족한 형편이기 때문에 본 논문은 『춘추』 연구의 시각 확대와 향후 『춘추』 연구의 토대 자료로서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연구의 주제나 내용이 『춘추』 사상에 대한 철학적 논문이라기보다는 『춘추』에 기록된 내용 중에서 제나라 · 정나라 · 노나라의 역사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소개한 것으로 보인다. 많은 내용을 다루고는 있

지만, 특별한 쟁점을 중심으로 일관된 주제를 논의한 것이 아니라 세 나라의 역사를 개별적으로 기술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논문의 제목에서 '춘추제후국의 中心移動論'이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이 개념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지 않다. 내용 전체로 보면, 중국의 패권 질서 - 필자의 말로는 인문주의적 중화가 이동하는 경로를 제나라 - 정나라 - 노나라로 설정하고 다룬 것 같다. 이러한 구도가 성립하려면, 인문주의적 중화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먼저 제시하고, 그 내용을 중심으로 세 나라가 그것을 어떻게 실현했는지를 밝혀주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필자의 언급처럼 단순히 제나라는 강대국이었고, 정나라와 노나라는 약소국을 대표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다루었다면, 논문으로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둘째, 『춘추』와 관련된 연구에서 중화의식 · 화이관, 중국과 이적, 중화와 이적 등은 매우 중요한 핵심 주제이다. 『춘추』 관련 연구에서는 '中華'라는 개념을 지역적 개념이 아니라, 문화나 문명의 척도 등으로 사용하여, 이적과 대별하여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관련된 연구 성과는 비교적 많은 편인데, 필자의 연구에서는 그러한 선행연구에 대한 분석이 보이지 않는다. 『춘추』에서는 중화와 이적의 대상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정치의 변동에 따라서 변화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춘추 초기에는 중화의 중심에 있었던 제나라, 정나라 등이 후반부에 이적으로 취급받고, 이적을 대표했던 초나라나 오나라 등이 중화의 질서 속으로 편입되는 현상이 벌어진다. 이러한 화이관과 관련해서는 『공양전』과 『곡량전』을 중심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두 책에서는 '중화'와 '이적'을 구분하는 기준을 나름대로 설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각 국가의 정치를 평가해서 포폄을 가한다. 이 논문이 일

관된 논지를 가지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기존의 연구 성과를 충분히 분석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론의 첫 부분에서 "춘추시기의 강대국은 제나라 · 진나라 · 초나라이다. 본고는 齊나라의 尊王義理와 小國滅亡을 다루었고 약소국으로는 노나라 · 정나라에 초점을 두어 중심국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魯나라의 過小와 事大, 鄭나라의 尊周意識과 保國義理를 상고하고, 더불어 인문주의적 가치론에 중심을 두어 실질적 중심국의 의미에 대하여 상고해 보고자한다"라고 했는데, 왜 제나라와 노나라, 정나라를 다루었는지, 또 왜 세 나라와 관련하여 그러한 제목을 선택했는지, 실질적 중심국을 밝히는 것이 『춘추』 연구에서 어떠한 학술적 가치를 가지는지 등등 많은 의문점이 보인다.

다음으로 본론의 세 파트의 내용 중에 예를 들어 제나라의 사례를 다루면서, 서두에 "이들의 나라가 패제후로서 중화세계를 실현하고자 하였다면 춘추시기로부터 오늘에 이르기 까지 혼란은 덜했을 것이라고 예측해 볼 수 있다. 한편 이들의 나라가 패제후가 된 근거를 파악한다면, 오늘날에도 교훈으로 삼을 만한 의미가 충분하다고 본다. 그래서 먼저 제나라의 존왕과 패왕의 측면을 역사적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라고 하여, 제나라를 다룬 이유가 오늘날 교훈으로 삼을 만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 노나라를 다루면서 "이 장에서는 약소국이 약소국의 정명을 다하였다면 강대국이 강대국의 정명을 다한 것 보다 오히려 우월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연구하고자 한다"라고 하여, 정명의 입장에서 노나라를 다룬 이유를 밝히고 있다. 정나라를 다룬 이유는 "정나라는 약소국으로서 晉 · 楚의 패권에 대처하는 능력이 특수하였다"라고 외교 능력의 측면에서 다루고 있다. 결국 세 나라는 필자가 나름대로 제시한 '중화'의 특징에 의해 선별된 논의의 대상이 아니

라, 필자의 임의적인 선택에 의해 선별되었기 때문에 본론이 체계적인 논문의 형식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개별적인 국가의 특징을 다룬 것으로 끝나버리는 느낌이 든다.

필자는 "중화중심의 의미는 '大一統' 과 '大同'의 의미와 근사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주장에 근거하여, 대일통과 대동을 중화와 같은 의미로 접근하고 있다. 사실 중화라는 개념 속에는 중국과 이적을 구분하는 내외차별의 역사관이 깔려 있다. 처음에는 지리적 개념에서 중화와 이적을 구분했지만, 나중에는 중화의 문화를 실현하는 정도에 따라 중화에서 이적으로, 이적에서 중화로의 변화를 언급함으로써 중화와 이적을 구분하는 의식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과연 이러한 중화 개념과 대일통 또는 대동을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있는가는 의문이 든다.

먼저 필자는 "儒學에서 '大一'은 極임과 동시에 兩儀와 四象을 포함하는 의미이다. 그래서 『춘추』에는 '大一統' 다음으로 四方을 기록하였다"라고 하여, '대일통'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였다. 『공양전』에서는 '大'자를 동사로 보고, '하나로의 통일을 크게 여긴다'로 해석한다. 이와 비슷하게 '올바른 자리에 거하는 크게 여긴다'는 '大居正'이라는 용법도 보인다. 필자처럼 '大一'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여 그것을 『주역』의 兩儀와 사상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보는 것은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밝혀줄 필요가 있다. 만약 이 이론의 논리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이하의 논의에 다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일통'의 이념 속에는 '중화주의'도 중요한 실현 목표 중의 하나이지만, 그것을 '대동'과 연결짓는 논리는 또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분명히 밝혀주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대동은 차별을 부정하는 점에서

'중화주의'와는 대별되는 개념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데, 둘을 동일한 개념으로 보는 근거를 분명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주요 개념에 대한 정확한 정의, 각 개념들 간의 상호 연관성에 관한 정밀한 접근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이 글 전체의 논리구조와 이론전개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필자는 "'대일통'은 사람이 시간과 공간의 공유를 통하여 행동하는 형식과 동작을 만들어서 正道와 正行을 실현하고자 한 것이다. 그 내부에 윤리적이면서 철학적인 가치를 내함하고 있는데 이것이 仁·義·禮·智이다"라고 하여, 다소 논리적 비약을 보이고 있는데, 대일통 속에 인의예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사실 『공양전』의 대일통 이론은 통일제국의 이념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황제 또는 천왕 중심의 일원화된 국가체제를 상징하는 개념이다. 그것이 인의예지라는 사상적 개념과 어떻게 연계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내용들이 보완되어야만, 필자가 주장하는 '중화주의가 곧 인문주의'라는 주장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필자는 나름의 논리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中華에는 조화로운 세상을 실현하는 체제 안에서 구심점이 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리고 그 구심점에 가깝게 접근하려면 인문주의의 덕목인 義의 실현을 통한 仁의 구현을 수반해야 한다. 그래서 中華는 仁이 구현된 실상의 세계를 말하며 中華의 중심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중심의 이동이 가능하며 이것은 인문주의에 의한 禮와 義가 살아있는 곳을 따라서 그 개인이나 국가에게 이동한다고 볼 수 있다." 앞의 주장과 이 논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논리 구조가 된다. 즉 대일통이라는 개념 속에는 인의예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대일통과 동일한 개념인 중화는 인문주의이다. 또한 역으로

중화라는 개념 속에는 세계의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므로 중화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문주의의 덕목인 인의예지를 구현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이론적 근거나 논리적인 상관관계는 없이, 필자의 추론에 의한 주장만이 반복되고 있을 뿐이다.

결론 부분에서 필자는 "『춘추』는 魯나라의 역사서이며 역사평가서이다. 『춘추좌전』도 노나라의 역사서이다. 그러므로 『춘추』와 『춘추좌전』에는 尊魯思想이 들어 있다"라고 말했다. 노나라의 역사서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속에는 존노사상이 들어 있다는 것은 제고해야 할 주장이다. 사실 존노사상은 『공양전』의 대표적인 『춘추』 해석의 하나이지, 『춘추』 자체에 존노사상이 들어 있다는 것은 세밀하게 다시 검토해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춘추좌전』이 노나라의 역사서라는 말도 제고의 여지가 있다. 『좌씨전』은 『춘추』를 해석한 전 중의 하나인데, 그것이 노나라의 역사서라고 한다면 다소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5. 평가와 전망

2015년도 중국의 선진시대부터 한당시대까지의 국내 연구 논문 71편을 분석해본 결과, 국내 학계의 연구 내용과 방향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연구의 내용면에서 보면, 인물별 분류에서는 대부분이 공자 · 맹자 · 순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주제별 분류에서도 선진시대의 대표적인 사상가의 이론이나 주요 경전에 대한 연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연구의 방향면에서 보면,

기존의 연구 성과를 활용하여 특정 분야의 연구에 집중하는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접근 방법을 시도하거나, 다른 학문분야와의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연구 영역으로의 확대를 도모하는 시도가 보이지 않는다. 2014년도에도 비슷한 조사 결과가 나온 점을 감안하면, 국내 학계의 선진시대와 한당시대에 대한 연구는 이와 같은 경향이 어느 정도 고정된 연구 형태로 자리잡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제한된 연구 인력과 연구 자료로 인한 한계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선진시대의 주요한 사상가나 핵심 유교 경전을 제외한 연구 분야는 전공자가 매우 드물 뿐만 아니라, 기존 학계에 소개된 연구 자료도 부족하기 때문에 연구를 위한 여건이 매우 열악한 형편이다. 그런데 선진시대 이후 진한시대나 위진남북조시대, 수당시대에도 유학사상은 그 시대의 환경에 따라 나름대로 독특한 형태의 학문을 형성하고 있었고, 각 사상마다 그 시대의 정치와 사회, 문화 등이 반영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를 파악하는 중요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자료들이다. 또한 선진시대부터 수당시대의 유학은 유학의 전성기에 해당되는 송대 신유학의 형성에 가교적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도 반드시 연구가 필요한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이 학계 전반에 공통의 인식으로 자리잡아야만 비로소 연구 인력과 영역의 확대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영역이 나아가야할 미래의 방향성에 대한 이와 같은 고민과 함께, 본 영역의 연구 활성화를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경학 분야의 주요 대상인 유교 경전은 중국철학 전 분야의 연구의 기초 텍스트에 해당되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가 필

요한 대상이다. 그런데 작년과 금년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경학 분야의 연구는 내용의 다양성이나 논문의 편수 등에서 항상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 학계에서 중국철학 분야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그 기초 토대를 탄탄하게 다지는 것이 필요 요건이다. 따라서 이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철학 분야에서는 연구 내용의 다양성과 연구 영역의 확대를 위한 연구자들의 각성이 요구된다. 공자 · 맹자 · 순자로 대표되는 선진시대의 주요 사상을 보다 심도 깊게 다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들의 사상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변용되어 발전했는지를 밝히는 것도 매우 중요한 연구의 대상이다. 선진시대 이후 전개된 유학은 단절이 아니라 계승을 통해 지금까지 이어져왔기 때문에 그 중간 단계의 전개 과정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유학 전체에 대한 조망이 힘들 뿐만 아니라, 유학의 현대적 의미와 가치를 밝히는 작업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진한시대와 위진남북조시대, 수당시대의 유학 연구는 기존 연구 성과와 기초 자료의 부족으로 본격적인 연구가 쉽지 않은 실정이지만, 그 연구가 지닌 학술적 가치와 파급 효과는 매우 크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현재 한국 학계는 학문 융복합이라는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 현재까지의 연구 성과를 분석해보면, 학문 융복합과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다른 학문과의 단순한 비교를 통해 유학의 우수성이나 현재성을 강조하는 유형의 글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향후 유학도 다른 학문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분과 학문의 입장에서 타 학문과 상호 공

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다양한 학문이 공존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타 학문과의 교류와 융합을 통해서만 유학의 생존은 물론, 유학의 현대적 가치를 제고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동양철학 분야의 연구자들이 자신의 학문 영역에만 매몰되지 말고, 타 학문과의 적극적인 교류와 연구 영역의 확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제2장

송대 유학 연구

단윤진

1. 들어가는 말

본 보고서는 2015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한국학계에서 발표된 학술 논문 중에서 중국 주자학 관련 연구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논문 색인의 대상은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 및 등재후보지에 수록된 논문(KCI)과 각 대학의 박사학위 논문을 기준으로 삼았다. 논문의 출처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와 한국연구정보서비스(KISS)에 나타난 논문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 방법으로는 첫째, 인물별로 분류하여 북송시대 성리학자인 소옹(강절, 1011~1077), 정호(명도, 1032~1085). 정이(이천, 1033~1107)와 남송시대의 이동(연평, 1093~1163), 주희(회암,1130~1200)까지 총 5명의 유학자들에 관한 논문을 시대별로 조사하여 정리하였다.

둘째, 주제별로 분류하여 1)경학[역학, 예학], 2)이기론, 3)윤리 · 수양론, 4)인식론, 5)비교, 6)기타 등으로 정리하였다.

셋째, 논문 중 주목할 만한 논문 몇 편을 선별하여 소개하고 비평 하였다.

넷째, 마지막으로 그 동안의 연구 성과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전망을 조망해 보았다.

2. 인물별 분류

인물별로 분류는 북송시대 성리학자인 소옹, 정호, 정이와 남송의 이동, 주희까지 총 5명의 유학자들에 관한 논문을 유학자의 시대별로 조사하여 정리하였다. 소옹에 관한 논문은 총 2편이 있으며 정호에 관한 논문도 2편 있다. 정이에 관한 논문은 박사논문 1편, 일반 논문 1편, 총 2편의 논문이 있으며 이동에 관한 논문은 일반 논문 1편이 있다. 주희에 관한 논문은 가장 많은데 일반논문 32편, 박사학위논문 1편으로 총 33편이 있다. 모두 40편의 논문을 조사하였다.

1) 소옹(강절, 1011 - 1077) [일반논문 2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조희영	소강절 역수론(易數論)은 어떻게 구성되었나?	哲學論叢, Vol.81 No. - , .[KCI등재]	새한철학회
2	조희영	『주역』에 내재된 리수(理數)의 함의 - 송대 선천역학자의 관점에서 -	韓國思想과 文化, Vol.77 No. - , .[KCI 등재]	한국사상문화학회

소옹의 논문은 조희영의 논문이 2편으로 상수역학에 관한 논문과 역수론의 구성과 리수의 함의에 관한 논문이다. 2014년에는 1편도 없었는데 2015년에는 2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2) 정호(명도, 1032 - 1085) [일반논문 2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박길수	程明道의 仁說연구	양명학Vol.- No.41, [KCI등재]	한국양명학회
2	이현선	정호의 철학과 明代 유학의 탈주자학적 경향	양명학Vol.- No.42, .[KCI등재]	한국양명학회

정호에 관한 논문은 박길수와 이현선의 논문이 각각 1편씩 있다. 2014년 3편에서 2015년은 2편으로 줄었다.

3) 정이(이천, 1033 - 1107) [일반논문 1편, 박사학위논문 1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박호석	程伊川 '理'哲學의 이론적 체계에 관한 硏究	[국내박사]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2015]
2	이정환	程學 전통에서의 格物, 致知, 窮理 - 二程 4대 初傳弟子들의 해석과 주자 재해석의 의의 -	東洋學, Vol.60 No.-,. [KCI등재]	단국대학교 동양학 연구원

정이천에 대한 논문은 2014년에는 1편도 없었는데 2015년에는 이정환의 일반 논문 1편과 박호석의 박사학위 논문 1편을 포함하여 총 2편이다.

4) 이동(연평, 1093 - 1163) [일반논문 1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이승연	이동李侗 공부론의 시대적 함의	한국학논집, Vol.61 No.-, .[KCI등재]	계명대학교 한국학 연구소

이동에 관한 논문은 2014년에는 1편도 없었는데 2015년에는 이승연의 1편의 논문이 나왔다.

5) 주희(회암,1130 - 1200) [일반 논문 32편, 박사학위논문 1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권상우	주자학과 이슬람의 상호문화철학적 접근; 이유전회(以儒詮回), 이회보유(以回補儒), 회유공명(回儒共明)을 중심으로	사회사상과 문화, Vol.18 No.3, [KCI등재]	동양사회사상학회
2	김경수	천인론을 통해 본 최한기와 주희의 보편성 비교	한국학연구, Vol.54 No.-, [KCI등재]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3	김세정	주희 철학사상의 생태론적 특성	동서철학연구, Vol.77 No.-, [KCI등재]	한국동서철학 연구회
4	김원희	朱熹與李珥的鬼神祭祀觀	율곡사상연구, Vol.31 No.-, [KCI등재후보]	율곡연구원
5	김정신	주희(朱熹)의 소목론(昭穆論)과 종묘제(宗廟制) 개혁론(改革論)	大東文化研究, Vol.92 No.-, [KCI등재]	대동문화연구회
6	김정신	주희(朱熹)의 묘수론(廟數論)과 종묘제(宗廟制) 개혁론(改革論)	동방학지, Vol.172 No.-, [KCI등재]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7	노영실	주희 귀신론의 관점에서 본 지행의 괴리 문제	道德敎育研究, Vol.27 No.2, [KCI등재]	한국도덕교육학회
8	박동인	朱熹의 自我觀과 生死觀	동양철학, Vol.44 No.-, [KCI등재후보]	동양철학회
9	방현주	주희의 태극 형이상학과 그 전승	[국내박사]	건국대학교대학원,[2015]
10	변희욱	대혜(大慧)의 간화(看話)와 주희의 격물(格物)의 철학적 차이	한국선학, Vol.42 No.-, [KCI등재]	한국선학회
11	성현창	朱熹의 顔回이해	哲學論叢, Vol.82 No.-, [KCI등재]	새한철학회
12	소진형	주희(朱熹)의 극(極) 해석에서 드러난 도덕과 정치의 분리가능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	韓國政治研究, Vol.24 No.3, [KCI등재]	서울대학교 한국정치 연구소
13	신명종	주자(朱子)와 다산(茶山)의 서법(筮法)에 대한 비교(比較) 연구	退溪學報, Vol.138 No.-, [KCI등재]	퇴계학연구원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4	신정근	중국철학: 朱子(주자)의 仁(인)과 知(지)관계에 대한 해법– "멍청한 仁者(인자)"의 문제를 중심으로–	東洋哲學硏究, Vol.81 No.–, .[KCI등재]	동양철학연구회
15	안영석	주자와 양명의 도덕교육론 연구	儒學硏究, Vol.32 No.–, .[KCI등재]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16	연재흠	주희 독서론 연구	中國學報, Vol.72 No.–, .[KCI등재]	한국중국학회
17	이상돈	이일분수론으로 보는 주자의 격물치지설	한국 철학논집, Vol.44 No.–, .[KCI등재]	한국철학사 연구회
18	이승연	주자 교육 사상의 현대적 독해	사회사상과 문화, Vol.18 No.1, .[KCI등재]	동양사회사상학회
19	이종우	맹자의 시비지심,지(智)=선의 의미: 주희와 왕수인의 해석을 중심으로	孔子學, Vol.29 No.–, .[KCI등재]	한국공자학회
20	이정상, 김종두	양생(養生)에서의 호흡법 고찰 – 태식법(胎息法)과 朱子의 "조식잠(調息箴)" 수용을 중심으로	韓國思想과 文化, Vol.79 No.–, .[KCI등재]	한국사상 문화학회
21	이천승	주자의 인설(仁說)을 통해 본 자연에 기초한 도덕규범	東洋哲學硏究, Vol.83 No.–, .[KCI등재]	동양철학연구회
22	이치억	송대 성리학자들의 인仁사상에 관한 소고	국학연구, Vol.28 No.–, .[KCI등재]	한국국학진흥원
23	임병식	주자는 어떻게 죽음의 불안을 극복했는가?	동양철학, Vol.43 No.–, .[KCI등재후보]	동양철학회
24	전병욱	"혈구지도(絜矩之道)"에 대한 해석을 통해 본 주자의 공동체 윤리	東洋哲學硏究, Vol.83 No.–, .[KCI등재]	동양철학연구회
25	정상봉	〈천리(天理)의 함의: 주자의 천리관(天理觀) 재해석〉(楊利華敎授)를 읽고	한중인문학포럼 발표논문집, Vol.2015 No.10, [2015]	한중인문학포럼
26	정영근	주희의 직업사상 = ZhuXi's Thoughts on Occupation	韓國思想과 文化, Vol.80 No.–, .[KCI등재]	한국사상문화학회
27	정우락	주자시의 문학적 수용과 문화적 응용 –〈觀書有感〉을 중심으로–	퇴계학과 유교문화, Vol.57 No.–, .[KCI등재]	경북대학교 퇴계학연구소
28	진형준	이원론과 일원론: 서구의 이원론과 주자학의 이원론 비교 = Resume : Unicisme et dualisme	佛語佛文學硏究, Vol.101 No.–, .[KCI등재]	한국불어불문학회
29	한상인	교육적 인간상으로서의 군자(君子) 연구: 주희의 "군자시중(君子時中)" 이해를 중심으로	교육철학연구, Vol.37 No.1, .[KCI등재]	한국교육철학학회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30	한승일	인식 주체로서의 감정에 관한 연구 : 주희의 격물치지(格物致知)를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Vol.50 No.–, .[KCI등재]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소
31	한자경	미발지각(未發知覺)이란 무엇인가? = 未發知觉意味研究 兼论目前韩国关于'未发'的争论論	哲學, Vol.123 No.–, .[KCI등재]	한국철학회
32	황인석	주희의 자연주의적 도덕관 검토	사회과학교육, Vol.18 No.–, .	서울대학교 종합교육연구원 사회과학연구소
33	황지원	『맹자』에 대한 漢代 訓詁學과 宋代 朱子學의 해석 차이와 그 철학사적 의미	동아인문학, Vol.31 No.–, .[KCI등재]	동아인문학회

주희에 대한 논문은 총 33편으로 그 중 일반 논문 32편, 박사학위논문 1편이 있다. 주희에 대한 논문은 한국 학계에서 발표된 중국 성리학 논문 중 그 대부분을 이룬다고 하여도 과언 아닐 만큼 다른 학자들과 비교해 볼 때 압도적으로 많다. 주제도 다양하여 경학, 역학, 경세론, 이기론, 인식론, 비교, 기타 등에 골고루 분포 되어있다. 가장 많이 다루어진 주제는 윤리 수양론 부분이며 인식론 경학 이기론등의 논문이 다양하게 분포 되어 있다. 특히 주희와 다른 대상과의 비교 논문에서는 불교와 주희 비교, 왕양명과의 비교, 조선유학자와의 비교 뿐 만아니라 서구의 이원론과 정치철학, 심지어는 이슬람과도 상호 문화적 접근을 시도하여 비교하려는 경향이 보인다. 또한 주희의 생사관이나 직업관 등 기존의 논문에서는 보기 어려웠던 새로운 주제를 다룬 참신한 논문들이 많이 나왔다. 그 뿐 만 아니라 주희에 대한 매우 다양한 주제의 신선한 논문들이 게제 되어 새로운 각도에서 주희를 조망해 보았음을 알 수 있다.

3. 주제별 분류

주제별 분류는 1)경학[역학, 예학], 2)이기론, 3)윤리 · 수양론, 4)인식론, 5)비교, 6)기타 등으로 분류하였다. 총 논문 편수는 39편이다. 각 분류별 논문의 편수는 경학[역학, 예학] 5편, 이기론 4편, 윤리 · 수양론 13편, 인식론 7편, 비교 5편, 기타 5편이다.

많은 논문들이 제 각각 독특하고 다양한 주제로 개성 있게 발표되어 공통분모를 찾아 범주를 이루기가 어렵다. 또한 기존에 연구 되지 않았던 새로운 문제의식으로 현대 사회와 접목된 보다 다양한 주제들로 깊이 있는 논문이 나왔다는데 의의가 있다.

1) 경학[역학, 예학](5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김정신	주희(朱熹)의 소목론(昭穆論)과 종묘제(宗廟制) 개혁론(改革論)	大東文化硏究, Vol.92 No.-, .[KCI등재]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	김정신	주희(朱熹)의 묘수론(廟數論)과 종묘제(宗廟制) 개혁론(改革論)	동방학지, Vol.172 No.-, .[KCI등재]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3	조희영	소강절 易數論은 어떻게 구성되었나?	哲學論叢, Vol.81 No.-, .[KCI등재]	새한철학회
4	조희영	『주역』에 내재된 理數의 함의 - 송대 선천역학자의 관점에서 -	韓國思想과 文化, Vol.77 No.-, .[KCI등재]	한국사상문화학회
5	황지원	『맹자』에 대한 漢代 訓詁學과 宋代 朱子學의 해석 차이와 그 철학사적 의미	동아인문학, Vol.31 No.-, .[KCI등재]	동아인문학회

경학에 관한 논문은 역학과 예학 부분으로 나누었다. 예학 부분에서는 김정신의 「주희(朱熹)의 소목론(昭穆論)과 종묘제(宗廟制) 개혁론

(改革論)」과 「주희(朱熹)의 묘수론(廟數論)과 종묘제(宗廟制) 개혁론(改革論)」 등 2편이 있으며 역학 부분에서는 조희영의 「소강절 易數論은 어떻게 구성되었나?」와 「『주역』에 내재된 理數의 함의 - 송대 선천역학자의 관점에서 - 」 2편이 있고 황지원의 「『맹자』에 대한 漢代 訓詁學과 宋代 朱子學의 해석 차이와 그 철학사적 의미」라는 맹자 관련 논문이 1편 있다.

2) 이기론(4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박호석	程伊川 '理'哲學의 이론적 체계에 관한 研究	[국내박사]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2015]
2	소진형	주희(朱熹)의 극(極) 해석에서 드러난 도덕과 정치의 분리가능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	韓國 政治 研究, Vol.24 No.3, .[KCI등재]	서울대학교 한국정치 연구소
3	방현주	주희의 태극 형이상학과 그 전승	[국내박사]	건국대학교 대학원,[2015]
4	정상봉	〈천리(天理)의 함의: 주자의 천리관(天理觀) 재해석〉(楊利華教授)를 읽고	한중인문학포럼 발표논문집, Vol.2015 No.10, [2015]	한중인문학포럼

이기론에 관한 논문은 총 4편로 정상봉의 「천리의 함의; 주자의 천리관 재해석(양이화 교수를 읽고)」와 방현주의 「주희의 태극 형이상학과 그 전승」, 소진형의 「주희의 극 해석에서 드러난 도덕과 정치의 분리 가능성에 대한 고찰」, 박호석의 「정이천 '리'철학의 이론적 체계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3) 윤리 · 수양론(13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이승연	이동李侗 공부론의 시대적 함의	한국학논집, Vol.61 No.–, .[KCI등재]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	전병욱	“혈구지도(絜矩之道)”에 대한 해석을 통해 본 주자의 공동체 윤리	東洋哲學硏究, Vol.83 No.–, .[KCI등재]	동양철학연구회
3	박길수	程明道의 仁說연구	陽明學, Vol.– No.41, .[KCI등재]	한국양명학회
4	신정근	중국철학 : 朱子의 仁과 知관계에 대한 해법– “멍청한 仁者”의 문제를 중심으로–	東洋哲學硏究, Vol.81 No.–, .[KCI등재]	동양철학연구회
5	이천승	주자의 仁說을 통해 본 자연에 기초한 도덕규범	東洋哲學硏究, Vol.83 No.–, .[KCI등재]	동양철학연구회
6	이종우	맹자의 시비지심, 智=선의 의미: 주희와 왕수인의 해석을 중심으로	孔子學, Vol.29 No.–, .[KCI등재]	한국공자학회
7	이치억	송대 성리학자들의 仁사상에 관한 소고	국학연구, Vol.28 No.–, .[KCI등재]	한국국학진흥원
8	박동인	朱熹의 自我觀과 生死觀	동양철학, Vol.44 No.–, .[KCI등재후보]	한국동양철학회
9	연재흠	주희 독서론 연구	中國學報, Vol.72 No.–, .[KCI등재]	한국중국학회
10	이승연	주자 교육 사상의 현대적 독해	사회사상과 문화, Vol.18 No.1, .[KCI등재]	동양사회사상학회
11	황인석	주희의 자연주의적 도덕관 검토	사회과학교육, Vol.18 No.–, .	서울대학교 교육종합연구원 사회교육연구소
12	이정상, 김종두	양생(養生)에서의 호흡법 고찰 – 태식법(胎息法)과 朱子의 "조식잠(調息箴)" 수용을 중심으로	韓國思想과 文化, Vol.79 No.–, .[KCI등재]	한국사상문화학회
13	임병식	주자는 어떻게 죽음의 불안을 극복했는가?	동양철학, Vol.43 No.–, .[KCI등재후보]	한국동양철학회

윤리 · 수양론은 13편으로 주제별 분류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논문으로는 이승연의 「이동 공부론 시대적 함의」와 「주자 교육 사상의 현대적 독해」 등 2편이 있으며 전병욱의 「‘혈구지도’에 대한 해

석을 통해 본 주자의 공동체 윤리」, 박길수의 「정명도의 인설 연구」, 신정근의 「주자의 인과 지에 대한 해법 - "멍청한 인자"의 문제를 중심으로」, 이천승의 「주자의 인설을 통해 본 자연에 기초한 도덕 규범」, 이종우의 「맹자의 시비지심, 지=선의 의미;주희와 왕수인의 해석을 중심으로」, 이치억의 「송대 성리학자들의 인 사상에 관한 소고」, 박동인의 「주희의 자아관과 생사관」, 연재흠의 「주희 독서론 연구」, 황인석의 「주희의 자연주의적 도덕관 검토」, 임병식의 「주자는 어떻게 죽음의 불안을 극복 했는가?」, 이정상과 김종두의 「양생에서의 호흡법 고찰 - 태식법과 주자의 '조식잠'수용을 중심으로」 등이 있다.

4) 인식론(7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이정환	程學 전통에서의 格物, 致知, 窮理 –二程 4대 初傳弟子들의 해석과 주자 재해석의 의의–	東洋學, Vol.60 No.–, .[KCI등재]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2	노영실	주희 귀신론의 관점에서 본 지행의 괴리 문제	道德教育研究, Vol.27 No.2, .[KCI등재]	한국도덕교육학회
3	변희욱	대혜(大慧)의 간화(看話)와 주희의 격물(格物)의 철학적 차이	한국선학, Vol.42 No.–, .[KCI등재]	한국선학회
4	이상돈	이일분수론으로 보는 주자의 격물치지설	한국 철학논집, Vol.44 No.–, .[KCI등재]	한국철학사 연구회
5	한승일	인식 주체로서의 감정에 관한 연구: 주희의 격물치지(格物致知)를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Vol.50 No.–, .[KCI등재]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소
6	김우형	덕 인식론의 관점에서 본 지(智)와 지각(知覺)의 문제: 성리학에서 지적인 덕에 관한 두 입장의 현대적 해석	동서철학연구, Vol.75 No.–, .[KCI등재]	한국동서철학 연구회
7	한자경	미발지각(未發知覺)이란 무엇인가? = 未發知觉意味研究 - 兼论目前韩国关于'未发'的争论 -	哲學, Vol.123 No.–, .[KCI등재]	한국철학회

인식론에 관한 논문은 모두 7편이 있다. 주로 격물치지에 관한 논문으로 이정환의 「정학 전통에서의 격물, 치지, 궁리 - 이정 4대 초전제자들의 해석과 주자 재해석의 의의」, 변희욱의 「대혜 간화와 주희의 격물의 철학적 차이」, 이상돈의 「이일분수론으로 보는 주자의 격물치지설」, 한승일의 「인식 주제로서의 감정에 관한 연구; 주희의 격물치지를 중심으로」, 등이 있다. 그리고 지각에 관해서 다룬 논문으로 김우형의 「덕 인식론에서 본 지와 지각의 문제; 성리학에서 지적인 덕에 관한 두 입장의 현대적 해석」, 한자경의 「미발지각이란 무엇인가?」 등이 있으며 노영실의 「주희 귀신론의 관점에서 본 지행의 괴리 문제」가 있다.

5) 비교(6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신명종	朱子와 茶山의 筮法에 대한 比較 연구	退溪學報, Vol.138 No.-, .[KCI등재]	퇴계학 연구원
2	권상우	주자학과 이슬람의 상호문화철학적 접근; 이유전회(以儒詮回), 이회보유(以回補儒), 회유공명(回儒共明)을 중심으로	사회사상과 문화, Vol.18 No.3, .[KCI등재]	동양사회사상학회
3	안영석	주자와 양명의 도덕교육론 연구	儒學硏究, Vol.32 No.-, .[KCI등재]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4	진형준	이원론과 일원론: 서구의 이원론과 주자학의 이원론 비교	佛語佛文學硏究, Vol.101 No.-, .[KCI등재]	한국불어불문학회
5	김경수	천인론을 통해 본 최한기와 주희의 보편성 비교	한국학연구, Vol.54 No.-, .[KCI등재]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6	김원희	朱熹與李珥的鬼神祭祀觀	율곡사상연구, Vol.31 No.-, .[KCI등재후보]	율곡연구원

비교 논문으로는 김원희의 「주희와 율곡의 귀신제사관」, 김경수의 「천인론을 통해 본 최한기와 주희의 보편성 비교」, 진형준의 「이원론

과 일원론; 서구의 이원론과 주자학의 이원론 비교」, 안영석의 「주자와 양명의 도덕교육론 연구」, 신명종의 「주자와 다산의 서법에 대한 비교 연구」, 권상우의 「주자학과 이슬람의 상호문화철학적 접근; 이유전회(以儒詮回), 이회보유(以回補儒), 회유공명(回儒共明)을 중심으로 」 등 모두 6편의 논문이 있다.

6) 기타(5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성현창	朱熹의 顔回이해	哲學論叢, Vol.82 No.-, .[KCI등재]	새한철학회
2	정영근	주희의 직업사상	韓國思想과 文化, Vol.80 No.-, .[KCI등재]	한국사상문화학회
3	정우락	주자시의 문학적 수용과 문화적 응용 -〈觀書有感〉을 중심으로-	퇴계학과 유교문화, Vol.57 No.-, .[KCI등재]	경북대학교 퇴계학 연구소
4	이현선	정호의 철학과 明代 유학의 탈주자학적 경향	양명학 Vol.- No.42, .[KCI등재]	한국양명학회
5	김세정	주희 철학사상의 생태론적 특성	동서철학연구, Vol.77 No.-, .[KCI등재]	한국동서철학 연구회

기타의 논문으로는 성현창의 「주희의 안회이해」, 정우락의 「주자시의 문화적 수용과 문화적 응용 - 〈관서유감〉을 중심으로」, 이현선의 「정호의 철학과 명대 유학의 탈주자학적 경향」, 김세정의 「주희의 철학 사상의 생태론적 특성」 등 모두 5편의 논문이 있다.

4. 주요논문 분석 및 비평

1) 주요 논문

1) 전병욱은 「"혈구지도(絜矩之道)"에 대한 해석을 통해 본 주자의 공동체 윤리」에서 주자는 絜矩之道를 두 가지 방식으로 해석하였다고 한다. 하나의 해석은 "남의 마음을 가늠할 때 공평한 기준을 사용한다는 원칙"이고, 다른 하나의 해석은 "남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헤아려 남도 나와 같이 공정한 몫을 얻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 두 입장은 모두 타당한 논거를 가지며 "平天下"章의 전체적인 논지에도 합당하다. 결국 絜矩之道는 위의 두 해석을 모두 아우르는 것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남의 마음이 어떠할지를 가늠할 때는 나의 마음을 기준으로 사용하고, 남의 마음을 알고 난 뒤에는 그에게 정당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헤아려서 그도 나와 같이 공정한 몫을 얻도록 하는 방식"이 絜矩之道의 의미이다. 이 논문의 첫 번째 임무는 이 점을 밝히는 것이라고 전병욱은 말한다. 이 絜矩之道는 모든 상황에서 통용되는 행위의 규범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治國이 이미 이루어진 상황에서 비로소 요구되는 것이 이 絜矩之道이다. 治國이 이루어진 상황이란, 위정자가 가정 내에서 행하는 도덕적 실천에 모든 사람들이 감화를 받아 그들 자신도 가정 내에서 도덕적으로 살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게 된 상황이다. 그러므로 위에서 말한 '남의 마음'이란 가정 내에서 도덕적으로 살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게 된 마음을 가리키며, '나의 마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가정 내에서 도덕적으로 사는 것을 좋아하는 위정자 자신의 마음이다. 『大學』 傳9章에서 쓰인 '恕'는

독특한 의미를 가진다. 그것은 바로 治國을 이룰 수 있는 위정자의 내면적 조건으로서, 스스로가 도덕적 모범을 보이려고 하는 자세를 가리킨다. 이렇듯 위정자가 '恕'를 통해 治國을 이루었을 때 비로소 絜矩之道가 요구된다는 사실을 밝히는 이 논문의 두 번째 임무라고 필자는 말한다. 그리고 君子가 絜矩之道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格物致知와 誠意正心의 도덕적 수양이 먼저 전제되어야 하며, 絜矩之道의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경제 문제와 인사 문제라는 사실을 설명하는 것이 이 논문의 나머지 내용이다.

2) 이상돈은 「이일분수론으로 보는 주자의 격물치지설」에서 격물치지의 관건은 理와 知의 이해이며 주자의 理에 대한 이해는 이일분수에 잘 나타나 있다고 말한다. 이일분수는 사회윤리의 맥락, 월인천강의 의미, 혼연과 찬연의 구도를 가지고 있다. 이일은 모든 사물에 편재하여 분수리로 드러나며, 미발의 혼연한 전체는 이발의 찬연한 조리로 발현한다. 따라서 거경은 단지 理의 인식을 위한 마음의 준비단계로 축소되지 않으며 즉물궁리는 과학적 지식 탐구와 구별된다. 요컨대, 주자의 격물치지에서 과학적 지식의 산출은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이상돈은 진단한다. 왜냐하면 근대적 과학 지식이 산출되기 위해서는 인식 주체로의 전환과 함께 자연세계에 대한 존재론적 이해를 전환시켜야 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상돈의 이러한 견해는 격물치지를 이해하는 현대적 연구 지평이라 할 수 있다.

3) 이정환은 그의 논문 「程學 전통에서의 格物, 致知, 窮理 - 二程 4대 初傳弟子들의 해석과 주자 재해석의 의의」에서 이 논문은 程明道와 程

伊川의 4대 初傳弟子로 불리우는 呂大臨, 楊時, 謝良佐,游酢의 格物, 致知, 窮理에 대한 해석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程學의 전통 내에서 朱熹의 格物致知說의 '혁명적 전환'이라는 의의를 새로이 밝혀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였다. 그는 주희가 『大學』의 경전적 권위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격물치지에 대한 부분이 逸失되었다는 가정 하에 「格物補亡章」을 경전 안에 삽입하면서, 스스로 이 해석이 二程의 격물치지에 대한 언급에 근거하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학문의 연속성이란 관점에서, 이정에게서 직접 사사를 받은 이정의 4대 초전제자들은 어떻게 격물궁리에 대해 해석하였으며, 주자의 해석과는 어떠한 차이를 보일까? 이 논문은 여러 문헌에 산재하여 있는 二程의 4대 초전제자들의 格物, 致知, 窮理에 대한 해석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비록 그 엄연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해석은 그 근본적인 취지와 이론적 바탕에 있어서 동일한 내용을 띄고 있다는 사실을 구명하였다. 즉, 4대 초전제자들의 해석은 모두 "단일한 이치(一理)"와 "合內外之道"에 근거하여, 주체의 본성과 마음의 단일하고 보편적인 이치가 天理에 따라 외부 대상에게로 자연스럽게 발현되어 나오는 것을 순수하게 '내향적'으로 자각하고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格物, 致知, 窮理를 해석하였으며, 동일한 내용이 이정의 어록에도 확인된다. 주희는 이러한 철저한 내향적인 경향에 대항하여 외부 대상에 대한 관심을 격물치지의 기본적인 조건으로 상정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유가 경전의 독서와 같은 유가의 가장 기본적인 공부법을 二程의 학문적 전통 안에서 재확립하고자 하는 혁신적인 의도에서 格物, 致知, 窮理에 대한 재해석을 제시하였다고 이정환은 말한다.

4) 이천승은 「주자의 인설(仁說)을 통해 본 자연에 기초한 도덕규범」에서 "도덕적 다원주의 사회에서 인의예지(仁義禮智)로 대표되는 유학의 덕목이 우리 사회에 여전히 좋은 삶을 위한 훌륭한 지침이 되거나 여타의 덕목을 넘어선 배타적 중심 가치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논문을 출발한다. 이 점을 해명하기 위해서 먼저 조선시대 성리학자들 사이에 보편적으로 인지되었던 주자학에서의 인(仁)에 관한 이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이천승은 착안한다. 주자의 인에 관한 종합적이고 치밀한 분석은 본체와 연관된 성리학적 토대 및 유학의 지평을 확장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인을 자연성에 기초한 도덕적 본성의 성찰이란 측면에서 '마음의 덕이자 사랑의 이치'로 정의한 것은 인간의 본성, 즉 인성에 대한 주자학적 견해를 대표한다. 특히 원형이정이라는 자연계의 변화양상처럼 사람의 덕성도 자연이 부여한 생명력의 자연스런 발현이라는 사유에 기초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끊임없이 만물을 낳는 자연계의 역동적 생명성은 인간에게 있어 타자의 고통을 차마 외면하지 못하는 원초적 감정이었다. 이를 통해 천지와 소통할 수 있는 자연의 일부로서 인간의 본질적 힘을 확인했던 것이다. 그 자연성은 원형이형을 인의예지로 대응시키는 과정에서 명시화되면서, 주자는 "원형이정은 천도의 일정함이요, 인의예지는 인성의 강령이다"고 주장하면서 도덕적 인간이 지향해야 될 덕성으로 인의예지를 구체화시켰다. 또한 주자는 사랑으로 대표되는 도덕 감정과 그 이치로서 일상에서 본체와 연계된 인의 정신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감정과 본성의 연계성과 차이점을 통해 행위의 보편타당한 도덕기준을 우리 마음속에 정초하려 했던 것이다. 그러한 사유는 일상의 도덕화를 지향하는 유학의 심층적 기반을 확보하는 한편, 덕

성의 함양을 위한 공부를 지향하도록 촉구하는 토대가 되었다. 이처럼 자연성에 기초하여 일상의 도덕화를 지향했던 주자학에서 인의예지로 대표되는 유학의 덕목은 도덕적 강제나 사회적 유용의 측면을 넘어선 내재적 본성의 자연스런 발현이었다는 것이다.

간략하게 몇 편의 논문을 정리해 보았는데 각각의 문제의식은 다르지만 자신의 주장을 논증적으로 설득력 있게 전개하고 있다.

2) 논문 비평

1) 노영실의 「주희 귀신론의 관점에서 본 지행의 괴리 문제」는 매우 문제가 있는 논문이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주자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결여한 채, 교육학계의 특정한 그룹의 왜곡된 주자학설을 기반으로 논문을 전개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리를 '논리적 원인'이라고 규정한 부분이다. 주자학에서 리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실질적 존재 근거이자 운동의 主宰者라는 것은 상식이다. 이 논문의 황당함은 "귀신은 '리'의 대행자이자 인간존재가 리에 합치하도록 이끄는 세력으로 작용한다"라는 주장에 이어 "귀신은 기의 대행자이며" "귀신은 리를 그 역동성에 초점을 두고 의인화한 것"이라는 대목에 이르러 극치에 이른다. 주자학에 대한 이해의 정도를 일단 괄호 안에 넣어둔다고 해도, 이 글이 과연 논문으로서 성립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2) 한승일의 「인식 주체로서의 감정에 관한 연구 : 주희의 格物致知를 중심으로」도 주자학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결여된 상태에서 작

성된 논문이다. 우선 필자는 한자어 '情'의 의미에 대하여 오해를 하고 있다. 필자는 '정'을 '감정'이라고 본다. 그리하여 '無情者'라는 구절이 나오는 『대학』4장에 대하여 "아무리 정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백성의 뜻을 두려워하는 정이 있다는 말이다"라고 해석한다. 그러나 이 때의 '정'은 '두려워하는 정'과 같은 감정이 아니라, '실정' '실재의 사실'을 의미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이 논문은 제목부터 오류를 범하고 있다. 주자학에서 '性發爲情'의 '정'은 마음의 작용 전체를 지칭한다. 여기에는 '측은지심' '수오지심'과 같은 '감정', '사양지심'과 같은 '의지', '시비지심'과 같이 시비선악을 판단하는 지적인 '이성'[1]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이 가운데에 인식은 주로 지적인 영역에 속한다. 그런데 감정이 인식의 주체가 된다는 주장이 어떻게 성립되는지 황당하기 이를 데 없다. 어떻게 희로애락과 같은 감정이 '卽物而窮其理'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주자 「중용서」의 '혹생혹원'에 대하여 "심의 소종래에 따른 지각, 즉 생각하기에 따라 심을 인심과 도심으로 한 구분이다. 〈중략〉 생각하기 나름이라서 나의 심이 성명의 바름에서 나온 줄 알면 인심이더라고 도심과 다르지 않지만"이라는 주장을 읽어보면 필자가 주자학의 기본 개념과 기초이론에 대하여 얼마나 왜곡하고 있는지 말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한다. 또한 "앎의 궁극은 격물이다"라는 주장에 이르면 필자가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격물치지'의 기초적인 의미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다. '致知在格物'이라는 경문이 보여주듯이 '격물'은 '앎을 이루는[致知]'의 방법이다.

1 이 때의 이성은 주로 윤리적 판단을 하는 도덕적 이성을 말한다.

그 이외에도 논문 곳곳에 논증되지 않은 주장들이 산재해 있으며, 치지의 내용으로 '이기불리부잡'에 대한 개론적 수준의 설명을 늘어놓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리고 "道心是知覺道理底"를 "도심은 도리의 바닦을 아는 것이요"라고 오역한 것은 이 논문의 신뢰도를 더욱 떨어지게 만들고 있다.

3) 신정근은 그의 논문 「주자의 仁과 知관계에 대한 해법 - "멍청한 仁者"의 문제를 중심으로」에서 "멍청한 仁者"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문제의식으로 논문을 출발한다. 필자는 "仁者가 어떻게 오류의 가능성을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탐구해 그에 대한 해답을 『논어』 「雍也」 24에 보면 仁者(君子)에 대해 "可逝也, 不可陷也. 可欺也, 不可罔也."라는 문장에서 찾고자 하였다. 비록 仁者가 완전한 인격을 갖춘 도덕적 영웅이더라도 仁者가 '不可罔'이지만 '可欺'가 되풀이 된다면 멍청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다. 즉 仁者는 영웅이지만 역설적으로 멍청한 인물이다. "멍청한 仁者"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필자는 그 문제의 해답을 孔子는 仁과 知를 결합시켜서, 孟子는 性안에 惻隱之心과 是非之心을 포함시켜서, 荀子는 性밖에 비교 판단하는 知를 두어서 '멍청한 仁者'의 문제를 풀고자 했다고 한다. 한 제국의 董仲舒도 仁知의 결합만이 '멍청한 仁者'의 오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필자에 의하면 朱子는 「雍也」 24의 주석을 달면서 仁者가 오류의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듯하다고 하였다. 이렇게 되면 仁과 知사이에 묘한 긴장이 형성되게 된다. 이 글에서는 주자가 '멍청한 仁者'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 가는지 살피고자 한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 모호하다. 感情에

대한 인지주의와 수정된 인지주의의 논의를 끌어들여서 논점을 정확하게 전개하고자 한다고 하였는데 과연 잘 전달되었는지 모르겠다.

5. 평가와 전망

이상으로 2015년 1년간 한국에서 발표된 중국 주자학 논문을 인물별, 주제별로 분류하고 몇 편의 주요논문을 정리하고 비평하였다. 2014년에는 모든 학위논문을 조사에 포함시켰지만 2015년은 석사논문은 제외하고 박사논문과 일반 학회지(KCI 등재지, KCI 등재후보지) 논문만을 그 대상으로 삼았다.

첫째, 인물별로 북송시대 성리학자인 소옹, 정호, 정이와 남송의 이동, 주희까지 총 5명의 유학자들에 관한 논문을 조사하여 정리 하였다. 인물별 논문은 일반논문 38편, 박사학위논문 2편(주희 1편, 정이 1편)으로 총 40편이다. 소옹, 정호에 관한 논문은 일반 논문이 각각 2편씩 있다. 정이에 관한 논문은 박사논문 1편, 일반 논문 1편 등 총 2편의 논문이 있다. 이동에 관한 논문은 일반 논문 1편이 있다. 주희에 관한 논문은 가장 많은데 일반논문 32편, 박사학위논문 1편으로 총 33편이 있다. 주희의 논문은 다른 인물들의 논문을 모두 합한 것 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2015년을 2014년과 비교하여 보면 2014년에는 보이지 않던 소옹과 정이에 대한 논문이 2015년에는 새롭게 생겼지만 2014년에 있었던

주돈이, 사량좌, 호굉, 진덕수 등의 논문은 보이지 않는다. 2014년에는 총 49편의 논문이 게재 되었으며 인물별로 분류하여 보면 주돈이 3편, 장재 3편, 정호 3편, 사량좌 1편, 호굉 2편, 주희 36편, 진덕수 1편 이었다. 석 · 박사 논문은 총 8편(박사 3편, 석사 5편)인데 그 중 6편(박사 2편, 석사 4편)이 주희에 관한 논문이었다.

주희의 철학은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그에 대한 논문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당연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주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주희의 사상적 기초인 북송 성리학의 연구는 필요하다. 대부분의 논문이 주희에게만 편중되어 있는 것은 이해 할 수는 있지만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둘째, 주제별 분류는 1)경학[역학, 예학], 2)이기론, 3)윤리수양론, 4)인식론, 5)비교, 6)기타 등으로 분류하였다. 2015년 1년 동안 중국 주자학 관련 논문은 40편이 발표되었는데 각 분류별 논문의 편수는 경학[역학, 예학] 5편, 이기론 4편, 윤리 · 수양론 13편, 인식론 7편, 비교 6편, 기타 5편이다. 2014년에는 윤리 · 수양론이 16편, 이기 · 심성론이 12편, 경학 7편, 정치 사회 6편, 예학 3편, 기타 5편이었다. 주제별 분류에서 보자면 2014년이나 2015년이나 윤리 · 수양론 부분에서 가장 많은 논문이 나온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몇 편의 주요 논문을 소개하고 분석 비평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상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인물별 분류에서는 주희에 대한 논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주제별 분류에서는 윤리 · 수양론 부분이 가장 많다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 학계의 독특한 현상이며

또한 커다란 연구 업적이다. 앞으로도 계속 더 많은 연구자들이 깊이 있는 학문 연구를 바탕으로 중국에서 보다 더욱 수준 높은 중국주자학 논문들이 나올 것을 기대한다. 그리고 기존에 연구 되지 않았던 주자학 관련 학자들을 발굴하고 또한 현대 한국사회와 접목된 주자학의 다양한 주제들로 보다 심도 있는 논문이 나올 것을 기대한다. 주자학의 현재적 재해석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목표일 것이다. 그 뿐 만 아니라 그러한 작업은 한국 학계에 새로운 공헌이 될 것을 확신한다.

제3장

명청대 유학 연구

선병삼

1. 머리말

본 내용은 2015년도 한국에서 발표된 학술 논문 중에서 〈중국: 명 · 청대 유학〉 관련 연구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논문 색인의 대상은 한국연구재단에 정식으로 수록된 논문(KCI)과 개별 대학의 박사학위 논문을 기준으로 삼았다. 박사학위 논문은 양선진의 『왕양명과 베르그손의 생명론과 철학상담 적용에 관한 연구』(충남대학교)가 있다.

한국연구재단 수록 논문은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의 기간에 발표된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보고서의 작성을 위해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논문집을 연구재단 분류 방식에 따라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철학전문 등재지(후보지) 25개, 유교학 4개, 기타인문학 1개, 중국어와 문학 1개, 역사학 19개이다.

이상의 학술지의 학술지와 학위논문을 분석한 결과 〈중국: 명 · 청대 유학〉 시기에 해당되는 논문은 총 23편(박사학위 논문 1편은 별도 산정)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논문에 대한 일목요연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인물별로 구분하면 아래와 같다.

2. 인물별 분류

1) 왕양명 관련 논문(9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황갑연	양명의 주자철학 비판의 適否에 관한 고찰	〈범한철학〉 제79집	범한철학회
2	권오향	양명철학에서 良知의 體用觀 : 주자의 理와 비교하여	〈철학논총〉 제81집 제3권	새한철학회
3	김혜수	왕양명 양지설의 장횡거 기론적 해석 : 장횡거 기론의 양명학적 전개와 변용	〈양명학〉 제41호	양명학회
4	임홍태	비유를 통해 본 양명의 공부론	〈한국철학논집〉 제45집	한국철학사연구회
5	황갑연	시정(詩情)을 통해서 본 왕수인의 철학 사유세계	〈중국학보〉 제72집	한국중국학회
6	안영석	주자와 양명의 도덕교육론 연구	〈유학연구〉 제32집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7	이우진	신유학의 아동교육.1,주자와 왕양명을 중심으로	〈양명학〉 제41호	양명학회
8	김준승	왕양명 아동교육관의 지행합일 : 루돌프 슈타이너의 발도르프교육과 비교해서일	〈양명학〉 제42호	양명학회
9	김준승	왕양명 사상에 나타난 인간의 잠재력	〈동양철학연구〉 제82집	동양철학연구회

전체 23편의 논문 중에서 왕양명에 관한 논문이 9편으로 전체 편수의 30%를 넘는 수치이다. 전년도 왕양명 관련 논문이 10편(전체 18편)으로 50%를 넘는 수치에 비하면 비중이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명·청대 중국유학에서 왕양명에 대한 연구가 중심에 있음을 보여준다. 물론 9편이라는 논문 편수는 1년이라는 기간을 상정했을 때 결코 많은 편수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각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을 상당히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먼저 ①, ②, ③은 양명학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확인하거나 넓히는 작업이다. 황갑연은 양명의 주자학 비판의 정당성을 검토하면서 주자학과 양명학의 변별점을 밝히고자 했다. 권오향은 양명 학설의 핵심인 양지를 체용으로 설명하였다. 김혜수는 양명학의 기론적 경향성을 장재의 기철학과 연결하여 논하였다. ④, ⑤는 양명 사상 이해의 통로를 다변화한 연구다. 임홍태는 양명이 사용한 비유적 표현들을 통하여 양명 사상의 본질을 읽어내고자 했다. 황갑연은 양명의 시를 통하여 그 사상의 내면을 살피고자 했다. ⑥, ⑦, ⑧, ⑨는 양명학을 교육론의 측면에서 접근한 논문들이다. 15년도 양명학 연구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보인다. 안영석과 이우진은 주자와 양명의 차이를 현대 교육론의 입장에서 정리하였다. 김준승은 양명학의 특징으로 보이는 인간의 잠재력에 대한 무한한 긍정적 입장을 정리하고, 다른 논문에서는 이러한 특징을 아동교육관에서 슈타이너의 발도로프교육과 비교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2) 왕정상(1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권오향	왕정상의 지식론	〈동양철학연구〉 제83집	동양철학연구회

한국 학계에서 왕정상을 다룬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 송대 이학과 명대 심학이라는 기존의 틀에 기반 했을 때 명대는 양명학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 학계에서 이학과 심학 외에 실학이라는 틀을 통해서 중국철학사를 정리하는 일련의 노력들이 꾸준히 진행되어 오고 있고, 그 흐름에서 상당한 위치를 차지

하는 인물이 왕정상이다. 권오향은 왕정상의 지식론을 주제로 그 사상의 특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다.

3) 왕간과 태주학파(3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김연재	王艮의 安身立本說과 그 도덕형이상학적 강령 : 安身과 至善의 통일을 중심으로	〈양명학〉 제40호	양명학회
2	이상훈	태주학파(泰州學派) 정기정물(正己正物) 공부(工夫)의 함의(涵義)	〈유학연구〉 제33집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3	이상훈	卓吾 李贄의 求道精神과 實踐工夫	〈양명학〉 통권 제41호	양명학회

①, ②, ③은 왕간에서 시작하는 태주학파에 대한 연구다. 김연재는 왕간의 핵심 종지로 안신입본설을 설정하고 안신입본설이 안신과 지선의 통일이라는 점을 밝힌다. 이를 통하여 왕간을 중심으로 하는 태주학파 양지설의 사상사적 의의를 도덕형이상학적 강령 탐구라는 방식으로 전개한다. 이상훈은 먼저 태주학파에 대한 사상사적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다. 왕간에서 시작하여 이지까지 이어지는 태주학파의 중심인물들의 핵심 사상을 기술하고 종합적으로 태주학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설명한다. 다른 논문에서는 이지 학술의 지향점을 구도정신과 실천정신이라는 틀로 풀어낸다.

4) 왕용계(2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선병삼	왕용계의 一念入微 공부론	〈양명학〉 제40호	양명학회
2	선병삼	왕용계 공부론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 '無工夫中眞工夫'	〈동양철학연구〉 제82집	동양철학연구회

왕용계는 양명후학 중에서 가장 논쟁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다. 그는 현성양지설을 이론적으로 완성했다고 할 수 있다. 황종희는 왕용계가 선천정심지학과 후천성의지학으로 구별한 대목에 착안하여 양지 본체론으로는 현성양지론을, 치양지 공부론으로는 선천정심지학을 용계 사상의 핵심으로 〈명유학안〉에서 정리한다. 이때 선천정심지학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선병삼은 왕용계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그의 공부론 전체에 대한 이해를 도모한다. 다른 논문에서는 용계 공부론 중에서도 일념입미 공부론을 특화하여 자세히 다루었다.

5) 왕부지(4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김진근	왕부지의 이하지변에 담긴 능멸적 변방민족관과 그를 위한 변명	〈동양철학〉 제44집	한국동양철학회
2	박용태	왕부지 사상에 나타난 主器論적 경향과 華夷論	〈동서철학연구〉 제78호	한국동서철학회
3	조우진	張載 易學에 대한 王夫之의 수용과 변용 : 氣器論의 관점에서	〈범한철학〉 제79집	범한철학회
4	안재호	왕부지의 正義觀 試論—"通義"와 經""權" 관계를 중심으로—,	〈철학탐구〉 제37집	중앙대학교 중앙철학연구소

왕부지는 명청대 사상 연구에서 왕양명 다음으로 많이 연구되는 학자임을 15년도 연구에서도 살필 수 있다. 단일 인물에 대한 연구 성과로는 왕양명 다음으로 많은 총 4편으로, 14년도보다 1편이 늘어난 수치다. 이는 왕부지 사상 자체가 그 양과 질 면에서 다양한 연구가 가능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는 점도 고려해 볼 수 있다. ①, ②, ③, ④에서 ①, ②는 화이론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③은 왕부지 역학과 기

학을 장재와의 비교를 통해서 설명하였고, ④는 왕부지의 정의관을 검토하였다. 김진근은 왕부지 화이론을 역사적 방법을 동원하여 분석하였다. 화이사상의 역사적 변천을 추적하며 왕부지 화이론의 내적 맥락을 긍정적으로 분석한다. 박용태는 왕부지의 화이론에 나타나는 능멸적 변방민족관을 그의 철학을 통하여 규명하였다. 조우진은 왕부지 기학과 역학의 중요 개념들을 장재와의 비교를 통하여 그 유사성과 차이점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하였다. 안재호는 현대 한국의 중요한 담론 주제의 하나인 정의를 왕부지의 정의관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6) 공자진과 위원(2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노병렬, 천병돈	청말(淸末) 공자진(恭自珍)의 "변(變)" 사상 연구	〈유학연구〉 제32집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	천병돈	청말 춘추공양학을 통해본 초기 근대의식 – 공자진(공自珍)과 위원(魏源)의 변역(變易)사상을 중심으로 –	〈동양철학연구〉 제83집	동양철학연구회

①, ②는 청말과 민국시기 사회개혁론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춘추공양학파의 위원과 공자진의 사상을 설명하였다. 공양학파는 고정불변의 리 중심적 사고로부터 춘추공양학을 바탕으로 공양학적 변역 중심의 사고로 전환을 도모했다. 공자진과 위원은 만물이 변하는 것처럼 사회, 제도 또한 변해야 하며, 따라서 서양 문물도 배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사회개혁론은 황제 1인 중심의 봉건사회에서 개인 중심의 근대사회로 개혁하자는 것이고, 서양문물의 수용은 서양 문물의 가치에 대한 인정이다. 두 논문은 이 점을 밝히고 있다.

7) 기타(2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이현선	정호의 철학과 明代 유학의 탈주자학적 경향	〈양명학〉 제42호	양명학회
2	선병삼	중국에서의 양명학파 연구 현황 고찰 : 근대이전부터 현대까지	동양고전연구 제58집	동양고전학회

이현선은 정호와 정이 철학의 동이 여부는 오늘날까지 신유학의 사상사적 흐름에 대한 논의에 있어 주요 쟁점 중 하나임을 밝히고, 이정 형제의 학문적 차이를 강조하는 신유학의 사상사적 맥락을 고찰하였다. 특히 탈주자학적 사상 경향이 본격화되는 명대 유학에서 정호 철학을 정이 - 주희와 구별되는 별도의 사상적 체계로 간주하기 시작했음을 구체적인 논거를 들어가며 서술하고 있다. 선병삼은 중국 대륙에서 이루어진 양명학파에 대한 연구 성과들을 시대 순으로 개괄하여 양명학(양명후학) 연구 성과를 종합적으로 서술하였다. 이 논문은 2008년 이후의 중국내 연구 성과를 반영하여, 기존에 발표된 연구를 보완하였다.

3. 주요 논문 분석 및 비평

송명이학이라고 하면 송대 이학과 명대 심학을 지칭하는데, 송명이학이라고 하는 데에서 알 수 있듯이 양명학 또한 이학의 한 갈래다. 그러나 익히 알려진 것처럼 주자학과 양명학(상산학)은 한 치의 양보 없는

혈전을 치렀다. 이는 문호에 사로잡힌 편협한 학술관에서 기인하였다고도 볼 수 있지만, 유학(이학)이 지도 이념인 당시 상황에서 정주학파와 육왕학파의 교판 논의는 피할 수 없었다는 점에도 주목을 해야 한다. 이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기독교계 내에서 펼쳐지는 이단 논쟁을 본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기독교를 믿지 않는 일반인들에게는 똑같은 기독교 교단인데 왜 그렇게 치열한 이단 논쟁을 펼치는지 쉽게 이해가 가지 않지만, 기독교 교계 안에 한 발만 들여놓으면 철저한 이단 논쟁의 숙명을 이해하게 된다.

황갑연은 자신의 논문『양명의 주자철학 비판의 適否에 관한 고찰』(〈범한철학〉 제79집)에서 양명학의 주자학 비판의 적부를 검토한다. 그는 왜 이러한 작업을 한 것일까? 그는 이렇게 말한다. "주륙지변과 명대에 발생한 양명과 주자학자 사이에 전개된 학술논쟁이 바로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리학과 심학 논쟁의 근원이다. 이러한 논쟁은 학술 발전사에서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해왔지만, 그 역작용도 결코 적지 않다. 주륙의 후학들은 상대방 학술의 정면적 가치를 긍정하지 않고 이단으로 규정하고 심지어 정치적 박해도 가하였다. 리학과 심학 논쟁에서 리학이 다수를 차지하였기 때문에 일반적 현상은 리학이 공세를 취하고 심학이 방어적 자세를 취하는 형태였다. 그러나 명대 중말기에 등장 한 왕양명은 오히려 리학에 대하여 공세적 자세를 취하면서 학술의 주도권을 장악하였다. 주자철학에 대한 양명의 비판은 당시 주자철학자들을 경각시키기에 충분하였지만, 그 역시 주자철학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곳에서 주자철학을 무고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바로 '비판의 올바르지 못함'에 초점을 두고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기존의 연구를 통하여 양명학 변호를 이미 충분히

개진해 온 필자이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주자학에게 소명의 기회를 줌으로써 평가의 형평성을 기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네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양명의 주자학 비판이 적합하지 못한 부분을 논한다. 첫째는 성즉리, 둘째는 격물궁리, 셋째는 지행론, 넷째는 「주자만년정론」이다. 이 중에서 주자학과 양명학의 의리 규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마지막 비판 내용은 생략하겠다.

성즉리에 대한 양명 비판의 잘못은 어디에 있는가? "주자철학의 성즉리에 대한 양명의 대표적 오해는 성즉리를 고자의 義外說과 동일한 학설로 치부한다는 것이다." 왜 양명이 주자의 설을 고자의 의외설로 보는 것이 잘못인가? "또 비록 고자의 '의외설'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지만, 주자가 과연 고자처럼 도덕시비선악의 판단과 행위의 정당성 그리고 방향을 완전히 행위의 대 상에 의하여 결정하였는가? 주자는 단지 행위의 주체와 대상 사이에 마땅히 존재해야 할 원리를 탐구하고, 다음 인식한 리와 심 자신의 리를 상호 인증 하여 정감의 활동을 선으로 주재하고자 하였을 뿐이다. 고자에서는 오로지 외적인 표준만 있을 뿐 내적인 주체의 자율성 이념은 부재하다. 그러나 주자철학에서 리에 대한 심의 인식은 심의 자기 희열로부터 이루어진다." "또한 격물궁리를 통한 心具理는 후천적인 攝具(當具)가 아닌 선천적인 本具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리에 대한 심의 자율이 비록 법칙에 대한 의지의 입법적 자율(心卽理)과 다른 형태이지만 또 다른 형태로서의 심의 자율성을 긍정할 수 있다."

사실 황갑연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필자는 주자와 양명의 성즉리와 심즉리를 근거로 한 도덕론 사이에는 우열도 존재하지 않고 이단과 정통의 소지는 더더욱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유가

의 도덕론은 심즉리로도 얼마든지 설명 가능하고, 성즉리로도 설명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본체론과 공부론 그리고 우주론 사이의 정합성 문제이다. 리학과 심학은 단지 도덕론의 설명 방식이 다를 뿐 추구하는 목적과 가치관은 동일하다. 본체에 대한 인식 그리고 內聖外王 추구의 방법론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우열성을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가?" 사실 주자학과 양명학은 도덕주의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그 도덕을 실현하는 방법에서 주자는 노불과는 다른 유학의 보편도덕을 객관적으로 정립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면 양명은 주자가 이룩한 보편도덕의 객관적 토대 위에 인간이 어떻게 도덕주체로서 자신을 완성해 나갈 것인가를 모색한 도덕주체의 건립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볼 수 있다.

주자의 격물궁리에 대한 양명의 잘못된 입장을 황갑연은 3가지로 정리한다. "필자는 주자의 격물궁리에 대한 양명의 오해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해설하겠다. 하나는 格物에서 '格' 자의 의미에 대한 오해이다. 다음은 양명은 주자의 치지 공부를 근본이 없는 공부라고 하는데, 이때 양명이 말한 '근본 이라는 말'의 의미가 지극히 주관적이다. 마지막은 궁리를 사사물물에서 리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서 사물의 존재성과 리의 존재성을 동일시 하는 것이다. 주자와 양명은 모두 대학의 격물치지를 기본 틀로 삼아 자신의 의리를 전개하였지만, 격물과 치지의 의미는 판이하게 다르다."

주자가 격을 이르다고 한 의미에는 사물에 接物한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知至의 의미도 갖고 있는데, 양명은 전자의 의미로 한정하여 주자가 주장한 즉물궁리를 오해하였다고 본다. 또한 근본이 없다는 양명의 비판은 주자학의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다시 말하면

양명처럼 성을 곧바로 심에서 추구하지는 않지만 궁극적인 의미에서는 치지는 심성의 합일이다. 따라서 주자의 치지활동 역시 근본이 있고, 자기 인격성장의 과정임은 분명하다." 마지막으로 양명이 주자의 즉물궁리를 비판하면서, 사물의 존재성과 리의 존재성을 동일시하는 양명학의 입장은 석정 이정직의 입을 빌어 부당함을 고발한다. "효의 도리는 영원이 내 마음에 간직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효의 실천대상인 부모의 존재성과 효리(孝理) 의 존재성은 전혀 별개의 문제인 것이다."

지행합일에 관하여 주자의 지행론은 "비록 知輕行重과 知行竝進도 긍정하였지만, 의리의 기본 골격은 先知後行이다."라고 규정하면서 이러한 논리의 적법함을 이렇게 말한다. "필자는 치양지가 실현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와 '행'이 합일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연히 동의한다. 그러나 '지'와 '행'이 합일되지 않은 이유를 심과 리를 둘로 나누는 주자학의 의리에서 찾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 앞에서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지'와 '행'이 합일되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는 선에 대한 인식이 실천을 강하게 수반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비록 주자철학에서 앎의 결과인 지지와 성의가 이질적인 결합이라고 할 수 있지만 성리에 대한 앎은 곧 성리가 심 자신의 덕임을 인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일자의 연속적인 유행은 아닐지라도 그 결합이 억지스럽지는 않다."

주자학과 양명학의 의리 분별은 이학과 심학의 이름으로 진행된 장구한 논쟁사를 이루었다면, 현대에 와서는 양명학의 기학적 요소에 주목하는 흐름이 있다. 양명학의 기학적 요소가 현대 연구자들 사이에서 주목받은 이유에 대해서는 뒤에서 김연재의 『王艮의 安身立本說과 그

도덕형이상학적 강령 : 安身과 至善의 통일을 중심으로』(〈양명학〉 제40호)의 논문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맥락을 제시할 것이다.

여기서는 소위 주관 유심론으로 평가받던 양명학과 장재의 기학은 공통분모를 가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기로 하자. 이에 대하여 김혜수는 『왕양명 양지설의 장횡거 기론적 해석 : 장횡거 기론의 양명학적 전개와 변용』(〈양명학〉 제41호)에서 연속성이 있다는 입장을 개진한다. "본 연구는 장횡거와 기론과 왕양명 양지설의 구조적 유사성을 기초로 장횡거 기론에 대한 양명학적 변용을 해명하는데 있다. 여기서 필자는 송명유학의 본질이 도덕형이상학의 구축에 있으며 이런 관점에서 왕양명의 양지설은 장횡거 기론을 토대로 발전된 이론이라고 파악했다"라고 한다. 이제부터 그의 논의를 들어보자.

김혜수는 장재와 왕양명의 연속성을 우선 공히 도덕형이상학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찾는다. "장횡거의 기론은 객관적 현상세계를 구성하는 기학을 바탕으로 인간의 본성을 설명하고 그 도덕적 의미를 제시하려는 시도이고, 왕양명의 양지설은 도덕실천주체로서 인간의 도덕본심에 초점을 두고 양지의 이론을 전개하면서 동시에 양지로써 만물일체를 이루는 도덕이론을 구축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장횡거와 왕양명의 학문체계는 그 방법론적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하지만 송명유학의 본질과 도덕형이상학의 구축이라는 시각에서 보면…… 장횡거와 왕양명이 바라보는 송명유학의 본질은 서로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은 송명이학에 대한 기본 이해가 되어 있지 않는 독자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설명일 수 있다. 그러나 전공자들에게는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동어반복으로 읽힌다. 만약 도덕형이상학의 구축이라고 한다면 왜 하필 장횡거만이 되어야 하는가, 양명이 비판한 정이천이

나 주자야말로 도덕형이상학을 구축하는데 결정적 기여를 한 사람들이 아닌가.

이 문제는 건너뛰자. 이것만으로는 충분한 논거가 될 수 없음은 자명하다. 그렇다면 김혜수의 주장은 무엇으로 뒷받침 될 수 있는가? "필자는 왕양명이 양지설을 확립할 때 장횡거의 태허와 기 그리고 체용관계의 이론구조를 수용하여 전개했다는 점에서 왕양명의 양지설을 장횡거 기론의 양명학적 변용으로 이해하였다. 따라서 왕양명이 자신의 독창적인 양지설을 확립하는 데 장횡거의 기론은 왕양명에게 적지 않은 사상적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대목을 중심으로 김현수의 논의를 따라가 보도록 하겠다.

김혜수는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면서 "장횡거의 기론에 대한 사상적 전개는 크게 두 방향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하나는 주자 이기론으로의 전개이며, 다른 하나는 왕양명 양지설로의 전개이다."라고 하고 있다. 만약 이 주장이 타당하다면 기존의 철학사 서술에서 양명학 관련 내용은 새롭게 고쳐야 할 정도로 파급력이 있는 놀라운 탁견일 것이다. 한편 여기서 김혜수의 방법론은 양명의 양지론과 장횡거 기론의 비교를 통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는 양명이 양지를 태허로 설명한 부분을 강력한 논거로 제시한다. "이러한 양지는 장횡거가 제시한 태화로서 총체적인 기의 의미에 상응한다." "즉 조화의 정령인 양지를 태화라고 할 수 있다. 조화의 정령으로서 양지가 장횡거의 태화와 다른 점은 단지 내 마음의 양지를 떠나서는 우주자연의 질서와 만물의 창조가 불가능하다는 것에 있다." 그렇지만 김혜수는 이러한 불일치를 도리어 발전이라고 설명한다. "비록 우주자연의 질서와 천지만물을 창조하는 천도유행이 내 마음의

양지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은 장횡거가 객관적인 천도유행의 총체로 태화를 설명한 점과 그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그 이론의 논리적 구조는 장횡거의 태화와 일치한다. 또한 왕양명이 천도실체를 내 마음으로 끌어와 자발적인 인간의 도덕주체성을 강조했다는 점은 일종의 장횡거 태화의 양명학적 변모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양명 사상 내에서 태허의 논거가 부족함을 직시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변명한다. "비록 왕양명이 양지와 태허를 연결시켜 설명한 것은 내용적으로 부족하지만, 이것은 그가 장횡거의 태허에 대한 논리적 구조로부터 양지의 본질적 의미를 설명하기에는 충분하고 할 수 있다." 김혜수는 이렇게 주장하지만 여전히 그의 글은 독자가 수긍할 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김혜수는 장재의 기일원론적 구조와 양명의 '리는 기의 조리이고, 기는 리의 운용'이라는 구절을 비교하면서 그 유사성을 논한다. 분명 양명은 아니 명대 이학자들에게 주자가 확립한 무조작, 무정의, 무계탁 한 리의 개념은 요청되지 않는다. 경험 세계의 제약을 받지 않는 형이상학적 절대 보편인 실체로서의 리는 그들에게는 사고의 중심이 되지 않는다. 명대 유자들이 보기에 무조작, 무정의, 무계탁한 리는 현실과 유리된 형식적, 허구적 리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양명의 심성론을 비판한 나정암도 이기일물설을 주장하였다. 양명이 말한 조리로서의 리는 분명 주자가 기획한 실체로서의 리와는 다르다. 그 역시 다른 명대의 유자들처럼 활동성의 기반이 되는 경험세계를 벗어난 소위 실체로서의 리를 부정하였다.

활동하는 리라고 할 때 이는 틀림없이 기의 매개를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지점에서 최소한 장재의 기론과 연결 지을 수 있다. 그런데

양명의 양지론이 장재의 기론에서 연유되었다고 주장하려면, 이 이상의 논거를 제시해야 한다. 무슨 말인가 하면, 양명은 마음의 본체인 양지의 활동성을 옹호하는 토대에서 기의 조리로서의 리를 설파하기 때문이다. 이는 맹자의 심성론에 기반을 두는 것이지 결코 장재에게서 그 사유의 토대를 가져온 것이 아니다.

양명학에 대한 철학적 접근은 이쯤 해 두고 이제는 교육철학적 논의들을 검토해보자. 주자학도 송명이학이고 양명학도 송명이라고 할 때 이학의 공통분모는 성인지학을 추구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성인지학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에 따라 그들 나름의 교육철학이 만들어진다. 주자의 철학이 아무리 엄정하고 객관적이라고 할지라도 합당한 성인지학이 아니라고 한다든지, 양명의 철학이 아무리 간이하고 매력적이라고 할지라도 타당한 성인지학이 아니라면 신유학(이학)으로 용납될 수 없다.

이우진의 『신유학의 아동교육(1) : 주자와 왕양명을 중심으로』는 주자와 양명의 아동교육론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위한 예비단계적 성격의 논문인데, 그는 여기서 주자와 왕양명의 일반적 교육관을 다룬다. 교육적 입장에서 그들은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인다고 한다.

공통점은 무엇인가? "그들은 동일하게 인간 본연의 완전성을 믿고 이를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복초(復 初)의 교육관 '을 지니고 있었다. 이는 근대 교육이 기반하고 있는 서구의 양대 모형인 주형모형과 성장모형과는 근원적으로 성격을 달리하는 교육철학이었다. 서구의 양대 모형은 교육을 '결핍되고 미성숙한 존재에게 지성 · 덕성 등을 확충 · 보완하여 더 나은 존재로 발전 · 성장시키는 일'로 파악한다. 반면, 주자와 왕양명은 성선 (性善)의 이념을 바탕으로 교육론을 전개

한다. 그러나 그들의 성선설은 맹자의 성선설과는 다른 것이었다. 이는 '인간 본성이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순수한 상태 '임을 말해주는 신유학에 의해 새롭게 구축된 성선설이다. 곧 신유학에서 인간의 본래적 모습은 '완전자 즉 성인 (聖人)'으로서 자리한다. 그러므로 교육은 '불완전한 존재를 성장 · 성숙 · 발달시키는 활동 '이 아니라, 그 '본래의 완전성을 회복 · 복원하는 활동 '으로 자리한다. 근대 교육과 신유학의 교육을 거칠게 비교하자면, '근대교육은 결핍된 학습자에게 어떠한 교 육내용을 더하여 완성을 추구하는 증가론적[+] 교육'이라면, '신유학의 교육은 본래 완성되어 있던 학습자를 가리고 있던 장애요소들을 제거하여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감소론적[−] 교육'이라 할 수 있다." 이 입장을 수용한다면, 주자와 왕양명의 성즉리와 심즉리의 차이는 철학적, 개념적 분석에 있어서는 상당한 거리를 보이지만 실상 현실적 교육론의 지평에서 보자면 차이보다는 공통점을 갖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주자학과 양명학을 비교하는데 상당히 유의미한 관점을 제시한다.

그렇다면 주자와 양명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가? 이우진의 말을 계속 들어보자. "그들은 먼저 '성인(聖人)'에 대해 다른 입장을 지녔다. 주자의 경우, 성인은 덕행, 총명, 사업, 재능 등 이 네 가지 모두에 빼어난 사람으로, 지식과 도덕 등 모든 방면에서 완벽을 이룩한 인물이었다. 반면 왕양명은 성인을 철저히 도덕적인 존재로서 규정한다. 그는 최상의 도덕적 경지에 이른 자라면, 지식, 역량, 재능에 관계없이 이미 성인이라고 언급한다. 이러한 차이는, 왕양명이 '인간의 본원적 동일성 '에 집중하였다면, 주자는 '인간의 현실적 차별성 '에 주목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한 차이는 그들이 성인뿐만 아니라 견자와 광자에 대해서도

다른 평가를 내리도록 하였다. 왕양명은 광자인 증점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다. 하지만 주자는 증점이 공부의 치밀성과 단계성을 무시하였다는 점에서 노장과 유사하다고 비판한다. 특히 그는 '착실히 공부를 해나가는 견자가 뜻만 고상한 광자보다 더 바람직한 인간이므로, 광자보다는 견자와 같은 사람을 본받으라고 주장한다." 이우진은 주자와 양명의 성인관의 차이에 주목하여 논의를 전개하면서 그런 모습들을 광자와 견자에 대한 평가의 차이를 거론하고 있다.

우리가 송명이학을 본체론(우주론), 심성론, 공부론(수양론)이라는 구도를 가지고 설명할 적에, 학문적 체계에서 보자면 본체론이 근본이 되지만 학문의 목표에서 보자면 공부론이 문제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송명이학의 정치한 이론적 탐구에 집중하다 보면 도리어 그 틀에 갇혀, 그 이론들이 탄생하고 지향하는 실제적인 공부의 맥락을 놓쳐버리고 미궁에 갇히게 된다. 이런 점에서 교육철학적 시각을 통해서 주자학과 양명학의 이론을 접근하는 본 논문의 시도는 전통철학을 현대적으로 독해한다는 점에서뿐만 아니라 전통철학의 내면을 들여다본다는 점에서도 매우 유의미한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김준승은 『왕양명 아동교육관의 지행합일 - 루돌프 슈타이너의 발도르프교육과 비교해서』라는 논문에서 왕양명 아동교육관의 특징을 서구의 발도로프교육과 비교하면서 그 특징을 추적한다. 그는 왕양명의 아동교육관과 발도로프교육론이 유사성을 3가지로 정리하는데, 그 중에서 다음 두 가지는 양명 사상에 대한 여실한 이해를 돕는다.

첫째, "왕양명과 슈타이너는 교육의 목적을 지식의 축적이 아닌 지식의 활용이 가능한 인간의 상태의 변화에 두고 있다. 결과지향이 아닌 상태지향인 것이다. 그것은 지금을 희생하고 미래를 위한 준비로서

의 교육이 아닌 지금 이 순간부터가 앎을 실현하는 상태를 지향하는 것으로, 다시 말해 지금은 아무렇게나 살고 나중에 잘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아는 모든 것이 내 삶에 반영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왕양명의 주자 즉물궁리 비판이 겨냥하는 지점이 어딘지를 분명하게 알려준다. 바로 "지식의 축적이 아닌 지식의 활용이 가능한 인간의 상태의 변화에 두고 있다."라는 평가는 철학적인 개념 분석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양명학의 본질적 의의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둘째, "아동에게 배움을 주는 방법은 어른들이 주고 싶은 방식이 아닌 아동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을 요구한다. 아무리 좋은 지식이라도 아이들이 쉽게 소화하여 자신의 진정한 앎으로 체화시키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는 것이다. 교육의 방법에 대해 왕양명과 슈타이너와 공통점은 아이들을 교육하는 방법은 어른들의 그것과는 차별되어야 함을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철저하게 교육을 받는 학생의 입장에서 준비가 되고 이루어져야 함을 나타내고 있다. 아이들은 수업에 참석하는 것만으로 즐거움을 느끼고 아름다움을 체험함으로 내면에 상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진정한 수업의 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이는 양명이 애초에 심즉리를 주장하면서, 심외무리, 심외무사를 주장했을 때, 그 주장이 개별 주체에 대한 무한 긍정을 바탕으로 주체의 자각(각성)을 지향하고 있었음을 깨닫게 해준다.

양명후학에 대한 연구 성과는 14년도에 비해 증가하였다. 특히 15년도는 태주학파에 관한 논문이 많이 늘었다. 황종희는 태주학파를 양명학의 정통으로 간주하지 않았지만 현대의 선구적인 연구자들 가령 시마다 겐지와 같은 이들은 양명학의 정신을 태주학파에서 찾고자

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반대의 입장도 분명히 존재하는 데 가령 오카다 다케히코의 경우는 시마다 겐지와 달리 양명좌파를 배척하였다.

김연재의 『王艮의 安身立本說과 그 도덕형이상학적 강령 - 安身과 至善의 통일을 중심으로』는 세련된 글쓰기가 돋보이는 글이다. 이 글은 태주학파의 창시자 격인 왕간의 사상을 안신과 입본이라는 두 요소로 정식화하고 이 안신입본이 지향하는 도덕형이상학적 특징을 포착하고자 한다.

김연재는 이렇게 말한다. "그의 이론적 사유는 생명의식과 수양의 경지가 통합되는 安身과 至善의 통일로 귀결된다. 안신이 우주의 생명정신이 인간의 생명의 가치로 전환된 기반이라면, 지선은 생명의 가치가 도덕적으로 내면세계로 구현된 결과이다. 인간의 공부는 안신의 자각의식에 따르며 그 합당한 발현은 지선의 궁극적 상태가 된다. 이는 안신과 지선을 연속선상에서 이해함으로써 인간의 존재론적 의의와 그 도덕형이상학적 정당성과 필연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인간의 존재론적 의의와 그 도덕형이상학적 정당성과 필연성을 확보"한다는 말이 의도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왕간의 安身立本說은 인간의 욕망 혹은 육체의 욕구를 기존의 주자학처럼 극복과 절제의 대상으로 본 것이 아니라 수용과 포용의 대상으로 본 것이다. 주자학이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설정하는 데에 사회의 도덕적 기준에 맞추어 개인의 가치와 의의를 모색하려 했다면, 왕간은 개인의 가치와 의의를 사회의 도덕적 기준과 동일선상에서 이해하려는 것이다."라는 말이다.

왕간을 위시한 태주학파의 도덕형이상학의 강령은 주자의 도덕형이상학과 다른데, 그 다름은 인간의 욕망 혹은 육체의 욕구를 기존의 주자학처럼 극복과 절제의 대상으로 본 것이 아니라 수용과 포용의 대

상으로 본 것이라는 점이다. 이 관점이 근대적 기획으로서 양명후학을 검토했던 시마다 겐지의 입장이다. 물론 이때 인간의 욕망은 멈추지 않는 폭주기관차가 되어 아무런 제제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김연재는 '안신과 지선의 통합적 경지'라는 장을 두어 수용과 포용의 대상으로서 승화된 욕망을 분명히 한다.

지금부터 그 시마다 겐지의 입장에 입각한 양명후학 이해의 단면을 살펴볼 차례다. 이는 앞서 김혜수가 기론과 양명학의 유사성을 논한 작업의 원천적 토대이기도 하다.

김연재는 양명학(양명후학)을 이렇게 정리한다. "육왕학은 개인의 자유와 사회의 공공성 사이에 경직된 관계를 야기시킨 정주학을 비판하고 전자의 영역을 위한 여지를 확보하고자 했다. 특히 양명학은 마음과 그 수양의 문제에서 천리와 사욕의 상관성을 규정했다. 그들은 氣論的 전통을 이어받아 양지의 개체적 성격에서 마음의 보편성을 모색했다. 양명학파 중에서 특히 개체성의 개념에 주체적 위상을 극단적으로 추구했던 학파가 바로 陽明左派로 평가되는 이른바 泰州學派였다 왕기, 왕간, 하심은, 이지 등은 마음의 영역에서 사욕이 지닌 의미와 의의를 중시했다. 그들은 사욕의 부정적 측면을 긍정적 측면으로 바꾸고 이를 마음의 본체 속에 담아내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정주학의 경우처럼 인간에게서 욕망을 제거하려는 것이 아니라 욕망의 발현을 통해 사회질서의 공공성을 확충하려는 보다 진보적 태도를 취했다. 이 때문에 그들은 개인의 욕구 혹은 욕망을 긍정함으로써 공적 영역을 고수하려는 정주학의 위선과 가식을 비판할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인욕, 즉 개인적 욕구가 사회적 공공성을 위해 제거되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그것을 천리의 정당성, 즉 도덕적 합리성을 부여받은 개

인의 주체성으로 이해한 것이라고 평가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바로 '기론적 전통', '욕망 긍정', '왕기', '개인의 주체성'이다.

먼저 '기론적 전통'이라는 말은 다음에 나오는 '양지의 개체적 성격에서 마음의 보편성을 모색했다'는 구절을 통해서 왜 기론이 등장했는지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리고 김혜수는 그 기론을 장재까지 발전시킨 것이다. 그러나 양지의 개체적 성격이란 양명이 성즉리가 아닌 심즉리를 주장하면서 이미 전제된 것이다. 그것은 기론을 토대로 하지 않는다. 성과 다른 심을 들고 나왔을 때 거기에는 개체, 욕망, 기론의 요소가 반영되는 것이다. 기론은 심즉리의 결과이지 심즉리의 전제가 아니다.

'욕망 긍정'이라는 말은 최소한 양명에게 말하자면 '개인의 주체성' 긍정이라는 말의 다른 말이 아니다. 양명이 현실적으로 활동하는 그 심을 리라고 했을 때 현실적 인간의 본 모습을 간직한 정감과 욕구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주체의 본래 모습이다. 다만 이 현실적 인간은 마음의 본체인 그 양지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보자면 '욕망 긍정'이라는 용어는 신중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왕기'를 태주학파로 보는 것은 왕기가 현성양지설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의 현성양지설을 '욕망 긍정'이라는 측면과 연결하면,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는 다르다. 사실 왕기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전파한 측면은 일차적으로는 왕기의 학설이 논쟁적인 요소가 다분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황종희의 『명유학안』도 그 영향이 크다.

선병삼은 왕기 공부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작성한 「왕용계 공부론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無工夫中 眞工夫'」(『동양철

학연구』 82집)라는 논문에서 이렇게 용계학의 특징을 논한다. "이 全體放下의 공부가 치양지 공부론에서 차지하는 깊은 의미는 단순히 세속적 욕심을 버리라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층 더 깊은 공부를 요구함에 있는데, 바로 일상에서 자신의 도덕적 판단이나 혹은 합리라는 이름의 관습이나 전통에 의한 판단과 양지의 판단이 상충될 때 양지를 믿고 개인의 모든 판단을 내려놓으라고 요구한다. 다시 말하면 왕양명이 주자학을 비판하면서 제기한 즉물궁리의 대상으로서의 외부의 도덕적, 일상적 지식을 포함하여 양지의 소리에 따르지 않는 일체의 도덕적, 일상적 의식을 내려놓으라는 것으로 곧 자아에서 출발한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만 비로소 내면에서 울려대는 양지의 북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밝힌다. 이 점은 '意欲'과 양지를 대비하는 과정에서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 선병삼의 분석에 근거하자면, 왕기 현성양지론은 인간이 욕망 긍정을 정조준하는 것이 아니라 양지의 자연유행을 보장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한다. 따라서 만약 그의 논리를 따르자면 왕기를 욕망 긍정의 주장을 했다는 태주학파로 묶기에는 그 공통분모를 엄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

시마다 겐지의 양명학(양명후학) 이해는 양명학의 시대정신을 선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정확하다. 사실 양명학이 유행한 데에는 바로 그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선도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지만 양명학이 이학이라는 큰 범주 안에 들어있다고 할 때 양명학은 여전히 도덕지상주의이다. 이 도덕이 송대의 도덕적 의미와는 다른 어떤 성격을 띤다고 할 수 있지만 도덕주의라는 그 점에서 그리고 성학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양명학자들 또한 기본적으로 存天理去人欲을 공부의 기본 정리로 삼았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존천리거인욕의 기반 위에

서 개성 존중이요, 욕망 긍정이라는 구조로 양명학을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왕부지에 대한 논문을 검토하고자 한다. 15년도에는 왕부지의 화이관을 다룬 논문이 2편이 보인다. 김진근의 「왕부지의 이하지변에 담긴 능멸적 변방민족관과 그를 위한 변명」(『동양철학』 44집)과 김용태의 「왕부지 사상에 나타난 主器論적 경향과 華夷論」(『동서철학연구』 78호)이다. 김진근의 논문은 왕부지 화이론에 대한 전반적 검토라고 한다면 김용태의 논문은 왕부지 화이론을 그의 철학관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

익히 알려진 것처럼 왕부지의 화이론은 상당히 도전적이다. 중국인이 아닌 타 민족인 경우에는 수긍하기 어렵다. 바로 "이적들이란 그들을 섬멸한다고 하더라도 어질지 않다고 할 수 없고, 그들에게서 약탈하더라도 의롭지 않다고 할 수 없으며, 그들을 꾐에 빠트린다고 하더라도 신뢰가 없다고 하지 못한다. 신뢰니 의리니 하는 덕목들은 사람과 사람끼리 어울리며 지키는 것이지, 결코 사람이 아닌 것들에게까지 베푸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다.

김진근은 왕부지의 이러한 화이관을 두 가지 관점에서 변론한다. "첫째는 그의 능멸적 변방민족관이 조건적, 유보적이라는 점이다. 즉 화하족이 변방민족의 강토에 침략해 들어가서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변방민족들이 중원을 침범해 들어와 유린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렇게 해도 된다는 것이다." "둘째는 그가 변방민족 중의 하나인 만주족의 지배 하에서 남은 평생을 孤憤 속에 살며,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나날을 살았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明朝 遺臣으로서의 의로움을 실현할 수 없다는 자괴감과 좌절이 자리 잡고 있었다." 김진근은 이 조건적,

유보적이라는 왕부지 화이론의 기본 전제와 고분의 삶을 살아 온 왕부지의 삶을 고려한다면, 왕부지의 능멸적 변방민족관이 반영된 화이론을 일정 정도는 수긍할 수 있다고 한다. 만약 이를 용납할 수 없다면 윤봉길의사, 안중근의사, 백범선생의 의거 또한 용납되기 어려워진다고 한다. 사실 이 글은 본 내용 보다도 서론과 결론에 밝힌 저자의 문제의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용태는 왕부지의 소위 능멸적 화이론의 탄생을 이렇게 설명한다. "中華와 夷狄의 차이를 분명히 하는 왕부지의 華夷論은 분명 그의 기철학에 그 근원적 뿌리를 가지고 있다. 왕부지는 인간이 불선한 이유를 氣가 아니라 質에서 찾고 있다. 質은 형질이라는 측면에서 물질적으로 외화된 상태로서 기와 달리 이미 고정화되고 규정화된 상태로 기에 비하여 구체화된 사물의 질료적 성격을 가리킨다. 또한 이 質은 氣를 담는 그릇으로서 '器'의 의미를 가진다. 왕부지의 관점에 따르면, 각각 개별 사물의 기질지성이 곧 형이상의 도이며, 기질지성 이외의 보편적 본연지성은 단지 추상적인 이념일 뿐, 현실세계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된다. 이와 같은 그의 器 · 氣의 분리적 시각은 중화와 오랑캐, 즉 夷와 夏를 본질적으로 구분하고 차별할 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로 이해될 수 있다. 곧 中華人과 오랑캐가 각각 기질이 다르다면, 그 기질에 따른 형이상의 도 또한 다를 수 없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 둘을 서로 아우를 수 있는, 기질지성 이전의 세계 보편의 본연지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중화와 오랑캐는 상호 통일될 수 없는 평행적 관계 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왕부지의 리기론이 주희와 달리 실재론적 관점에서 기일원론적 성격을 보이고 있음에도 차별원리의 절대화라는 보수적 시각을 보이는 이유가 된다." 왕부지 기철학에 대한 김용태의 분석이

타당한 가의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왕부지의 기철학을 통하여 설명하려는 시도는 충분히 철학적이라는 점에서 유의미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4. 평가와 전망

총 23편의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인물로는 14년도와 마찬가지로 왕양명과 왕부지에 대한 연구 논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두 사람에 관한 논문은 13편(왕양명 9편, 왕부지 4편)으로 전체의 50%를 넘는다. 이는 한국학계에서 명청대 유학사 연구 중 가장 주목 받는 인물이 누구인지를 잘 보여준다.

15년도는 교육론이 입장에서 양명 사상을 분석한 논문이 4편이다. 9편의 왕양명 관련 논문 중에서 4편은 거의 50%에 육박하는 편수다. 이러 현상은 양명학에 대한 연구가 심화되고 연구자 층이 두터워지면서 연구 주제가 다변화하는 추세로 보인다. 한국 학계에서 양명학 연구는 90년대부터 본격화되었다고 하는데, 20여 년의 기간을 지나면서 괄목할 성장을 보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15년도는 양명후학에 관한 연구 논문이 전년도와 대비하여 증가하였다. 이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전공자들이 15년도에 자신들의 연구 성과를 많이 발표한 데에 기인하는데, 본 연구 성과는 해당 분야의 전공자들이 오랜 기간을 두고 축척한 연구 성과라는 점에서 상당히 고무적이다.

그러나 명청대를 기준으로 선별한 21편의 논문은 많은 편수도 아니거니와 그나마도 명대 양명학(심학)과 청대 기철학을 대표하는 몇몇 인물들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는 현재 한국 동양철학계에서 다루고 있는 인물군이 여전히 다양화 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를 통하여 연구의 영역이 넓지 않다는 것을 알 수도 있거니와 연구자층이 많지 않다는 것도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다.

총 21편의 논문들 중에는 탁월한 문제의식이 돋보이기는 하지만 그 문제의식을 충분히 수긍하게 만드는 객관적 논지 전개가 아쉬운 논문도 있고, 몇몇 논문은 분명한 논지 전개와 유려한 필치가 돋보이기는 하지만 정작 기존의 연구 태도를 벗어나지 못한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제4장

근대 중국 유학 연구

김현우

1. 머리말

본 장에서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술정보서비스(RISS)[1]를 중심으로 2015년 한국 연구자들의 중국 근현대 유교 연구 현황을 정리 · 평가하였다. 본 장의 연구 대상은 주로 1840년 아편전쟁부터 현재사이에 출현한 인물이나 학설에 대한 연구이다. 특히 올해는 중국의 일명 '유학열(儒學熱)'[2]과 관련한 연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중국에서는 장쩌민[江澤民] 전 주석 등 국가 지도자들이 공자학원 설립을 주도한 이후, 정부차원에서 유교적 가치를 복흥(復興)[3]하는 작업이 지속되어왔다. 특히 현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유교적 가치를 통해 내적으로는 중국 국인의 화합과 단결 및 시민도덕의 함양을, 외적으로는 문화 중심국으로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유교 연구도 이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장쩌민 이후 2014년까지 중국의 유교 관련 연구는 대부분 중국의 현대적 발전을 중국식 사회주의 발전 모델을 정립하는 과정에 유교가 역할을 하고 있다. 즉 이전의 유교 연구가 경제 발전을 중심으로 한 중국의 현대적 성장에 대한 철학적 해석이었다면 최근에는 해석보다는 21세기 중국식 패러다임, 더 나가서는 팬차이나의 가치로서 재조명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중국은 1978년 덩사오핑의 개혁개방정책이후 지속

1 www.riss.kr
2 한국에서는 유학과 유교를 대동소이한 의미로써 거의 동시에 사용하고 있지만, 중국에서는 유교라는 명칭에는 종교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여 유학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에 본 장에서도 최근 중국의 유교적 가치에 대한 복흥을 '儒學熱'이라고 사용하였다.
3 이 보고서에서 사용한 '복흥(復興)'은 논자가 중국의 유학열을 가치 평가한 용어로 "복구와 부흥"을 뜻한다.

적으로 문화혁명의 그림자를 지워왔다. 특히 개혁개방정책의 성과가 하나 둘씩 드러나던 1980년대에는 일명 문화열文化熱이 발생하여 '중화'의 회복이 싹트기 시작하였고, 2000년대에 들면서 장쩌민 등 국가 지도자를 중심으로 공자와 유교 연구에 국가적 지원이 시작되었다.

특히 현 시진핑 시대를 맞아 최근 몇 년간 중국 정부 주도의 유학열은 국가 사회는 물론 문화면에서도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그 중에서 최근 인상 깊은 것은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들이다. 중국의 관공서 및 공항 등 대중밀집시설에는 대부분 전용 모니터에 다음과 같은 단어들이 나오고 있다.

富强 民主 文明 和諧 自由 平等 公正 法治 愛國 敬業 誠信 友善

귀양공항(2016. 09. 25)

이 가치들은 다분히 중국의 유교열 즉 유교 복흥과 맞물려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일정한 문제점도 있는데, 이러한 연구들이 대부분 정부 주도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학문을 정부가 주도할 경우 학적 탄력성이 급격히 위축되고, 오히려 관제적 성격의 연구만이 강조되는 등 경직성이 강화될 우려가 있다. 이미 『사고전서』처럼 우리는 중국의 역대 왕조의 정부가 자신의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해 유교 경전의 정본화를 수행했다는 점을 기억하고 있다. 『사고전서』가 경우 위대한 집대성이라는 긍정의 평가와 동시에 '문옥(文獄)'이라 비판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것이 학술 연구의

범위를 한정하여 연구자의 자율성을 억압하기 때문이다.

현재 유교와 관련한 중국 학계의 경직성은 예상대로 심각한 것이라 보여 진다.일례로 금년(2016)도 5월 19일부터 20일까지 성균관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유교학회 창립30주년기념 국제학술대회에서 종합토론 중에 나온 한 중국연구자의 장장 20여 분에 걸친 장황한 유교 예찬론(?)은 바로 중국 정부 주도의 유교 복흥이 중국 학계를 얼마나 제한하는지 확인하게 해 주는 에피소드였다. 그 분이 젊었을 시절에는 분명 유교는 "공자라는 시체를 무덤에서 다시 꺼내 깃발에 매달아 휘젓는 적대적 제국주의의 사생아"였기 때문이다.[4]

한편, 이러한 중국의 유학열에 맞물려 한국의 유교 연구도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였다. 그중 한국에서는 양계초梁啓超와 관련한 연구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중국에서는 몇 년 전부터 유교와 현 사회주의 중국을 연결시키는 매개 고리로 양계초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양계초는 이미 잘 알려진 대로 1902년을 중심으로 루소식 공화주의에서 브룬츠리(Johann Caspar (또는 Kaspar) Bluntschli, 1808 – 1881)식 전제정으로 다시 1917년을 중심으로 독일식 전제정에서 전통 중화 유교주의로의 변화를 택했다. 특히 1920년에 발표한 『선진정치사상사』에서는 당시 새로운 국가체제로 등장한 사회주의를 유교와 연결시키면

4 不同時代的建地主階級或資産階級都喜歡打着"尊孔"的旗号, 抬出孔子的幽灵作爲向 人民進行欺騙說教的一種手段. 在民族矛盾銳的時期, 他们强調孔子的王攘夷, 保 卫傳統文化的方面. 当征服或新王朝的開倉取得政權時, 他们就强調孔子學說中定 于一, 君臣大義不可违抗这一方面. 当中央政權削約˙ 地方割據勢力抬头時期, 中央政 治就利用孔子的"禮征伐自天子出"的反僭越的思想, 如此等等. 至于孔子學說中 占主地位的唯心主義世界觀, 相信天命鬼神, 宣揚忠孝仁愛, 反犯上作乱, 嚴格等級 制度等等, 則是一剝削階級取得政權後共同要的理論武器. 由于这些原因, 漢以後 中國歷史上虽然屢经改朝換代, 孔子的"聖人"的地位却从未發生動搖. (중략) 但是必指出, 剝削階級被推翻, 代表它的思想是不自動出歷史舞臺的. 劉奇, 林 彪还在千方百計宣揚他们的孔孟之道, 圖抬出孔子这个僵尸, 爲地主資産階級的复辟制造輿論. 对于孔子及其思想學說在中國歷史上所産生的反動影响, 必充分估計并給 予徹底的批判和清算. 任继愈 主編,『中国哲学史简编』, 人民出版社(中國 北京), 1974. 74 – 75면 참조.

서 향후 중국에서 사회주의와 유교의 합일을 모색하기도 했다. 이 같은 그의 변화는 현재 새롭게 각광받고 있으며, 이는 변절자로 비판받아 온 과거의 평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추세로 인해 전년도 한국에서도 양계초의 연구가 이전 2014년보다 배 이상 나왔고, 내용에서도 중국적 관점을 배경으로 하거나 접목하여 재조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에 본론에서는 바로 한국의 양계초 연구의 성과를 중심으로 현재 중국 근대 유교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 볼 것이다.

2. 인물별 분류

전년도 연구의 주요 인물로는 양계초이다. 다음은 2015년 발표된 양계초 연구 논문들이다.

분야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사학	김창규	「梁啓超(양계초)의 "중국적" 근대 기획」	『중국사연구』 97	중국사학회
철학	양일모	「20세기 초 중국의 근대국가 구상과 러시아 1차 혁명」	『인문논총』 72-1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정치	이영란	「상주 공양학(常州 公羊學)과 변법 공양학(變法公羊學)의 치세론(治世論)」	『인문사회21』 6-2	아시아 문화학술원
문학	이종민	「양계초(梁啓超)의 중국몽(中國夢)과 『신중국미래기(新中國未來記)』」	『中國學報』 71	한국중국학회
철학	이혜경	「양계초와 "혁명" 개념의 전변 - 『청의보』, 『신민총보』 시기를 전후하여」	『인문논총』 72-2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철학	임부연	「중국의 "종교"와 "유교" 논쟁- 캉유웨이康有爲(강유위)와 량치차오梁啓超(양계초)를 중심으로」	『퇴계학보』 137	퇴계학연구원

분야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사학	정지호	「梁啓超의 '帝國'論과 '大淸帝國'의 國體」	『동양사학연구』 132	동양사학회
사학	최형욱	「량치차오의 「日本倂呑朝鮮記」 연구」	『중국문화연구』 28	중국문화 연구학회

양계초의 연구는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미 위에서 언급한 대로, 이는 중국 정부 주도의 유학열과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현상의 가장 큰 이유는 근대사회에서 중화주의를 모색하고 나아가 사회주의를 유교로 해석하려는 양계초의 시도가 현대 중국 더 나아서 중국 정부의 의향과 부합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잠시 전후 양계초 관련 연구 동향을 보면, 초기에 양계초에 관심을 가진 연구는 주로 미국에서 시작되었다. 대표적인 초기 연구자는 1950 - 60년대 레벤슨(Joseph R. Levenson), 코헨(Paul A. Cohen) 등으로 이들은 미국을 포함한 당시 서구 사회의 모순을 극복할 목적으로 중국학을 연구하였다. 즉 당시 유교 관련 연구들은 서구 근대성에 대한 강한 회의와 대안 마련이라는 포스트모더니즘(post - modernism)의 영향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초기 연구는 결과적으로 '중국은 내부적으로 근대화를 이룰 수 없다.'는 막스 베버(Max Weber)의 결론에 다시 이르게 된다.

하지만 1970년대 중국계 미국학자들을 중심으로 중국 유교의 가능성을 모색하게 되었다. 동시에 일본의 경제성장과 관련해서 서구에서는 유교와 근대화에 대해 관심을 가졌고, 이후 경제학자인 모리시마 미치오[森島通夫]에 의해 "유교자본주의"라는 말이 처음 사용되었다. 또한 1980년대에 이르면 한국의 김일곤에 의해 유교자본주의는 체계적인 이론으로 형성되어 있다.

이 같은 근대담론 변화에 제일 늦게 합류한 것이 바로 중국이다. 1970년대 중반까지 이어진 문화혁명은 '유교는 자본주의이고 사회주의의 적'이라는 이데올로기적 전제는 개혁개방정책 시행이후 1980년대까지 강한 여진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여진을 극복하고 중국 사회주의의 원형적 탐색을 위해 재조명한 인물이 바로 양계초이다. 리쩌허우[李澤厚]는 『중국근대사상사』에서 양계초에 대해 '과와 더불어 공도 있다.'고 평가했다. 물론 그가 말하는 '공'이란 1902년 이전에 남긴 양계초의 저술들이다. 그는 '이 저술들은 이후 중국의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교과서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루쉰[魯迅], 꿔마루어[郭沫若] 심지어 마오쩌똥[毛澤東]에서 대만의 지성인 후스[胡適]까지 양계초의 영향을 받은 인물들로 설명하고 있다.

최근 중국에서는 리쩌허우가 '과'로 규정한 영역까지 재해석하고 있다. 그 이유는 그가 사회주의와 유교가 동일하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양상은 현재 중국의 모순 극복 및 지향과도 대체로 일치한다. 특히 문화혁명으로 전통 가치 상당부분이 사라진 지금, 위에서 언급한 '사회주의 핵심 가치'처럼 유교적 가치를 사회주의의 가치로 재해석하는 일련의 과정은 바로 현대와 전통의 매개체인 양계초를 더욱 활발하게 연구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이것은 다시 한국의 양계초 및 중국 근대 관련 연구를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한편, 양계초 관련 연구의 확장은 여타 인물들에 대한 연구를 삼키는 효과도 있었다. RISS만을 한정시켜 본다면, 강유위, 담사동, 우종산[牟宗三] 등 양계초 이외의 주요 인물들에 관한 연구는 극히 줄어들었다. 우종산의 경우에는 김제란,「모종삼 철학에 나타난 불교 사상 - 『불성과 반야(佛性與般若)』를 중심으로 - 」, 『동양철학연구』83, 동양철학

연구회, 2015.의 1편이 있지만, 유교관련 논문이 아니므로 현황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특히 과거 현대유교연구하면 빠질 수 없었던 대만신유가 그 중 특히 유교철학과 관련한 연구는 거의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3. 주제별 분류

유교는 철학과 사상의 측면이 강하다. 하지만 2015년 중국 근대 유교 연구는 이러한 유교의 전통적 연구 분야가 자취를 감추었다. 대신 유교의 현대적 가치와 기능, 현대화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러나 보니 연구 분야도 전통적인 철학, 종교, 사학, 문학의 인문학보다는 사회학, 정치학 등의 사회과학의 파생연구가 많았다.

가. 현대 중국의 유교열

분야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사회학	김미정	유교와 계몽	사회와 이론24	한국이론사회학회
철학	김성실	신유학 개념은 타당한가?	인문학연구49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철학	송인재	21세기 중국 '정치유학'의 이념과 쟁점	유학연구33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철학	이동규	중국 공산당과 현대 신유학의 관계	동북아연구30-2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

과거 사회분야 또는 사회학 분야의 논문은 주로 동아시아 근대성과 관련된 주제가 많았다. 그러나 2015년 연구에서는 이러한 근대성 연

구가 한국 유교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대신 중국의 유학열과 관련한 연구가 많았다. 특히 송인재나 이동규의 연구는 현재 대륙과 대만 사이의 유교를 두고 벌어지는 학적 긴장을 잘 드러낸 연구이다.

나. 기타

분야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사회학	김상준	「동아시아 근대의 고유한 위상과 특징」	사회와 이론 26	한국이론사회학회
사학	김창규	『신청년(新青年)』의 신문학운동과 중국의 근대성	역사학연구 59	호남사학회

기타 연구 주제로는 근대성에 관한 연구가 있었다. 하지만 유교를 근대성의 중심 테제로 삼은 것은 아니다. 김상준은 "오늘날 '동아시아의 부상'은 '서구 근대의 위기'와 긴밀하게 맞물려 있다."고 가정하면서 동아시아의 부상이 근대체계의 지속과 관련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김창규는 중국의 5.4운동이 근대를 지향하는 중국적 모델이었음을 확인하고 있다.

4. 주요 논문 분석 및 비평

여기서는 송인재와 이동규의 논문을 중심으로 중국의 유교열을 보는 한국학자들을 연구성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주목해야 할 논문은 송인재의 「21세기 중국 '정치유학'의 이념과 쟁점」이다. 송인재는 현대 중국 철학 연구자이다. 그는 중국의 유학을 '정치유교'라 명명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유학열이 전반적으로 국가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과 일치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유교의 패권을 다투기 위한 대만 신유학과의 충돌은 예상된 것이었다. 송인재는 먼저 중국의 유교확장과 강유위(康有爲) 연구간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본 논문에서는 정치체제의 구상과 운영을 유학의 본질로 규정하는 이른바 '정 치유학'의 이념과 최근 벌어진 관련 논쟁에 주목하여, 그 이론적 특징과 현실적 위상을 검토한다. 특히 오늘날 중국의 유학이 '정치유학' 담론을 통해 현실에 뿌 리내리고 더 나아가 '대국굴기' 시대에 정치적 차원의 중국모델을 구축하는 데 적 극적 역할을 하려는 욕망을 발산하고 있음을 규명하려 한다. (중략)
> 정치를 유학의 본질이자 핵심으로 보는 이른바 '정치유학'의 사유는 소수의 경향에 머무르지 않고 중국 유 학계에서 저변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중국 유학계에서 일고 있는 캉유웨이에 대 한 폭넓은 관심이 그것을 말해준다. 중국에서는 2014년 상반기에만 캉유웨이를 다룬 학술회의가 두 차례 열렸다. 회의에 참석한 탕원밍(唐文明, 1970~)은 이 일련의 회의가 대륙 유학계에서 대두되고 있는 '캉유웨이로 돌아가기(回到康有 爲)' 조류를 반영한 것이라 규정하고 더 나아가 중국 사상계에 '신캉유웨이주의 '가 출현했다고 평한다. 캉유웨이에 대한 관심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말이다. 또한 같은 해 9월 푸단대학에서는 유학과 정치를 주제로 한 유학자들의 대담이 열렸다. 이 대담의 회고록에서도 캉유웨이의 이름이 거론되었다. 그리고 당시 2년 동안 중국 유학자들 사이에서 '캉유웨이

붐'이 일어났음을 언급하고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가에 대해 물음을 던진다.7) '신캉유웨이주의', '캉유웨이붐'이라 불리는 일련의 현상과 인식들은 현대 중국의 유학자들 사이에서 정치가 핵심적 화두로 떠올랐고 그 사유의 매개로 근대의 사상가 캉유웨이가 부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그런데 최근의 캉유웨이붐은 급작스럽게 형성된 것이 아니라 중국 내에서 10년 넘게 형성된 학술조류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것은 바로 유학을 정치제도와 결부시켜 사유하려는 경향이다.

강유위는 양계초와 더불어 현대 중국에서 가장 인기있는 근대 중국의 유교지식인이다. 이들은 모두 초기에는 봉건질서를 비판하기 위해 유교를 극렬히 비판하였지만, 중기를 지나면서 모두 중화주의 속에서 유교 부흥이나 창신을 넘어 오직 유교만이 중국이 나가야 할 길이라고 주장한 인물들이다.

이 논문의 백미는 중국학계에 대한 대만의 지성인 리밍후이[李明輝]의 비판이다. 송인재는 장칭[蔣慶] 등이 언급한 일명 '외왕(外王)유학', '제도 유학', '실천유학', '희망유학'의 '정치유학'에 대한 리밍후이의 비판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첫째, 대륙 신유가는 최근에 출현한 것이 아니다. 장칭을 위시한 몇몇 사람이 정치유학을 표방하지만 그 이전의 슝스리(熊十力, 1885~1968), 량수밍(梁漱溟, 1893~ 1988), 펑유란(馮友蘭, 1895~1990) 등이 이미 대륙에서 활동했는데 장칭처럼 주장하면 이들의 지위가 모호해진다.

둘째, 심성유학과 정치유학의 구분에 동의하지 않는다. 홍콩과 대만의 신유가들 도 정치를 등한시하지 않았다. 장쥔마이(張君勱, 1887~1969)는 본래 정치학자였고 그의 정치유학은 장칭 무리의 이론보다 훨씬 고명하다. 쉬푸관(徐復觀, 1903~1982) 도 학술과 정치 사이에서 활동했다. 머우쭝싼도 역사철학(歷史哲學), 정도와 치도(政道與治道), 도덕적 이상주의(道德的理想主義)의 이른바 '외왕삼서(外王三 書)'를 저술해서 정치철학을 논했다. 홍콩과 대만의 신유학을 심성유학이라고만 단 정할 수 없다.

셋째, 심성유학과 정치유학은 유학 전통에서 본래 구분할 수 없다. 장칭의 논리에 따르면 심성유학과 정치유학은 각각 송명유학과 공양학의 줄기에 따라 나뉜다. 그것은 공자 유학에서 공존했던 두 유학이 훗날 분열했다는 논리다. 하지만 유학에서는 본래 내성과 외왕이 연관되어 있고 둘 중 하나만을 말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장칭의 방법론에는 문제가 있다. 심성유학을 버리고 정치유학만을 말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유학 전통이 아니다. -『專訪臺灣儒家李明輝 : 我不認同 '大陸新儒家'』(2015.1.24.)

아마 리밍후이가 말하고자 한 것은 바로 세 번째였다고 생각한다. 유교에는 내성과 외왕이 구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여전히 중국의 유교는 학적으로는 대만의 신유가를 뛰어 넘지 못한다고 생각된다.

다만, 이 논문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는데, 첫째는 최근 중국에서 일어나는 강유위(또는 양계초) 연구의 근원적 원인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강유위 유교철학이 지닌 위상과 한계를 짚어낸다면 현재

중국의 유학열이 지닌 문제점을 분석하는데 보다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강유위보다는 양계초가 현대 중국 유교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양계초보다 강유위를 중심으로 '정치유교'의 틀을 구축한 것에는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더불어 중국이 지향하는 '정치유교'가 전후부터 지속된 중국의 순자(荀子) 지향적 사고와 연결된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데, 이러한 철학사적 입장도 동시에 고려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동규 역시 현대 중국의 유학열에 대해 고민하고 연구로 이어갔다. 그는 중국의 유교열의 미래적 가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 이렇게 중국 공산당이 대안적 이데올로기로 선택하고 발전시킨 현대신유학이 중국 공산당의 핵심 이데올로기로 발전할 수 있는가, 아니면 중국 사회주의 노선 건설을 위한 보조적 역할을 하는 데에만 머무를 것인가 하는 문제는 향후 중국의 정치체제 변화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문제이다.

그는 중국이 유학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 그렇다면 중국 공산당이 신유학을 대안적 이데올로기로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중국 공산당은 서구화에 반대하며 민족적 정체성을 강조하는 신유학 사상이 중국 내에 들어온 자유주의 사상에 대항하는 데에 효과적이라고 인식하였다. (중략) 둘째, 중국 공산당

은 신유학을 통하여 문화대혁명으로 파괴된 민족적 정체성을 회복하고 중화 민족주의의 발전 토대를 세울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 (중략) 셋째, 유교 자본주의라는 권위주의적 경제 모델을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인식하였다.

그는 '이렇게 선택된 중국의 유학이 점차 확산되자 중국 정부는 신유학의 철학사상 즉 관념론인 심성론적 측면을 버리고 중국의 사회주의 노선 추구에 필요한 부분으로 유교를 재구성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런 평가는 현재 중국 유교를 잘 지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유교가 확산됨에 따라 중국 정부의 사상 통제가 어느 정도에 이를 것인지는 점차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 논문에도 다소 미비점이 있다. 가장 큰 것은 용어 사용의 문제이다. 그는 현대 중국의 유교를 '현대신유학'이라고 명명하고 있다. 아마도 저자는 '신유학'을 현대 중국의 유학이나 고유명사가 아닌 '새로운 유학'이라는 의미로 사용한 듯 하다. 그러나 '현대신유가'라는 명칭은 전후 대만에서 우종산[牟宗三], 시푸관[서복관], 당쥔위[唐軍偉] 등을 중심으로 형성된 유가를 이르는 고유명칭이다. 또 주로 이들이 대만을 중심으로 한 학자라는 점에서 '대만신유가'라고도 한다. 그러므로 중국에서 최근 정부 주도로 복흥되고 있는 유학을 '현대신유가'라고 규정하는 것은 한국의 연구관례상 혼동을 줄 수 있으니, 차후에는 다른 표현을 부탁한다.

김창규의 『梁啓超의 '중국적' 근대 기획』은 양계초의 사상을 시기적으로 적절히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주로 후기만을 다루는 중국학계와는 다른 측면이 있다. 또한 그는 강유위와는 다른 그의 유교관을 다

음과 정리하였다.

> 그러나 양계초는 유교를 중국문화의 정수로 보기는 했지만, 강유위처럼 유교를 국교로 정립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런 평가는 양계초가 강유위보다는 좀 더 합리적인 민족성을 지녔음을 대변한다. 그러나 양계초의 전적 중 마지막에 해당하는 『선진정치사상사』(1920)에는 '묵가를 민주정, 법가를 전제정, 그리고 유가를 사회주의'로 대비시키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양계초 역시 유교를 국가체제로 확립해야 한다고 했음이 보여 진다.

5. 평가와 전망

2015년 중국 근대 유교 연구는 양계초를 중심으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실제로 양계초 연구는 현대 중국의 유학열과 관련된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양계초의 전적이 매우 많아 한 사람이 일관할 수는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대한 문사철의 체계적인 연구시스템이 구축되길 희망한다. 또한 나아가 양계초와 강유위를 중심으로 근대시기 중국 유교지식인들에 대한 심층적 연구도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전년도의 이러한 성과는 향후 연구에서 현대 중국의 유학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될 것을 짐작하게 한다. 중국에서는 철학과 사학은 물론 정치, 경제, 사회 등 전인문사회분야에서 유교와의 연결고리를 찾

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이 이동규의 지적처럼 단순히 중국 사회주의를 지속하기 위한 부분적 채택인지, 아니면 중국사회 전반의 변화를 암시하는 것인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이러한 학적 관심의 변동은 그동안 중국 근현대 유교의 주요 주제였던 근대성의 문제를 소외시키는 현상으로도 나타났다. 그러나 중국 경제가 G2의 반열에 올랐기 때문에 경제발전을 중심으로 근대성에 대한 논의도 중요한 과제이며 어떤 형태로든지 지속되리라고 생각된다.

제2편 한국유학

제5장

한국 성리학 연구

안유경

1. 머리말

보고서는 〈2015년 한국유교문화 레포트〉의 일환으로, 2015년도 한국에서 발표된 학술논문 중에서 〈한국 성리학〉과 관련한 연구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논문 대상은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와 등재지 후보 등 학술지에 기재된 논문과 박사학위논문을 대상으로 하는데,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의 발표내용을 대상으로 한다. 이상의 학술지를 분석한 결과, 〈한국 성리학〉과 관련된 논문은 총 70편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논문의 연구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먼저 인물별, 주제별로 분류하고, 다음으로 몇 편의 주요 논문을 분석하고 평가한 뒤에 종합적인 관점에서 평가와 전망을 기술한다.

2. 인물별 분류

인물별 분류에서는 ①퇴계의 논문이 19편, ②율곡의 논문이 8편, ③한주 이진상의 논문이 6편, ④남명 조식의 논문이 3편, ⑤한훤당 김굉필의 논문이 3편 ⑥ 기타의 논문이 31편이다. 2014년도와 마찬가지로 퇴계 이황의 논문이 여전히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한다. 율곡 이이에 이어 한주 이진상에 대한 논문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남명 조식과 한원당 김굉필에 대한 연구도 일정부분을 차지하였다. 2014년

에는 퇴계와 율곡이 전체 논문의 60%를 차지하여 독보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2015년에는 퇴계와 율곡에 치우치지 않고 여러 학자들의 다양한 연구 성과가 그 특징으로 드러난다. 기타의 논문에서 알 수 있듯이, 월천 조목(1편), 점필재 김종직(1편), 노사 기정진(1편), 우계 성혼(1편), 동고 이준경(1편), 구봉 송익필(1편), 매산 홍직필(1편), 남당 한원진(1편), 어촌 심언광(1편), 갈암 이현일과 극재 신익황(1편), 삼봉 정도전과 간재 전우(1편), 오리 이원익(1편), 하서 김인후(1편), 녹문 임성주(1편), 동강 김우옹(1편), 성담 송환기(1편), 화서 이항로(1편), 목은 이색(1편), 일두 정여창(1편), 농암 김창협(1편), 이락재 서사원(1편) 등 조선 전 · 후기 성리학자들의 사상이 골고루 연구되고 있다. 이상의 여러 인물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 중에는 평소에 익숙하지 않던 다양한 인물들도 많은데, 이러한 사실에서 2015년에는 새로운 인물에 대한 연구가 폭넓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물론 퇴계와 율곡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구 성과가 미흡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학자들이 꾸준히 연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 퇴계 이황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강보승	「『성학십도』에 나타난 퇴계 수양론의 구조와 그 실천적 함의」	『한국철학논집』 46	한국철학사연구회
2	김동희	「퇴계 사상체계 연구를 위한 小考–그 理氣妙合的 사유–」	『한국사상과 문화』 80	한국사상문화학회
3	김성실	「퇴계 理氣互發說의 비판적 고찰」	『퇴계학논집』 16	영남퇴계학연구원
4	김승영	「이황 미발론의 구조와 성격에 대한 고찰」	『동서철학연구』 78	한국동서철학회
5	김용헌	「정치적 동반자로서 이황과 기대승」	『한국학논집』 61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6	김응학	「퇴계 理發氣隨의 서예미학적 탐구」	『한국학논집』 61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7	송희준	「퇴계의 道統論과 그 의미」	『퇴계학논집』 17	영남퇴계학연구원
8	안유경	「천명도설의 결정체, 「심통성정도」(『성학십도』)」	『유교사상문화연구』 60	한국유교학회
9	양명수	「퇴계 사상에서 理의 능동성의 의미」	『퇴계학보』 138	퇴계학연구원
10	오지환	「퇴계 『성학십도』의 도덕철학적 기반」	『동서철학연구』 76	한국동서철학회
11	윤천근	「퇴계 이황의 '감성철학'–하늘 관념을 중심으로」	『퇴계학보』 138	퇴계학연구원
12	이치억	「퇴계의 마음공부」	『동양철학연구』 81	동양철학연구회
13	이치억	「敬의 철학과 理의 철학–퇴계 居敬窮理論의 이해–」	『퇴계학논집』 17	영남퇴계학연구원
14	임종진	「퇴계 이황의 『宋季元明理學通錄』에 대한 기초적 분석」	『퇴계학논집』 17	영남퇴계학연구원
15	정우락	「『퇴계언행록』의 형성과정과 제자들의 퇴계 인식」	『퇴계학논집』 17	영남퇴계학연구원
16	정원재	「이황의 7정 이해–「예운」에서 『중용』으로」	『퇴계학보』 137	퇴계학연구원
17	황상희	「퇴계의 太極論 연구」	『퇴계학논집』 16	영남퇴계학연구원
18	황상희	「퇴계의 天觀을 중심으로 한 성리설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	성균관대학교
19	박종용	「退溪 李滉의 道學 硏究」	성균관대 박사학위	성균관대학교

퇴계 이황과 관련된 논문은 총 19편이다. 그 중에서 이기호발설을 중심으로 하는 내용이 다수를 차지한다. 이상의 내용을 살펴볼 때, 2014년의 퇴계와 관련된 논문이 주로 퇴계의 사단칠정론에 치중되었던 것과는 많은 대조를 보인다.

2) 율곡 이이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김미소	「율곡의 '至善' 이해와 그 실현방법으로서의 '戒愼恐懼'」	『동양철학』 43	한국동양철학회
2	김부찬	「율곡의 심신 수양론과 체육철학적 함의」	『동서철학연구』 76	한국동서철학
3	김승영	「'理通氣局' 해석에 나타난 방법과 특징–최근 황의동 교수의 논의를 중심으로–」	『유학연구』 33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4	김혁	「율곡 경세론의 경영학적 함의–『聖學輯要』「爲政編」을 중심으로–」	『율곡학연구』 30	율곡연구원
5	유원기	「율곡 리기론의 서양철학적 조명」	『율곡학연구』 31	율곡연구원
6	이현지	「율곡 사회사상의 탈현대적 함의」	『율곡학연구』 30	율곡연구원
7	조은영	「율곡의 국방사상」	『율곡학연구』 30	율곡연구원
8	최보경	「인심도심에 대한 나흠순과 율곡의 해석」	『동양철학』 44	한국동양철학회

율곡 이이와 관련된 논문은 총 8편이다. 그 중에서 율곡의 경세론을 다룬 논문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2014년에 율곡의 심성론에 대한 논문이 대세를 이룬 것과는 대조된다.

3) 한주 이진상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김기주	「한주 이진상의 이기설–'理發一途說'을 중심으로」	『한국학논집』 60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	우인수	「한주 이진상의 현실인식과 경세론–「畝忠錄」의 인재 양성과 선발제도 개혁안을 중심으로」	『한국학논집』 60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3	이상익	「퇴계학파의 '以心使心'에 대한 해석」	『퇴계학보』 137	퇴계학연구원
4	이형성	「한주 이진상의 '明德說'에 대한 理중시적 관점 一攷」	『동양철학』 44	한국동양철학회
5	이형성	「한주 이진상의 「直字心訣」에 보인 直사상의 이학적 특색 연구」	『동양문화연구』 21	영산대학교 동양문화연구원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6	이형성	「한주 이진상의 리학적 '心卽理說' 고찰」	『한국학논집』 60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한주 이진상과 관련된 논문은 총 6편이다. 한주의 논문은 이기론, 심성론, 수양론, 경세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었으며, 2014년에 한주를 다룬 단독 논문이 한편도 없었던 것과 대조를 이룬다. 2015년 〈한국성리학〉 논문 연구성과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로 한주에 대한 활발한 연구를 들 수 있다.

4) 남명 조식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김영숙	「남명의 敬義사상을 통한 유아인성지도 교사의 리더십 탐색」	『남명학연구』 45권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2	이철승	「남명 조식철학에 나타난 '낌새(幾)'관의 논리 구조와 의의」	『유학연구』 33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3	전병철	「16 - 17세기 초반 남명학파의 箴 작품에 나타난 수양론」	『남명학연구』 45권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남명 조식과 관련된 논문은 총 3편이다. 남명과 관련된 논문은 대부분 수양론의 내용이 주류를 이룬다.

5) 한훤당 김굉필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유현주	「조선전기 한훤당 道學의 위상과 역할」	『동양철학연구』 81	동양철학연구회
2	정출헌	「한훤당 김굉필의 師弟 · 師友關係와 학문세계의 여정」	『민족문화』 45	한국고전번역원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3	황위주	「한훤당 김굉필에 대한 평가와 追崇樣相」	『퇴계학보』 137	퇴계학연구원

한훤당 김굉필과 관련된 논문은 총 3편이다.

6) 기타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정성식	「목은 이색의 儒佛觀」	『퇴계학논총』 26	퇴계학부산연구원
2	김근호	「성리학의 이단 비판론에 나타난 죽음의 문제–정도전과 전우의 異端 비판론을 중심으로–」	『유교사상문화연구』 59	한국유교학회
3	김기	「점필재 김종직의 道學思想에 관한 연구」	『유학연구』 33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4	조민환	「一蠹 鄭汝昌의 敬畏 · 灑落 妙合적 삶」	『유교사상문화연구』 62	한국유교학회
5	손흥철	「漁村 沈彦光의 선비정신」	『유교사상문화연구』 61	한국유교학회
6	최옥녀	「晦齋 李彦迪의 義理思想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	성균관대학교
7	김준태	「동고 이준경의 國政運營論 연구」	『동양철학』 43	한국동양철학회
8	김창경	「구봉 송익필 直사상의 기호유학에서의 전승연구」	『동서철학연구』 78	한국동서철학회
9	김승영	「성혼의 '理氣一發'에 나타난 '主理而發'의 함의와 경향성 탐색」	『동서철학연구』 75	한국동서철학
10	이기동	「하서 김인후의 삶과 철학」	『한국사상과 문화』 77	한국사상문화학회
11	이석규	「東岡 金宇顒의 군주 중심의 경세론」	『퇴계학과 유교문화』 57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12	정병석, 권상우	「대구권 성리학과 의병활동」	『철학논총』 79	새한철학회
13	추제협	「徐思遠의 심학과 의병활동」	『동양철학』 44	한국동양철학회
14	곽신환	「조선 유학의 「爲學之方」에 대한 수용과 이해」	『동서철학연구』 77	한국동서철학
15	권오영	「월천 조목의 언행과 학문성향」	『국학연구』 28	한국국학진흥원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6	안유경	「갈암 이현일과 극재 신익황 사단칠정론의 대비적 고찰」	『퇴계학보』 138	퇴계학연구원
17	이영자	「17세기 호서학파의 성리학적 특징으로 본 충청의 로컬리티」	『동서철학연구』 78	한국동서철학회
18	이천승	「율곡학맥의 미발논의와 마음(心)의 주재성 강화」	『동양철학』 43	한국동양철학회
19	최영성	「17세기 이후 율곡학의 계승 양상과 절충파 등장의 의의–성리설을 중심으로–」	『율곡학연구』 30	율곡연구원
20	곽신환	「「太極問」논변 」	『유학연구』 33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1	박원재	「『異學集辨』도가 비판의 특징: '이단' 비판에 내재된 영남퇴계학파의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국학연구』 28	한국국학진흥원
22	부지훈	「남당 한원진 中和說의 특징과 그 정치적 함의」	『동양철학』 43	한국동양철학회
23	이명심	「녹문 임성주의 理氣同實論 연구」	『동양철학연구』 82	동양철학연구회
24	최일범	「조선성리학 未發工夫 연구」	『한국철학논집』 45	한국철학사연구
25	이종성	「性潭 宋煥箕 「태극도설」해석의 우주론적 의의」	『공자학』 29	한국공자학회
26	김근호	「명덕설에 나타난 철학적 문제의식의 변화–18세기 호락논쟁과 19세기 심설논쟁을 중심으로–」	『공자학』 28	한국공자학회
27	김기현	「주희 신유학의 관점에서 본 노사 기정진의 이기론」	『동양철학』 44	한국동양철학회
28	박학래	「매산 홍직필의 성리설 연구–19세기 전반기 湖洛論爭의 推移에 유의하여–」	『국학연구』 26	한국국학진흥원
29	이향준	「李恒老–역사의 비탈길에 선 성리학자의 기획」	『공자학』 28	한국공자학회
30	엄연석	「유학사상에 근거한 李元翼의 유가적 리더십 재조명–公道와 私路의 열림과 닫힘의 모순율을 중심으로」	『유교사상문화연구』 61	한국유교학회
31	이동희	「다카하시 도루(高橋亨)의 조선조 주자학 연구의 허와 실–오늘날 철학적 관점에서의 비판적 고찰」	『한국학논집』 60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기타에 분류된 논문은 모두 31편이다. 기타에서는 고려 말부터 조선 후기까지 여러 성리학자들의 학설이 골고루 소개되어 있다. 2014년에 비해 다양한 인물에 대한 발굴 작업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주제별 분류

주제별 분류에서는 이기론, 심성론, 수양론, 경세론, 기타 등으로 분류하였으며, ①이기론에 관한 논문이 14편, ②심성론에 관한 논문이 14편, ③수양론에 관한 논문이 12편, ④경세론에 관한 논문이 10편, ⑤기타에 해당하는 논문이 20편 있다. 이상의 분류에서 알 수 있듯이, 어떤 한 부분에 치중되지 않고 이기론, 심성론, 수양론, 경세론 등 여러 분야에서 고르게 연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2014년에 대부분의 논문 내용이 심성론에 치중하여 사단칠정론을 다룬 논문을 포함하면 50% 이상을 차지한 것과는 대조를 이룬다.

1) 이기론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김동희	「퇴계 사상체계 연구를 위한 小考–그 理氣妙合的 사유–」	『한국사상과 문화』 80	한국사상문화학회
2	김성실	「퇴계 理氣互發說의 비판적 고찰」	『퇴계학논집』 16	영남퇴계학연구원
3	김응학	「퇴계 '理發氣隨'의 서예미학적 탐구」	『한국학논집』 61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4	양명수	「퇴계 사상에서 理의 능동성의 의미」	『퇴계학보』 138	퇴계학연구원
5	황상희	「퇴계의 太極論 연구」	『퇴계학논집』 16	영남퇴계학연구원
6	황상희	「퇴계의 天觀을 중심으로 한 성리설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	성균관대학교
7	김승영	「성혼의 '理氣一發'에 나타난 '主理而發'의 함의와 경향성 탐색」	『동서철학연구』 75	한국동서철학
8	유원기	「율곡 리기론의 서양철학적 조명」	『율곡학연구』 31	율곡연구원
9	김승영	「'理通氣局' 해석에 나타난 방법과 특징–최근 황의동 교수의 논의를 중심으로–」	『유학연구』 33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10	곽신환	「「太極問」논변 」	『유학연구』 33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11	이명심	「녹문 임성주의 理氣同實論 연구」	『동양철학연구』 82	동양철학연구회
12	이종성	「性潭 宋煥箕 「태극도설」해석의 우주론적 의의」	『공자학』 29	한국공자학회
13	김기현	「주희 신유학의 관점에서 본 노사 기정진의 이기론」	『동양철학』 44	한국동양철학회
14	김기주	「한주 이진상의 이기설–'理發一途說'을 중심으로」	『한국학논집』 60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이기론과 관련된 논문은 모두 14편이다. 이기론 부분에서는 태극의 내용을 시작으로 퇴계의 태극론에 대한 해석이나 성담 송환기의 「태극도설」의 해석에 보이는 우주론적 의미, 태극을 중심으로 전개된 여러 문답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다룬 논문이 있다. 한주 이진상의 이기설이나 노사 기정진의 이기론을 다룬 논문이 있으며, 퇴계의 사상체계 속에서 이기묘합적 사유구조를 다룬 논문도 있다. 퇴계 '理氣互發說'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나 율곡 '理通氣局'의 해석에 나타난 방법과 특징을 고찰한 논문이 있으며, 우계 성혼의 '理氣一發說'에 나타난 주리적 해석이나 퇴계의 '理發氣隨'를 서예의 미학과 연관시켜 탐구한 논문이 있고, 율곡의 이기론을 서양철학적 입장에서 재조명한 논문이 있으며, 녹문 임성주의 '理氣同實論'에 대한 해석을 전개한 논문 등이 있다. 그

리고 퇴계의 천관을 중심으로 성리학적 이론을 전개한 박사논문도 있다. 2014년에는 율곡의 '이통기국'과 관련된 내용이 다수를 차지하였는데, 2015년에는 조선 유학자들의 이기론에 대한 연구가 골고루 이루어진 듯하다.

2) 심성론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안유경	「천명도설의 결정체, 「심통성정도」(『성학십도』)」	『유교사상문화연구』 60	한국유교학회
2	김승영	「이황 미발론의 구조와 성격에 대한 고찰」	『동서철학연구』 78	한국동서철학회
3	윤천근	「퇴계 이황의 '감성철학'-하늘 관념을 중심으로」	『퇴계학보』 138	퇴계학연구원
4	정원재	「이황의 7정 이해-「예운」에서 『중용』으로」	『퇴계학보』 137	퇴계학연구원
5	최보경	「인심도심에 대한 나흠순과 율곡의 해석」	『동양철학』 44	한국동양철학회
6	안유경	「갈암 이현일과 극재 신익황 사단칠정론의 대비적 고찰」	『퇴계학보』 138	퇴계학연구원
7	부지훈	「남당 한원진 中和說의 특징과 그 정치적 함의」	『동양철학』 43	한국동양철학회
8	이상익	「퇴계학파의 '以心使心'에 대한 해석」	『퇴계학보』 137	퇴계학연구원
9	이천승	「율곡학맥의 미발논의와 마음(心)의 주재성 강화」	『동양철학』 43	한국동양철학회
10	최일범	「조선성리학 未發工夫 연구」	『한국철학논집』 45	한국철학사연구회
11	김근호	「명덕설에 나타난 철학적 문제의식의 변화-18세기 호락논쟁과 19세기 심설논쟁을 중심으로-」	『공자학』 28	한국공자학회
12	박학래	「梅山 洪直弼의 性理說 연구-19세기 전반기 湖洛論爭의 推移에 유의하여-」	『국학연구』 26	한국국학진흥원
13	이형성	「한주 이진상의 '明德說'에 대한 理 중시적 관점 一攷」	『동양철학』 44	한국동양철학회
14	이형성	「한주 이진상의 리학적 '心卽理說' 고찰」	『한국학논집』 60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심성론에 관한 논문은 모두 14편이다. 심성론 부분에서는 미발론과 명덕설, 그리고 사단칠정론을 다룬 논문이 다수를 차지한다. 먼저 미발론에서는 퇴계 미발론의 구조와 성격을 분석한 논문이 있고, 율곡학맥의 일원인 농암 김창협의 미발논의를 다룬 논문이 있으며, 조선 성리학에서 주자의 미발공부를 어떻게 수용하고 전개하였는가를 고찰한 논문이 있다. 명덕설에서는 18세기 호락논쟁과 19세기 심설논쟁에 나타난 명덕설의 특징과 철학적 문제의식의 변화를 규명한 논문이 있고, 한주 이진상의 명덕설을 리 중시적 관점에서 해석한 논문이 있다. 특히 미발심체와 명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19세기 중반 이후 기호학계의 핵심논쟁인 심설논쟁의 본격적인 서막을 열었던 매산 홍직필의 성리설을 호락논쟁과 연관하여 집중적으로 분석한 논문이 있다. 사단칠정론과 관련해서는 갈암 이현일과 극재 신익황의 사단칠정론을 대비적으로 고찰한 논문이 있고, 『예기』「예운」의 7정과 『중용』의 희로애락 4정의 차이가 어떻게 사단칠정논쟁의 논지를 구성하는데 개입하였는지를 퇴계를 중심으로 고찰한 논문이 있다. 즉 칠정에 대한 퇴계의 생각이 바뀌어가는 과정을 「예운」의 7정에서 『중용』의 4정으로 옮겨가는 과정으로 설명한 것이다. 남당 한원진의 중화설의 특징과 현실적 의미를 다룬 논문이 있고, 인심도심론에 대한 나흠순과 율곡의 이론적 차이를 밝힌 논문이 있다. 학계에서 논의되던 '심은 리와 기의 합일이다' 또는 '심은 기이다'라고 하는 경향에서 벗어나서 성리학의 리 중시적 이론을 체계화함으로써 심과 리를 일치시킨 한주 이진상의 '심즉리'설을 다룬 논문이 있다. 양촌 권근의 「天人心性合一之圖」, 화서의 「天命圖」, 추만의 「天命舊圖」, 퇴계의 「天命新圖」 등 도설의 변화 흐름을 통해 심성의 구조를 밝힌 논문도 있다. 2014년에는 사단칠정론에

관한 논문이 12편 이상을 차지함으로써 심성론 내에 세분하여 사단칠정론을 별도로 분류하였던 것과 달리, 2015년에는 사단칠정론에 대한 논문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이 특징이다.

3) 수양론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조민환	「一蠹 鄭汝昌의 敬畏 · 灑落 妙合적 삶」	『유교사상문화연구』 62	한국유교학회
2	강보승	「『성학십도』에 나타난 퇴계 수양론의 구조와 그 실천적 함의」	『한국철학논집』 46	한국철학사연구회
3	이치억	「퇴계의 마음공부」	『동양철학연구』 81	동양철학연구회
4	이치억	「敬의 철학과 理의 철학-퇴계 居敬窮理論의 이해-」	『퇴계학논집』 17	영남퇴계학연구원
5	오지환	「퇴계 『성학십도』의 도덕철학적 기반」	『동서철학연구』 76	한국동서철학회
6	김창경	「구봉 송익필 直사상의 기호유학에서의 전승연구」	『동서철학연구』 78	한국동서철학회
7	김미소	「율곡의 '至善' 이해와 그 실현방법으로서의 '戒愼恐懼'」	『동양철학』 43	한국동양철학회
8	김부찬	「율곡의 심신 수양론과 체육철학적 함의」	『동서철학연구』 76	한국동서철학
9	김영숙	「남명의 敬義사상을 통한 유아인성지도 교사의 리더십 탐색」	『남명학연구』 45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10	이철승	「남명 조식철학에 나타난 '낌새(幾)'관의 논리 구조와 의의」	『유학연구』 33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11	전병철	「16-17세기 초반 남명학파의 箴 작품에 나타난 수양론」	『남명학연구』 45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12	이형성	「한주 이진상의 「直字心訣」에 보인 直사상의 이학적 특색 연구」	『동양문화연구』 21	영산대학교 동양문화연구원

수양론에 관한 논문은 모두 12편이다. 여기서는 퇴계의 수양론과 관련된 논문이 다수를 차지하며 율곡의 수양론과 관련된 논문이 그 뒤를 잇는다. 내용으로는 敬, 直, 거경궁리, 계신공구 등이 그 중심을 이룬

다. 퇴계의 『성학십도』 속의 「경재잠도」와 「숙흥야매잠도」의 내용을 중심으로 퇴계 수양론의 구조와 그 실천적 의미를 밝힌 논문이 있고, 퇴계 『성학십도』 의 내용에 근거하여 퇴계의 도덕철학이 어떠한 기초 위에서 전개되고 있는가를 다룬 논문이 있으며, 퇴계가 마음공부를 중시한 이유와 그 문제의식을 誠과 敬의 관계로서 설명한 논문이 있고, 퇴계 수양론에서의 '경'철학과 존재론과 인식론에서의 '리'철학의 관계를 하나로 일관시켜 해석한 논문이 있다. 최고의 도덕경지인 至善을 실현하는 방법으로서의 율곡의 '계신공구'를 다룬 논문이 있으며, 율곡의 『성학집요』 와 『격몽요결』 의 내용을 중심으로 그의 심신관과 수양론의 내용을 분석하고 이것이 지닌 체육철학적 함의가 무엇인지를 규명한 논문이 있다. 남명 조식의 '경'의 사상에 근거하여 유아인성지도 교사의 인성지도를 위한 실천적 방향을 제시한 논문이 있으며, 구봉 송익필의 '직'사상에 근거하여 기호유학에서의 학문적 위상을 재조명한 논문이 있고, 한주 이진상의 '직'과 '敬'·'義'의 유기적 관계를 통해 사욕을 제거하고 천리를 보존하는 수양공부를 전개한 논문이 있고, 일두 정여창의 삶을 敬畏와 灑落의 두 관점에서 전개한 논문이 있으며, 남명 조식의 箴의 내용을 분석하여 그 속에 담긴 수양론의 실천양상을 밝힌 논문이 있다. 또한 남명 조식의 낌새(幾)에 나타난 논리 구조를 다룬 논문이 있다. 즉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인간의 본성이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본성이 발현될 찰나의 낌새(幾)를 잘 살피는 일이 중요한데, 이러한 낌새의 논리 구조를 남명 조식의 철학을 통해 살펴본 것이다. 2014년에는 수양론과 관련된 논문이 거의 없었던 것과 달리, 2015년에는 수양론에 관한 논문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이 그 특징이다.

4) 경세론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김준태	「東皐 李浚慶의 國政運營論 연구」	『동양철학』 43	한국동양철학회
2	김용헌	「정치적 동반자로서 이황과 기대승」	『한국학논집』 61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3	김혁	「율곡 경세론의 경영학적 함의-『聖學輯要』「爲政編」을 중심으로-」	『율곡학연구』 30	율곡연구원
4	이현지	「율곡 사회사상의 탈현대적 함의」	『율곡학연구』 30	율곡연구원
5	조은영	「율곡의 국방사상」	『율곡학연구』 30	율곡연구원
6	이석규	「東岡 金宇顒의 군주 중심의 경세론」	『퇴계학과 유교문화』 57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7	추제협	「徐思遠의 심학과 의병활동」	『동양철학』 44	한국동양철학회
8	정병석, 권상우	「대구권 성리학과 의병활동」	『철학논총』 79	새한철학회
9	우인수	「한주 이진상의 현실인식과 경세론-「畝忠錄」의 인재 양성과 선발제도 개혁안을 중심으로」	『한국학논집』 60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10	엄연석	「유학사상에 근거한 李元翼의 유가적 리더십 재조명-公道와 私路의 열림과 닫힘의 모순율을 중심으로」	『유교사상문화연구』 61	한국유교학회

경세론에 관한 논문은 모두 10편이다. 경세론과 관련해서는 율곡의 논문이 다수를 차지한다. 예를 들면 율곡의 『성학집요』「위정편」의 내용을 중심으로 경세론의 경영학적 함의를 리더십, 인재선발과 소통, 경영 혁신의 세 분야에서 검토한 논문이 있고, 율곡의 국방사상을 신뢰의 문제에서 접근한 논문이 있으며, 율곡 사회사상의 탈현대적 가치를 밝힌 논문이 있다. 또한 동고 이준경의 국정운영론을 다룬 논문이 있으며, 정치 현안에 대한 인식과 실천방식을 공유한 정치적 동반자로서 퇴계와 고봉의 삶을 다룬 논문이 있고, 동강 김우옹의 군주 중심의 경세론을 다룬 논문이 있으며, 한강학파의 또 다른 구심점으로 대구가 부

상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던 서사원의 사상적 특징과 의병활동을 다룬 논문이 있다. 한주 이진상의 「무충록」의 내용을 중심으로 그의 인재양성과 선발제도 개혁안 등 을 고찰한 논문이 있고, 이원익의 유가경전의 리더십 덕목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하여 그의 정치 군사적 활동과 유가적 리더십의 특성을 고찰한 논문이 있으며, 대구권 성리학과 임진왜란의 상관성을 다룬 논문 등이 있다. 2014년에 비해 새로운 인물에 대한 발굴이 많이 이루어진 것이 2015년 연구성과의 특징이다.

5) 기타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정성식	「목은 이색의 儒佛觀」	『퇴계학논총』 26	퇴계학부산연구원
2	김근호	「성리학의 이단 비판론에 나타난 죽음의 문제–鄭道傳과 田愚의 異端 비판론을 중심으로–」	『유교사상문화연구』 59	한국유교학회
3	김기	「占畢齋 金宗直의 道學思想에 관한 연구」	『유학연구』 33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4	유현주	「조선전기 한원당 道學의 位相과 역할」	『동양철학연구』 81	동양철학연구회
5	정출헌	「한훤당 김굉필의 師弟 · 師友關係와 학문세계의 여정」	『민족문화』 45	한국고전번역원
6	황위주	「한훤당 김굉필에 대한 평가와 追崇樣相」	『퇴계학보』 137	퇴계학연구원
7	손흥철	「漁村 沈彦光의 선비정신」	『유교사상문화연구』 61	한국유교학회
8	최옥녀	「회재 이언적의 의리사상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	성균관대학교
9	송희준	「퇴계의 道統論과 그 의미」	『퇴계학논집』 17	영남퇴계학연구원
10	임종진	「퇴계 이황의 『宋季元明理學通錄』에 대한 기초적 분석」	『퇴계학논집』 17	영남퇴계학연구원
11	박종용	「퇴계 이황의 道學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	성균관대학교
12	이기동	「하서 김인후의 삶과 철학」	『한국사상과 문화』 77	한국사상문화학회
13	권오영	「月川 趙穆의 언행과 학문성향」	『국학연구』 28	한국국학진흥원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4	정우락	「『퇴계언행록』의 형성과정과 제자들의 퇴계 인식」	『퇴계학논집』 17	영남퇴계학연구원
15	곽신환	「조선 유학의 「爲學之方」에 대한 수용과 이해」	『동서철학연구』 77	한국동서철학
16	박원재	「『異學集辨』도가 비판의 특징–'이단' 비판에 내재된 영남퇴계학파의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국학연구』 28	한국국학진흥원
17	이영자	「17세기 호서학파의 성리학적 특징으로 본 충청의 로컬리티」	『동서철학연구』 78	한국동서철학회
18	최영성	「17세기 이후 율곡학의 계승 양상과 절충파 등장의 의의–성리설을 중심으로–」	『율곡학연구』 30	율곡연구원
19	이향준	「李恒老–역사의 비탈길에 선 성리학자의 기획」	『공자학』 28	한국공자학회
20	이동희	「다카하시 도루(高橋亨)의 조선조 주자학 연구의 허와 실–오늘날 철학적 관점에서의 비판적 고찰」	『한국학논집』 60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기타의 논문은 모두 20편이다. 여기서는 여러 유학자들의 삶과 철학, 그리고 그들의 위상과 후대의 평가 등이 주류를 이룬다. 예를 들면 월천 조목의 언행과 학문성향을 다룬 논문이 있고, 점필재 김종직의 도학적 위상을 새롭게 조명한 논문이 있으며, 조선중기의 명신으로서 유교적 의리와 명분을 중시한 어촌 심언광의 선비정신을 다룬 논문이 있고, 퇴계의 도통의 성격과 내용을 밝힌 논문이 있으며, 철저한 실천지향의 학문적 성격을 보여준 한훤당 김굉필의 도학의 위상과 역할을 다룬 논문이 있으며, 하서 김인후의 삶과 철학을 다룬 논문이 있으며, 한훤당 김굉필의 사제 · 사우관계와 학문세계의 여정을 다룬 논문이 있으며, 한훤당 김굉필의 후대의 평가와 추숭양상을 다룬 논문이 있다. 다카하시 도루의 조선조 주자학 연구에 대한 허와 실을 오늘날 철학적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고찰한 논문이 있고, 『성리대전』 이나 『주자어

류』 속의 爲學의 핵심적 내용을 발췌하여 만든 「爲學之方」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다룬 논문이 있고,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전반에 활동한 영남의 유학자인 류건휴가 이단에 대한 비판적 내용을 다룬 논문이 있으며, 17세기 호서지역에서 활동한 호서학파를 중심으로 이들의 정치적 활동과 학문성향을 고찰한 논문이 있으며, 퇴계의 「송계원명이학통록」에 대한 내용을 분석한 논문이 있고, 「퇴계언행록」의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퇴계 제자들의 퇴계에 대한 인식을 다룬 논문이 있으며, 목은 이색의 유불관을 해석한 논문 등이 있다. 2014년에 비해 새로운 인물 발굴이 많이 이루어진 것이 그 특징이다.

4. 주요 논문 분석 및 비평

1) 우수 논문 평가

① 김기주의 「한주 이진상의 이기설-'理發一途說'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은 조선성리학 전개사의 끝자락을 장식한 한주(이진상)의 이기설을 '理發一途說'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그 의의를 해석한 것이다. '이발일도설'은 퇴계의 '이기호발설'이나 율곡의 '기발이승일도설'과의 비교에서 사단칠정에 관한 한주의 시각뿐만 아니라, 이기론과 심성론에서 드러나는 그의 차별적 견해와 철학적 전환을 풍부하게 함축하고 있다. 바로 이점에서 '이발일도설'은 그의 성리학적 좌표를 이해하는 훌륭한 틀이 될 수 있다. 한주의 '이발일도설'은 竪看, 橫看, 倒看이라는 세 가지 눈높이를 제시하며, 그 가운데 '수간'을 가장 근원적인 것으

로 설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理發에 대한 긍정과 함께 氣發을 부정하는 것에 토대를 두고 있다. 그것은 리가 죽은 것일 수 없다는, 그리고 리가 기를 주재하지 못해서는 안된다는 문제의식의 표현이자 요청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식은 곧 사단칠정논쟁 이래 300년을 이어내려온 학문적 배경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리의 주재성을 확정함으로써 도덕의 필요성을 확보하려는 퇴계의 문제의식을 계승하면서 그것을 더욱 강화하는 태도, 진정한 주자의 뜻을 확정하고 그것을 계승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율곡학파의 '기발이승일도설'로 대표되는 주기적인 학문에 대한 비판적 의식이 최종적으로 한주의 '이발일도설'을 성립시키게 되는 역사적 학문적 토대이자 계기였다는 것이다.

이처럼 퇴계의 '이기호발설'에서 시작하여 율곡의 '기발이승일도설'을 거쳐 도달한 한주의 '이발일도설'이 가지는 몇 가지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 그의 '이발일도설'에는 조선 후기 300년 성리학의 전개사가 보여준 하나의 방향, 곧 도덕실천의 필연적 근거를 향한 하나의 지향이 녹아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지향은 '이발일도설'을 통해 마침내 우주를 설명하기 위한 이기설이 아닌 인간을 설명하기 위한 이기설, 즉 '심학화된 이기설'로 구체화되었다. 끝으로 한주의 '이발일도설'은 주자학의 진정한 계승이라는 이름 아래 주자뿐만 아니라 퇴계까지도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퇴계의 '이기호발설'과 율곡의 '기발이승일도설'은 사단칠정논쟁 이래 조선 성리학에서 이기관계를 이해하는 대표적인 시각으로 자리를 잡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시된 한주의 '이발일도설'은 그 내용 이전에 이미 그 용어만으로도 충분히 사람들의 주목을 끌면서, 동시에 그의 성리학이 어디에 위치해있는지 그 좌표를 보여준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내용 요약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 논문은 한주의 '이발일도설'이 어떤 내용이고, 그 근거는 무엇이며,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지향한 이론체계인지, 아울러 퇴계의 '이기호발설'로부터 율곡의 '기발이승일도설'을 거쳐 한주의 '이발일도설'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이해를 통해 그의 '이발일도설'이 어떤 문제의식으로부터 등장하였는지를 주자와 퇴계의 여러 이론과 결부시켜 체계적인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논문으로 평가될 수 있다.

② 최보경의 「인심도심에 대한 나흠순과 율곡의 해석」이라는 논문은 나흠순과 율곡의 인심도심론을 소개하고 각각의 이론에 내재되어 있는 한계가 '思'를 근거로 어떻게 해소되는지를 분석한 것이다. 주자는 인심도심을 대립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인심을 배제하고 도심을 견지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인심도심에 대한 해석에 비판적이었던 사람이 명대의 나흠순과 조선의 율곡이 대표적이다. 즉 그들은 인심과 도심이 분리된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一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일심'을 근거로 나흠순은 인심도심의 관계를 體用으로, 율곡은 終始로 해석한다.

나흠순은 도심을 미발의 본체로, 인심은 이발의 때에 해당하는 발용으로 해석한다. 인심과 도심을 체용과 동정의 관계로 해석한다. 도심을 미발에 해당하는 본체로 해석하여 이발의 때에 발현된 인심을 주재한다. 즉 인심을 제재하기 위한 大本으로서의 도심의 역할을 강조하여 도덕성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러한 인심도심 체용론은 도심을 미발의 본체로 해석함으로써 도심이 지나치게 형이상학화 되었다는 비판을 받는다.

율곡은 인심과 도심을 모두 이발에 배속시킨다. 그리고 당시 퇴계나 우계(성혼)가 인심과 도심의 관계를 대립적 구도로 해석하는 것과 달리 終始로 설명한다. 그러나 인심도심 종시설의 한계는 도심 역시 인심으로 전환될 수 있다. 즉 도심이 결국 인심이 될 수 있다면 '도심은 인심을 주재할 수 있는 도덕적 근거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

이처럼 一心을 근거로 인심도심을 해석하는 나흠순과 율곡의 논의에는 각각의 한계가 내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는 그들이 공통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思' 개념을 통해 극복될 수 있다. 나흠순의 인심도심 체용론의 비판은 도심을 미발의 본체로 상정하면서 형이상학화되어 현실과 분리될 수 있는 가능성이다. 그는 이것을 동정을 아우르는 '사' 개념을 통해 해명한다. 율곡의 인심도심 종시설도 도덕적 기준이 되어야 할 도심 역시 인심이 될 수 있다는 심 안에서의 긴장관계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주체의 노력을 강조한다. '사'를 이발 시의 計較商量하는 意 중의 하나로, 私意가 끼어드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마음의 작용으로 해석함으로써 도심이 인심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하는 수양의 노력을 강조한다. 즉 나흠순의 '사' 개념은 도덕적 근거, 즉 도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초점이 있는 반면, 율곡의 '사' 개념은 주체의 노력을 통해 도덕이 현실화될 것을 강조하는데 있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 개념은 심의 주재를 통해 인심을 도심으로 이끌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본 논문은 주자의 인심도심론에 비판적인 견해를 제시했던 나흠순의 인심도심 체용설과 율곡의 인심도심 종시설을 소개하고, 각각의 이론이 내재하고 있는 한계를 '사' 개념을

통해 해소해가는 과정을 명확히 분석함으로써 성리학의 중요한 논의 주제 중의 하나인 인심도심론을 새로운 시각에서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문제 논문 비평

① 김성실의 「퇴계 이기호발설의 비판적 고찰」은 논문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퇴계의 사단칠정론이 '이기호발설'로 표현될 수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고찰한 논문이다. 논자에 따르면, "퇴계가 스스로 '이기호발설'을 주장하였는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이기호발'은 이원론이 되어야 하는데, 퇴계는 결코 이원론을 주장하지 않았으므로 '이기호발'이라는 표현이 맞지 않다. 무엇보다도 퇴계는 인간의 선한 본성의 발현인 감정 역시도 선할 뿐이며 악한 감정은 없다는 '理發氣隨'의 입장이었으며, 악한 감정은 실제로 존재하는 개념이 아닌 사유 속에서의 착각이었음을 '氣發理乘'의 개념으로 표현한데 불과하다. 퇴계는 좋은 감정도 있고 나쁜 감정도 있다는 '이기호발설'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오직 좋은 감정이 있을 뿐이라는 '理發氣隨'만을 애기하였다. 그러므로 '기발이승'은 없는 개념이며, '이발기수'만이 있을 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퇴계는 '이기호발설'의 표현이 맞지 않고 '이발기수'라고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논문이란 그 내용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일관된 논지로 자기 이론의 타당성을 증명해나가면 논문으로서의 자격은 충분하다고 본다. 따라서 이 논문의 경우 '퇴계가 사칠논변을 통해 말하고자 하였던 것이 이기호발설이 아니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견지한 측면에서나 또는 기존 학계의 기본적 인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였다는 측면

에서 나름 의미를 갖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계의 칠정에 대한 해석을 '착각'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등 다소 무리한 논지를 전개하였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 논문에서 한 가지 아쉬운 결정적인 것은 칠정에 대한 해석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는 점이다.

첫째, 논자는 퇴계 사단칠정론의 특징을 호발로 해석할 경우, 리에서 발한 사단은 순선한 것이지만 기에서 발한 칠정은 선악이 혼재되어 있다, 즉 리는 순선하지만 기에는 선악이 섞여있으므로 고봉의 주장과 다를 바가 없다는 이상한 논지를 전개한다. 즉 고봉의 경우 기에는 과불급이 있고 정에는 선악이 있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퇴계의 '기(칠정)에 선악이 섞여있다'는 말은 고봉의 주장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다. 이어서 논자는 퇴계가 '정에도 악한 정이 있다고 보았는가? 그렇지 않다'고 설명한다. 퇴계는 사단뿐만 아니라 칠정도 선한 정임을 강조하였다고 주장한다. 논자의 표현에 따르면, "사단은 우리의 선한 감정을 의미하며, 칠정은 우리의 감정이 선할 뿐인데도 악한 감정이 있다고 착각하는 것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또는 "칠정 역시도 우리의 순선한 감정을 나타내는 말이지만, 우리의 감정에 선한 감정 악한 감정이 따로 있다고 착각하게 되는 경우에 한해서 그 착각을 '氣發理乘'이라고 하고 악한 감정이라고 지칭하는 것을 칠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여기서 칠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즉 퇴계의 경우 사단을 우리 감정의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우리 감정은 선할 뿐이지 악한 감정이 별개로 있다고 보지 않았다는 것이다. 때문에 퇴계가 이해한 정이란 유선악이 아닌 순선이며, 사단일 수밖에 없다는 논리이다. 따라서 사단은 우리 감정의 전체를 지칭하는 것이 된다. 즉 퇴계는 감정을 순선한 것으로 여기고 악한 감정은 없다고 보았다는 것이다. 때문에 사단은 우리 감정

의 전반을 말하며, 칠정은 감정이 아닌 우리의 착각이며 실재로 없는 개념이라고 설명한다. 고봉이 비판한 것처럼, 퇴계가 사단과 칠정을 실재로 두 개의 감정으로 나누고 좋은 감정과 나쁜 감정을 따로 분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은 사단이든 칠정이든 하나의 정으로써 선할 뿐이므로 '이기호발설'이 아니라 '이발기수'일 뿐이요 '기발이승'은 착각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약간의 반론을 제기한다.

퇴계의 경우 사단을 이발로 본 것도 중요하지만 칠정을 기발로 본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퇴계는 사단을 이발로 보려는 것과 마찬가지로, 칠정을 끝까지 기발로 해석하려고 하였다. 따라서 사단은 이발한 것이요 칠정은 기발한 것이므로 이기호발설이 된다. 퇴계는 순선한 사단만을 중시한 것이 아니다. 칠정이 비록 이기를 겸하지만 단속하기가 어렵고 악으로 흐르기 쉽기 때문에 기발로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렇지만 퇴계가 칠정을 기발로 해석하는 것에 대해 고봉과 율곡은 끝까지 반대하였던 것이다. 왜냐하면 칠정은 이기를 겸하기 때문에 기발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퇴계는 사단을 이발로 해석할 뿐만 아니라 칠정을 기발로 해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때문에 퇴계 사단칠정론의 특징을 이기호발설이라고 하는 것이다. '호발'이라는 말을 퇴계가 직접 거론한 것이 아닐지라도 이기호발설은 퇴계 사단칠정론의 특징을 정확히 표현하는 말이 된다.

② 김승영의 「성혼의 '理氣一發' 나타난 '主理而發'의 함의와 경향성 탐색」이라는 논문은 우계 성혼의 '이기일발'을 '주리이발'의 관점에서 해석을 시도한 논문이다. 먼저 논자는 성혼의 '이기일발'을 '주리이발'로 규정한다. 이것은 '리를 위주로 해서 발함'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리가 주로해서 발하는 것’인데 ‘이기일발’이 표면상으로 ‘리와 기가 동시에 발한다’는 양태를 보이고 있지만 내용면에서는 ‘리를 주로 해서 발하다’는 ‘주리이발’인 것이다. 때문에 성혼의 ‘이기일발’을 액면 그대로의 문자적 해석보다는 그 이면에 숨은 본의를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즉 ‘이기일발’에 문자적 해석을 대입하면 마음의 발동을 리와 기라는 두 기원을 하나로 발한다는 것인데, 이는 도덕과 원리 그리고 감각적 욕망이 하나로 발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을 또한 인간의식의 흐름을 이발 상태에서 파악한다면 외부사물의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리와 기가 하나로 발현된다는 것으로도 독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때의 주안점은 ‘리’의 작용을 주로 하느냐 ‘기’의 작용을 주로 하느냐가 관건인 셈이다. 이 관건의 돌파구를 성혼은 ‘주리이발’의 입장에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그가 줄곧 논변과정에서 ‘막 발할 즈음에’라든지 혹은 ‘리를 주로 하는 것’과 ‘기를 주로 하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에서도 이와 같은 맥락을 파악할 수 있다. 성혼은 바로 이러한 마음의 작동 기저를 객체의 형식으로만 여겼기에 이것에 반해 삶의 주체적 실천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주리이발’의 입장이 담지된 ‘이기일발’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어서 “성혼의 ‘이기일발’은 동기적 입장에 서 있고 그것은 시간과 공간을 아우르는 인간의 주관성 내지는 주체성에 주안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외재적인 고정된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변화하는 상황과 처지에 맞추어 그 변화와 처지에 부합되는 의리를 취사선택하고 이를 실천으로 옮기는 일은 역동적이고 주체적인 마음이 하는 것이다. 성혼은 이러한 변화와 상황에 따른 마음의 주체적 판단을 매우 중시하였다. 인간이 사태에 직면했을 때 가지는 도덕적 판단은 ‘리’라는 가치기준이 존재하기에 시의적절하

게 대치할 수 있다. 이것은 인간만이 향유하고 있는 도덕적 시비선악의 판단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관점에서의 해석에 대해 "기존의 학계에서 줄곧 연구되어온 경향에 반하는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스스로를 진단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에서는 몇 가지 부족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성혼의 '이기일발'이 제기된 배경에 된 분석작업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성혼의 철학사상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기일발'로 표현할 수 있다. '이기일발'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도출하려면 '이기일발'이 제기된 배경에 대한 분석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성혼의 사단칠정론은 퇴계의 이기호발설(사단은 이발한 것이요 칠정은 기발한 것이다)이 타당하다는 전제 위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그 근거로서 주자의 '혹원혹생'을 내용을 근거로 인심과 도심뿐만 아니라, 사단과 칠정도 리와 기로 상대시켜 볼 수 있음을 논증한다. 그렇지만 퇴계처럼 소종래에 따른 근원적인 구분에는 반대한다. 즉 정의 근원으로서의 성을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으로 양분시켜 보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율곡과는 달리 사단과 칠정을 이발과 기발로 구분해보려고 한다. 다시 말하면, '性發爲情'의 명제에 따라 사단이든 칠정이든 그 근원은 하나의 성임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성혼의 '이기일발'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이 소재한다. 따라서 성혼의 '이기일발'이란 '주리이발'임을 논증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정의 근원으로서의 성을 하나로 보려는 관점에서 제기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둘째, 논자의 주장대로 '이기일발'을 '주리이발'의 관점으로만 해

석할 경우, 한쪽으로 치우친 측면이 발생한다. 다시 말하면 성혼은 사단은 '주리이발'이요 칠정은 '주기이발'이라는 양면을 동시에 해석하고 때문이다. 성혼의 이론에서 주리 · 주기의 논리는 다만 사단과 칠정을 리와 기로 상대시켜 보려는 논거로 제시된 것일 뿐이다. 하나의 성이 발하여 정으로 드러날 때에 主가 되거나 重한 쪽을 취하여 말할 수 있으니, 즉 사단은 리가 주가 되므로 이발한 것이요 칠정은 기가 주가 되므로 기발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혼이 이해한 퇴계 이기호발설에 대한 해석이다. 물론 이러한 해석은 퇴계와도 구분되고 율곡과도 구분된다. 퇴계와의 차이는 정의 근원으로서의 성을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으로 양분시켜 보지 않는다는 점이요, 율곡과의 차이점은 주리 · 주기의 논리에 따라 사단과 칠정을 이발과 기발로 구분해본다는 점이다.

셋째, 세부적인 측면에서 성혼에 대해 잘못 오해한 부분이 너무 많다. 예를 들면 논자는 "성혼은 이이와의 논변에서 인심도심설에 대한 입장을 피력하려고 한 것인데, 이이는 이것을 사단칠정설로 층위를 달리해가면서 논변을 이어간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 그렇지 않음을 지적한다. 즉 성혼이 퇴계 이기호발설에 대한 타당성의 근거로서 주자의 '혹원혹생', 즉 인심도심설을 끌어들이는데, 이것은 인심도심설을 말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성혼은 사단과 칠정의 관계를 인심과 도심의 관계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였기 때문에 사단칠정론에 대한 퇴계 호발설의 근거를 인심도심의 논리로써 전개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성혼의 인심도심설이 율곡의 사단칠정론과 층위를 달리하여 논변이 전개된 것이 아니라, 성혼의 인심도심설은 사단칠정론을 설명하기 위한 전거로 제시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성혼의 입장은 대체적으로 도심을 사단이라고 하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한다. 그러나 인심을

칠정이라고 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인심은 형기의 사사로움에서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악이 있을 수 있는 것에 비해, 칠정은 선악미정이므로 인심을 칠정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견해이다"라는 주장에 대해, 이러한 주장은 성혼의 주장이 아니라 율곡의 주장인 것이다. 성혼은 퇴계 호발설의 타당성의 논거로써 주리 · 주기의 논리를 제시하는데, 주리 · 주기의 논리에 따르면 사단은 '주리'가 되고 칠정은 '주기'가 되므로 칠정을 선악미정으로 설명할 수 없다. 칠정을 주기로 볼 수 없음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학자가 바로 율곡이다. 왜냐하면 칠정은 이기를 겸하므로 주기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점이 바로 성혼과 율곡의 이론적 차이이기도 하다.

③ 정원재의 「이황의 칠정 이해-「禮運」에서 『中庸』으로-」이라는 논문은 퇴계/고봉의 사단칠정론에 대하여 정밀하게 분석하고 있는 역작이다.[1] 그러나 四端七情에 관한 퇴계의 주장에 대하여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성리학의 기초이론에 대하여 곡해한 상태에서 작성되었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본 논문을 분석하기 이전에, 퇴계 사단칠정론의 핵심적 이론들과 그 문제점들을 검토해 보자.

사단과 칠정에 대한 핵심적 규정에는 다음과 같이 6개가 있다.

1) 사단은 리에서 발동하고 칠정은 기에서 발동한다. 四端發於理, 七情發於氣[추만「天命舊圖」]: 四端과 七情의 발출 근원, 즉 所從來가 理와 氣라는 사실을 밝힌 것이다

1 이 부분은 최영진이 집필하였다.

2) 사단은 리가 발현한 것이고 칠정은 기가 발동한 것이다. 四端理之發, 七情氣之發[퇴계「天命新圖」] : 四端은 理로서 구성되고 七情은 기로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힌 것이다. 다만 四端/七情은 정이며, 정은 발동한 것이기 때문에 '發'을 덧붙힌 것이다.

3) 사단의 발동은 순수한 리이기 때문에 선하지 않음이 없고 칠정의 발동은 기를 겸하기 때문에 선악이 있다. 四端之發, 純理故無不善; 七情之發 兼氣故有善惡[퇴계「與奇明彦, 己未」] : 四端이 '무불선' 한 이유는 순수한 理이기 때문이며 七情이 '유선악'한 이유는 리와 기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四端과 七情이 절대적 가치와 상대적 가치를 갖게 된 理氣論的 근거를 밝힌 것이다.

4) 사단은 인의예지의 성에서 발동할 뿐이고, 칠정은 외물이 그 형체를 감촉함에 속에서 움직여 대상을 따라 발출한다.四端發於仁・義・禮・智之性焉爾; 七情外物觸其形而動於中, 緣境而出焉爾 [퇴계「論四端七情第1書」] : 四端은 본성에서 발출하며 七情은 마음이 외부의 사물에 감응되어 그 대상을 따라 발출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四端의 所從來는 본성이며 七情이 발출하는 근본 요인은 외부의 대상物이다. 그러므로 율곡은 이것을 '內出外感'[2]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에 필자가 38면에서 "1서에서는 4단과 7정의 발생근원을 본성과 형기로 명시하면서"라고 주장한 것은 명백한 오류이다.

2 『栗谷集』권 10, 6면「답성호원」임신: 竊詳退溪之意, 以四端爲由中而發, 七情爲感外而發

5) 사단은 리가 발현함에 기가 그것에 수반되는 것이며, 칠정은 기가 발동함에 리가 그것에 탑승하고 있는 것이다. 四則理發而氣隨之, 七則氣發而理乘之耳[퇴계「論四端七情 第2書」: 이 규정은 四端과 七情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구성 요소들은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밝힌 것이다. 四端과 七情은 모두 理와 氣로 구성되어 있으나 그 기능들이 다르다. 四端은 理가 발현한 것인데, 기가 그것을 隨伴하는 것이다. 七情은 기가 발동한 것인데 理가 타고 있는 것이다. 즉 理와 氣의 기능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四端과 七情이라는 질적으로 상이한 정이 성립된다는 것이다. 퇴계가 2와 3규정을 이와 같이 수정한 이유는 四端도 정이고 정은 현실적 존재이기 때문에 '리+기'일 수 밖에 없으며, 기가 없으면 리가 실현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퇴계는 四端과 七情의 질적인 차이를 '所從來'의 차이보다는 '구성요소의 기능의 차이'에서 찾으려고 시도한 것이다.

6) 四端의 情은 理가 발현함에 氣가 그것에 수반되니 본래 純善하여 악이 없고 반드시 理의 발현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氣에 가리어진 후에야 不善으로 흘러가게 된다. 七情은 氣가 발동함에, 理가 그것을 탑승하고 있으니 역시 블선함은 없지만 만일 氣가 발동한 것이 절도에 맞지 못하여 그 理를 滅하게 되면 방탕하여 악이 된다.四端之情, 理發而氣隨之, 自純善無惡, 必理發未遂而揜於氣, 然後流爲不善. 七者之情, 氣發而理乘之, 亦無有不善, 若氣發不中而滅其理, 則放而爲惡也.[퇴계「心統性情圖」]: 이것은 퇴계의『聖學十圖』제 6도인「心統性情圖」에 기재된 만년정론이다. 제5규정을 전제로 하여 四端은 '순선무악'이라는 絶對價値를 가지고 있는데 단지 리가 기에 엄폐될 경우 불선이 되며, 七情도 '불선함은

없으나 중절하지 못할 경우 악이 된다'라는 결론을 이끌어 낸 것이다. 즉 5규정에서부터 사단과 칠정의 가치론적 차이를 도출해낸 것이다.

이 규정들을 검토해 볼 때에 유의해야 할 점은 서술어 '發'의 주어가 변경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1규정과 3규정에서는 四端과 七情이 '發'의 주어이다. 그러므로 이 규정들은 '四端/七情 互發說'이 된다. 그런데 2, 5, 6규정의 경우는 '발'의 주어가 리와 기이다. 그러므로 이 규정들은 '理氣互發說'이 된다. '四端과 七情이 發한다'라는 문장과 '리와 기가 發한다'라는 문장은 존재론적으로 전혀 다른 명제들이다.

四端과 七情은 본래 '정'이기 때문에 '발'이라는 동사를 서술어로 사용하는 데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며, 기의 서술어로 '발'을 사용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리가 발한다'라는 이발설은 '형이상자인 리가 어떻게 현상계의 작용을 의미하는 發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라는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다. 전후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理無爲 氣有爲'라는 일반론을 적용시키면 이 명제는 오류를 범한 것이 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선행연구가 있기 때문에 재론할 필요는 없다.[3] 단지, 퇴계가 1규정을 2규정으로 수정한 이유를 전혀 설명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1규정과 2규정은 '발'의 주어가 '四端과 七情[四端七情 호발설]'에서부터 '리와 기'로 변경되었으며[이기호발설], 四端과 七情의 발출근원[所從來]이 리와 기라는 점에서부터 四端과 七情의

3 유원기, 「16세기 조선성리학 논변의 분석적 탐구 : 退 · 高의 四端七情論辨과 牛 · 栗의 人心道心論辨을 中心으로」,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10, 37 – 45쪽 참조.

구성요소가 리와 기라는 사실로 변경되었다. 그러므로 이 두 명제는 존재론적으로 보면 전혀 다른 명제들이다. 그러나 퇴계는 그 차이를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한 것 같다.[4] 퇴계뿐 아니라 조선조의 유학자들, 그리고 현대 학자들도 그 차이를 간파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는 「論四端七情 第1書」 冒頭에서 1규정을 수정한 이유에 대하여 '분별이 심해서 논쟁이 단서를 만들까 우려가 되기 때문이다'[5]라고 설명하고 있다. 퇴계는 제1규정이 四端과 七情의 '발출 근원이 다름'을 언표하고 있기 때문에 '분별이 너무 심하다'라고 본 것 같다.

2규정과 3규정을 비교해 보면, '발'의 주어가 리와 기에서 다시 四端과 七情으로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계는 그 이유를 '스스로 내가 한 말이 온당하지 못함을 잘못으로 여겼기 때문이다'[6]라고 설명할 뿐 무엇이 온당하지 못한지에 대해서는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 그리고 「論四端七情 第1書」말미에서 주자의 '四端理之發 七情氣之發'이라는 명제에 비추어 볼 때에 '제1규정에는 오류가 없다'라고 주장한다.[7] 여기에서 우리는 퇴계가 '발'의 주어를 '四端에서 리'로 변경시키는 데에서 발생하는 형이상학적 문제를 문제로서 인식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가치론적으로 볼 때에 理는 '純善無惡'이라는 절대가치를, 氣는 '有善有惡[或善或惡]'이라는 상대적 가치를 지닌다는 것은 성리학의 기본

4 율곡/우계의 논변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들이 발견된다.
5 『退溪集』, 권16, 8쪽
6 같은 책, 권16, 1쪽.
7 같은 곳: 近因看朱子語類論孟子四端處.末一條正論此事.其說云.四端是理之發.七情是氣之發.古人不云乎.不敢自信而信其師.朱子.吾所師也.亦天下古今之所宗師也.得是說.然後方信愚見不至於大謬.而當初鄭說.亦自爲無病.似不須改也.

이론이다.[8] 四端을 理에, 七情을 氣에 분속시키면 四端은 절대적 가치, 七情을 상대적 가치로 규정된다.[9]

그러므로 위에서 열거한 규정 가운데 3과 6규정을 제외한 4개는 사실에 관한 진술이지만, 모두 '四端은 선하지 않음이 없다'라는 '절대적 가치'를 갖고 있으며, 七情은 '선악이 있다[본래 선한데 악으로 흐르기 쉽다,[10] 또는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다]'라는 '상대적 가치'를 갖고 있다는 '가치론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11] 이 규정들은 모두 '四端은 절대가치, 七情은 상대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이유[또는 그 근거]를 제시하기 위한 진술이다. 그러므로 학자들이 그 차이를 간과한 것이다. 이 논문의 저자인 정원재도 동일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지금까지 검토해온 바와 같이, 위에서 열거한 退溪의 四端七情에 대한 규정들은 두 가지 정의 가치론적 차이[절대적 가치와 상대적 가치]를 엄격하게 구별한 것이다. '四端과 七情을 엄격하게 분별'하기 위하여 四端을 리에, 七情을 기에 분속시킨 것이다. 퇴계의 6가지 규정이 각각 다르지만 '四端七情分屬理氣'에는 변함이 없는 것은 이와 같은 이유

8 최영진 외, 『한국철학사』 새문사, 2009, 177-179쪽 참조

9 '四端=도덕정감, 七情=자연정감[정감 일반]'으로 규정하는 기존의 주장에 대하여 이찬은 七情도 '도덕적인 것'과 관련된 정감이기 때문에 도덕적 정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四端七情再考」,『退溪學報』125집, 2009, 61쪽) 退溪가「論四端七情 제1서」〈개본〉에서 '七情은 본래 선하지만 악으로 흐르기 쉬운 것[七情, 本善而易流於惡]'이라고 개정한 것을 본다면 이찬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을 감안하여 四端과 七情의 차이를 '절대적 가치와 상대적 가치'로 구분한다.

10 奇大升, 『高峯集』, 「兩先生四七理氣往復書」, 上篇, 29쪽: 四端皆善也. … 七情本善,而易流於惡.

11 朱子에게 四端과 七情이 본질적으로 다른 '異質異層'의 정감이라는 뚜렷한 분별의식은 없었다. 이 점은 『중용장구대전』〈中和章〉에 편집된 "惻隱羞惡喜怒哀樂은 본디 마음의 발동이니 분명하게 쉽게 볼 수 있는 자리이다[惻隱羞惡喜怒哀樂 固是心之發 曉然易見處]"라는 小注에서도 확인된다.

四端과 七情이 본질적으로 다른 정감이라는 분별의식은 退溪에게서부터 본격화 된다.(林月惠, 『異曲同調 : 朱子學與朝鮮性理學』, 대만대출판중심, 2010, 83-84쪽)

때문이다. 그 목적은 四端의 절대가치성을 논증하고자 하는 것이다.[12] 이것은 인간 본성의 순선함을 四端이라는 도덕정감을 통하여 실증하고자 하는 맹자의 주장에 입각한 것이다. 이 주장에 의하면, 四端은 선한 성[인의예지]이 발현된 정감이기 때문에 성과 동일하게 순선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주자가 인의예지라는 理가 발출된 것이 四端이라고 말한 것은 이와 같은 이유때문이다.[13] 그러므로 필자가 31면에서 "그러나 「퇴계2서」의 핵심주제는 역시 7정의 기원에 관한 문제이다"라고 주장한 것은 퇴계의 의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 범한 오류가 아닐 수 없다.

이상 검도해 내용을 기반으로 이 논문은 어떠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1. 이 논문의 기본 구도는 「天命圖說」과 「論四端七情 第1書」에서 「禮運」의 七情觀을 수용하였는데 「論四端七情 第2書」부터는 『中庸』의 구조 안에서 七情을 설명하면서 변화가 생겨났다는 것이다.(6면) 그러나 이 주장은 성립될 수 없다. 필자는 「禮運」의 七情은 '옳지는 않거나 혹은 나쁘다고 보는 것'(13면) '사악한 것'(6면) 이라고 전제한다. 그리고 「論四端七情 第1書」에서의 七情은 "「禮運」의 예에 따라 몸의 욕구에서 나온 감정으로 생각하고 있었기에"(23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論四端七情 第1書」에서의 七情은 '옳지는 않거나 혹은 나쁘다고 보는 것'

12 퇴고의 四端七情論의 초점은 '四端의 절대가치성'에 맞추어져 있다. 이것은 인심도심설이 도심보다 인심의 문제를 주로 다루는 것과 대비될 수 있다.

13 『孟子集注大全』, 〈不忍人之心〉장 소주 : 惻隱自是情,仁自是性, 性卽是這道理. 仁本難說, 中間却是愛之理, 發出來方有惻隱. 義却是羞惡之理, 發出來方有羞惡. 禮却是辭遜之理, 發出來方有辭遜. 智却是是非之理, 發出來方有是非. 仁義禮智, 是未發底道理; 惻隱羞惡辭遜是非, 是已發底端倪. 如桃仁杏仁, 是仁到得萌芽, 却是惻隱.

'사악한 것' 이 된다. 그런데 퇴계는 「論四端七情 第1書」에서 七情을 '선과 악이 정해지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 필자도 여기에 동의하고 있다.(22면) 그렇다면 「論四端七情 第1書」에서 七情은 「禮運」의 7정과 다르다. 왜냐하면 필자의 이 주장에 의하면 「禮運」의 七情은 '옳지는 않거나 혹은 나쁜 것'으로서 부도덕한 감정인데, 퇴계 1서의 칠정은 '선과 악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가치중립적인 정이기 때문이다.[14] 이 글의 팔자는 그렇다치고, 김기현, 성태용, 유연석 등이 왜 '선악미정'이라는 퇴계의 七情을, '마음 놓을 수 없는 위험한' '사악한' 「禮運」의 7정과 동일한 것으로 보았는지(9면) 이해할 수가 없다. 퇴계는 분명히 1서에서 "자사와 맹자는 나아가 말한 바[所就而言之者]가 다르다 "라고 하여 七情을 자사가 말한 『中庸』의 4정으로 보고 있다. 퇴계는 절대적 가치와 상대적 가치를 대비시킨 것이지 선과 악을 대립시킨 것이 아니다. 정원재의 이 논문은 기본 구도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2. 필자는 四端七情론의 쟁점을 '기원' 문제로 잘못 이해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필자는 25면에서 "4단과 7정이라는 두 감정의 성격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본성과 형기라는 두 가지 기원임을 강조하는 이황의 경우에도"라고 서술하였다. 그리고 "「퇴계2서」의 핵심주제는 역시 7정의 기원에 관한 문제이다"(31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뚜렷한 전거도 없이 1서에서는 칠정의 기원을 '몸'으로 보고,[15] 2서에서는 '본성'으로 보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2서의 입장이 「心統性情圖」

14 이것은 주자가 전기에 인심을 인욕으로 보아 불선한 것으로 보았다가 후기에 형기에서 생한 것이라고 하여 선악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가치중립적인 것으로 규정한 것과 유사하다.
15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제1서에서의 七情은 '대상을 따라 나오는 것'이지 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에서도 보다 강화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퇴계가 4단과 7정의 '기원'에 대하여 진술한 것은 「논사단칠정 제1서」의 제4규정 뿐이다. 사단과 칠정의 기원을 리와 기로 설정한 제1규정은 퇴계가 아니라 추만의 것이며 퇴계가 '분별이 너무 심하다'고 평가한 것이라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기 바란다. 그리고 제4규정은 2서에서 퇴계가 고봉의 비판을 수용하여 자신의 오류를 인정하고 폐기한 이론이라는 점도 분명히 인식하기 바란다.[16]

5규정과 6규정에서 퇴계는 四端과 七情은 모두 리와 기로 구성되지만 그 구성요소들의 기능이 다르다고 주장한다. 퇴계가 「心統性情圖」에서 '性發爲情'이라는 주자학의 일반론을 인용한 것을 근거로, '퇴계가 七情의 근원을 본성으로 보았으며, 그렇기 때문에 칠정은 선하다'라고 주장했다고 대서특필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거듭 밝히지만, 제6규정[「心統性情圖」]은 四端과 七情의 기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心統性情圖」에는 3개의 그림이 그려져 있다. 그 가운데 〈중도〉는 理와 기품이 섞이지 않는 경우[不雜] 경우이며, 〈하도〉는 理와 기품이 떨어지지 않는 경우[不離]를 표상한 것이다. 〈중도〉에 대하여 退溪는 "氣稟중에 나아가 本然之性이 氣稟에 섞여 있지 않음을 가리켜 말한 것이며, 선악의 기미에 나아가 선 일변만 말한 것이다."[17]라고 설명한다. 본연의 성이 그대로 발현하여 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四端뿐만 아니라 七情

16 『退溪集』, 卷16, 「答奇明彦」, 「論四端七情第二書」: 辯誨曰, 非中無是理, 外物偶相感動, 感物而動, 四端亦然. 滉謂, 此說固然.

17 李滉, 『退溪集』, 권7, 24쪽: 其中圖者, 就氣稟中指出本然之性不雜乎氣稟而爲言 … 其言性旣如此, 故其發而爲情, 亦皆指其善者而言.

도 선할 수밖에 없다.[18] 이 경우 四端과 七情의 가치론적 구분은 사라지며 따라서 불선한 정은 없다.[19] 이 그림은 마음의 단일한 구조를 표상한 것이다.

〈하도〉에 대하여 退溪는 "성은 본래 하나이지만 기질 가운데에 있어서는 두 개의 이름이 있게 된다."[20] "四端은 理가 발현함에 氣가 수반되는 것이며 七情은 氣가 발동함에 理가 타고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한다. 理가 氣에 내재될 경우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이라는 차원을 달리하는 성이 성립되는 것과 같이, 정에도 四端과 七情이라는 차원을 달리하는 정감이 성립된다. 이 자리는 理과 氣가 서로 돕거나[相須][21] 혹은 서로 해치는[相害] 곳이다.[22] 전자의 경우에는 정이 선해지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불선하게 된다.[23] 〈하도〉는 마음의 이중적 구조를 표상한 것이다. 이와 같은 마음의 구조를 기반으로 退溪는 四端과 七情의 선악문제에 대하여 진술한 것이다.

사단과 칠정이 구분되는 곳은 〈하도〉이다. 여기에 나타난 퇴계학설의 핵심은, 四端과 七情이 모두 '性發爲情'인데도 불구하고 '왜 가치론적으로 차이가 나는가'라는 점을 규명하는 것이다. 그는 '리가 發하는가[사단] 아니면 乘하는가[칠정], 기가 隨[사단]하는가 아니면 發[칠정]하

18 退溪는 「論四端七情 제5서」에서 七情이 선할 수 있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 바 있다. "孟子之喜, 舜之怒, 孔子之哀與樂, 氣之順理而發, 無一毫有碍, 故理之本體渾全." (李滉,『退溪集』,권16, 36쪽.)

19 李滉, 『退溪集』, 권7, 24쪽: 其言性既如此, 故其發而爲情, 亦皆指其善者而言, 如子思所謂中節之情, 孟子所謂四端之情, 程子所謂何得以不善名之之情, 朱子所謂從性中流出元無不善之情, 是也.

20 李滉,『退溪集』,권16, 32쪽: 性本一因在氣中有二名,四則理發而氣隨之, 七則氣發而理乘之.

21 '相須'는 '서로를 기다리다'(윤사순,『退溪 李滉의 哲學』, 예문서원, 2013, 143쪽), '서로 돕다'(고려대 학국사상 연구소,위의 책, 245쪽) 등으로 번역된다. 본고에서는 '相害'의 대구로 보아 후자의 번역을 택한다.

22 李滉, 『退溪集』, 권7, 24쪽: 其言性既如此, 故其發而爲情, 亦以理氣之相須或相害處言.

23 고려대학교 한국사상연구소 편, 『역주와 해설 : 성학십도』, 예문서원, 2009, 245쪽 .

는가' 라는 리와 기의 기능의 차이가 四端과 七情의 차이를 만든다고 보았던 것이다.

3. 필자는 사단과 칠정의 '기원' 문제에 집착하여, "본연지성에 기원을 둔 까닭에 7정은 선하지 않음이 없다"(53면), "「心統性情圖說」부터 7정은 본성에 기원을 둔 것으로 여겨지면서 '선 하지 않음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라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오류이다. 7정을 본연지성에 연관시킨 곳은 〈중도〉 뿐인데 이것은 4단과 구별하지 않은 정 전체를 가리킨다. 〈하도〉의 성은 "성은 본래 하나이지만 기질 가운데에 있어서는 두 개의 이름이 있게 된다."라고 말한 그 성이다. 이것은 본연지성이 아니다. 퇴계는 「논사단칠정 3서」에서 칠정이 선한 이유는 본연지성에서 기원하기 때문이 아니라, '리가 그것을 타고 主가 되기 때문에 선하다'[24]라고 하여 설명하고 있다.

4. 주자 「중용장구서문」에 나타난 人心道心說에 대하여 필자는 아무런 전거도 없이 "지각으로서의 마음은 그 자체로는 텅 비어 있는 것이 된다. 이 비어 있는 내부를 본성이 차지하면 도심이, 형기가 차지하면 인심이 된다고 이해하는 것이다"(24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참으로 잘못된 주장이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주자는 '마음은 하나이지만 형기에서 발생한 것은 인심이 되고 성명에 근원을 둔 것은 도심이 된다'라고 하여 인심과 도심의 기원을 밝힌 것이다.

24 敢問喜怒哀樂之發而中節者, 爲發於理耶,爲發於氣耶? 而發而中節, 無往不善之善, 與四端之善, 同歟異歟? 雖發於氣, 而理乘之爲主, 故其善同也.

5. 필자가 이 논문에서 범한 오류는 결론 부분에서 "사단이 모든 감정의 원형이라면 7은 사단의 현실적 형태라고 말 할수 있다."(58쪽)라는 주장에 이르러 절정에 달한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사단은 '孺子入井'과 같은 불의의 사고를 목격했을 때 느끼는 놀람과 아픔[惻隱之心], 자신의 잘못에 대한 수치심과 불의에 대한 미움[羞惡之心] 등을 말한다. 이것은 누구나 일상적으로 느끼는 현실적 감정이다. 이것을 왜 '감정의 원형'이라고 주장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5. 평가와 전망

이상으로 2015년 1년간 주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인물별, 주제별 등으로 분류하고 그 우수한 논문과 문제 논문 등을 나름대로 평가해 보았다. 먼저 인물별 분류에서 알 수 있듯이, 2015년도 한국 성리학과 관련된 논문 중에서 퇴계 이황이 19편, 율곡 이이가 8편, 한주 이진상이 6편, 남명 조식이 3편, 한원당 김굉필이 3편이며, 그 외에 월천 조목, 삼봉 정도전과 간재 전우, 점필재 김종직, 노사 기정진, 우계 성혼, 동고 이준경, 구봉 송익필, 매산 홍직필, 남당 한원진, 어촌 심언광, 갈암 이현일과 극재 신익황, 오리 이원익, 하서 김인후, 녹문 임성주, 동강 김우옹, 성담 송환기, 화서 이항로 목은 이색, 일두 정여창, 이락재 서사원 등을 다룬 논문이 있다. 2014년과 마찬가지로 다른 학자들에 비해 퇴계와 율곡에 관한 논문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에는 다양한 학자들에 대한

연구가 폭넓게 이루어졌으며 또한 잘 알려지지 않는 새로운 인물들에 대한 발굴도 활발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주제별 분류에서는 성리학의 주제에 따라 크게 이기론, 심성론, 수양론, 경세론, 기타 등으로 분류하였는데, 어느 한 분야에 치우치지 않은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기론에서는 태극의 문제, '이기호발설', '이통기국', '이기일발', '이기동실'의 문제 등을 주제로 다루고 있으며, 심성론에서는 명덕의 문제, 미발의 문제, 중화설의 문제, 사단칠정의 문제, 인심도심의 문제 등을 주제로 다루고 있으며, 수양론에서는 '直'의 문제, 경과 리의 관계, 箴의 문제, 敬義의 문제, 계신공구 등을 주제로 다루고 있다. 경세론에서는 율곡의 경세론이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에 비해 새로운 인물에 대한 발굴이 많이 이루어진 것이 특징이다. 또한 별도로 시대별 분류는 하지 않았지만, 2014년과 마찬가지로 16 - 18세기에 해당하는 인물연구가 두드러지게 많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2015년 1년 동안 한국 성리학과 관련된 논문은 무려 70여 편이 발표되었다. 물론 이것은 학계의 커다란 연구업적으로 볼 수 있다. 인물별 분류에서 알 수 있듯이, 아직까지 퇴계와 율곡에 관한 논문이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에 비하면 새로운 인물들에 대한 연구가 폭넓게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주제별 분류에서 알 수 있듯이, 2014년에는 사단칠정론을 포함한 심성론에 관한 연구가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였던 것과 달리, 2015년에는 경세론과 수양론 등 다양한 분야에 고른 연구가 이루어진 것이 그 특징이다. 2015년 성리학 연구의 현황에 근거하여 앞으로도 다양한 인물들의 성리학 이론들이 보다 많이 발굴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제6장

한국 양명학 연구

선병삼

1. 머리말

본 내용은 2015년도 한국에서 발표된 학술 논문 중에서 〈한국 양명학〉 관련 연구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한국연구재단에 정식으로 수록된 논문(KCI)과 국내의 박사학위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15년도에 완성된 박사논문은 김미령의 『하곡 정제두의 실천적 마음공부론 연구』(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가 있다. 선별 논문의 발표 시기는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의 기간이다. 본 보고서의 작성을 위해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논문집을 연구재단 분류 방식에 따라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철학전문 등재지(후보지) 25개, 유교학 4개, 기타인문학 1개, 중국어와 문학 1개, 역사학 19개이다.

이상의 학술지를 분석한 결과 〈한국 양명학〉 에 해당되는 논문은 총12편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논문에 대한 일목요연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인물별 분류를 하였다. 인물별 분류에서는 다시 강화학파와 기타로 분류하였다.

2. 인물별 분류

1) 강화학파 관련 논문(9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박평선	하곡(霞谷)의 융합철학(融合哲學)에 관한 연구(硏究) –생리설(生理說)을 중심(中心)으로–	『유학연구』 33집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	김민재	하곡 정제두의 인성론과 교육론에 대한 일고찰	『양명학』 40호	양명학회
3	김용재 외	『霞谷集』 定本化 및 完譯과 譯註를 위한 선제적 검토	『양명학』 40호	양명학회
4	김용재	조선시대 反양명학 문헌 조사 및 추출을 통한 양명학 비판 내용의 성향 분석과 反양명학 사조의 흐름에 나타난 특징 연구 [2]	『양명학』 40호	양명학회
5	장병한	백운 심대윤의 문학과 사상 : 심대윤의 『례기정해(禮記正解)』에 대한 연구 –19세기 양명학적(陽明學的) 례학론(禮學論)의 한 특징(特徵) 파악(把握)을 中心으로–	『한국실학연구』 30집	한국실학학회
6	천병돈	경재 이건승의 민족정신	『양명학』 40호	양명학회
7	천병돈	耕齋의 양명학과 민족정신	『양명학』 41호	양명학회
8	이혜경	박은식의 양명학 해석: 다카세 다케지로와의 차이를 중심으로	『철학사상』 55집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9	김현우	박은식의 기독교 수용과 양지론	『양명학』 42호	양명학회

한국 양명학 관련 전체 12편의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인물을 분류하자면 이른바 강화 양명학파와 관련된 연구가 9편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한다. 이는 14년도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며, 한국 양명학 연구에서 강화 양명학파의 위치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인물 분포로 봤을 때 15년도는 정제두에 집중되지 않고 분포 양상을 보이는데, 하곡에 관한 논문 3편(「하곡(霞谷)의 융합철학(融合哲學)에 관한 연구(硏究)

– 생리설(生理說)을 중심(中心)으로 – 」,「하곡 정제두의 인성론과 교육론에 대한 일고찰」,「『霞谷集』 定本化 및 完譯과 譯註를 위한 선제적 검토」)이고, 이건승에 대한 논문이 2편(「경재 이건승의 민족정신」,「耕齋의 양명학과 민족정신」), 박은식에 관한 논문이 2편(「박은식의 양명학 해석: 다카세 다케지로와의 차이를 중심으로」,「박은식의 기독교 수용과 양지론」), 심대윤에 관한 논문이 1편(「백운 심대윤의 문학과 사상 : 심대윤의 『례기정해(禮記正解)』에 대한 연구 – 19세기 양명학적(陽明學的) 례학론(禮學論)의 한 특징(特徵) 파악(把握)을 中心으로 – 」)이다. 심대윤은 정인보가 심대윤을 두고 "근세의 학자로서 이익과 안정복은 역사학으로 빼어났고, 정약용은 정치학으로 뛰어났다. 그러나 심대윤은 적막한 가운데 외롭게 지켜, 명성이 파묻히게 되었다. …… 그러나 공정하게 논평하건대 정밀한 뜻과 빼어난 해석이 여러 학설 가운데에서 빼어났으니 삼한(三韓 · 조선) 경학의 밝은 빛이라 하겠다."라고 한 대목에서도 밝혀두었듯 경학 연구에서 독자의 경지를 구축한 학자다.

박평선은 하곡 철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생리설을 주륙융합의 관점에서 검토하였고, 김민재는 작년의 연구를 이어서 교육철학의 입장에서 하곡의 인성론과 교육론을 분석하였다. 천병돈은 이건창에 대한 연구를 두 편의 논문으로 나누어 발표했는데, 이 또한 그가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작업의 연속선상에서 발표된 글이다. 이혜경은 박은식의 양명학 해석을 계보학적 작업을 통해 규명하고 있으며, 이현우는 박은식과 기독교의 연결이라는 새로운 틀을 활용하여 박은식 사상을 이해하고자 한다.

2) 기타(3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김숙필	秋史 金正喜 '性靈論'의 陽明心學的 의의	『양명학』 42호	양명학회
2	이우진	이능화의 한국 양명학 연구	『양명학』 42호	양명학회
3	임종진	근대 시기 영남유학자들의 양명학에 대한 인식 태도	철학연구	고려대학교 철학연구소

김숙필의 글은 추사 예술론을 양명학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성령 예술론에 견주어 그 특색을 검토한 글이다. 이우진은 조선시대 양명학에 대한 계보적 연구를 진행한 이능화 양명학 연구의 득실을 따졌다. 마지막으로 임종진은 영남 유학자들의 양명학 인식 태도를 계통적으로 살펴본다.

3. 주요 논문 분석 및 비평

하곡 정제두는 조선양명학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여기에는 쟁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면 하곡 양명학의 특징은 무엇인가? 중국 양명학과 차별화된 그만의 양명학을 설명하기 위해 무엇을 주목해야 하는가?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주장이 있다.

위당 정인보는 하곡 양명학의 특색을 實心實學이라고 한다. 위당은 이를 조선 양명학의 특징으로 삼고 조선의 양명학파를 세 부류로 나눈다. 첫째 부류는 양명학파라고 하기에 의심이 없는 이들로서 최명길, 장유, 최석정, 정제두, 이광신, 김택수를 꼽는다. 둘째 부류는 양명학을

비난한 말이 있지만, 속으로는 양명학을 주장했던 것을 가릴 수 없는 이들로서 이광사, 이영익, 이충익을 꼽는다. 셋째는 양명학을 일언반구도 언급한 적이 없고 받드는 것은 회암에 있으며 양명을 말하지 않았지만 평생 주장의 핵심이 되는 정신을 보면 두말할 것 없이 양명학자임을 알 수 있는 이들로서 홍대용을 꼽는다.

그런데 위당의 이와 같은 분류는 조선후기의 실학자로 평가받는 홍대용을 양명학자로 분류한 데에서 보이듯 조선 양명학의 實心實學과 조선 후기 實學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게 된다. 바로 이 문제를 파고든 논문이 14년도에 발표된 한정길의 「심학(心學)과 실학(實學)의 재검토: 조선양명학의 실심실학(實心實學)과 조선 후기 실학(實學) - 위당(爲堂) 정인보(鄭寅普)의 양명학관(陽明學觀)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중심으로 - 」(『한국실학연구』 28권)이다.

15년도에 발표된 박평선의 「하곡(霞谷)의 융합철학(融合哲學)에 관한 연구(硏究) - 생리설(生理說)을 중심(中心)으로 - 」(『유학연구』 33집)는 하곡 철학의 성격과 관련한 또 다른 중요한 쟁점을 다룬 논문이다. 바로 하곡 철학의 양명학적 요소와 주자학적 요소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의 문제다. 박평선의 입장은 융합철학이라는 제목에서도 예상할 수 있듯이 하곡학을 주자학과 양명학을 융합한 사상으로 평가한다. 그리고 이 작업을 그는 생리설을 가지고 논증하겠다고 한다. 자 그러면 그의 논리를 따라가 보자.

첫째는 주자학 수용의 측면이다. "하곡의 생리설이 갖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물리에 대한 인정에 있다. 하곡은 리를 마음으로만 한정하고 있는 양명학과 달리 물리를 인정한다. 즉 마음 밖에 있는 사물들의 존재와 그 속에 있는 리 역시 하나의 리로 인정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리를 생리로 이해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물물의 리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면은 특히 마음의 범주에서만 사용하였던 양지의 개념을 물리의 영역까지 넓혀 줌으로써, 마음 본체가 물리의 영역에까지 이르고 있는 것에 잘 나타난다. …… 따라서 물리에 대한 인정은 심의 영역에만 한정되어 있던 양명학의 형이상학적 틀을 사물의 범주에까지 확대시키면서, 그 의미를 주자학적 방법론에서 찾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한 이상호의 『양명우파와 정제두의 양명학』(혜안출판사, 2008)을 인용한다.

박평선은 여기서 하곡이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주자학과 같이 물리를 인정한다는 점을 부각한다. 이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논점을 살펴야 하는데, 첫째는 양명이 심즉리를 주장하면서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는 공부를 폐기했는가 하는 것이고, 둘째는 하곡의 본의를 충실히 따른 해석인가이다. 양명이 성즉리와 달리 심즉리를 주장하자 외물의 이치를 무시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지만, 이는 비판자의 안목이지 양명이 결코 외물의 이치 탐구를 무시한 것이 아님은 『전습록』을 읽어보면 알 수 있다. 그리고 『하곡집』에서 물리는 생리와 대립적인 구도로 사용되고 있지 단독으로 물리를 논하지는 않는다. 이 두 가지를 고려한다면 박평선의 주장은 구도로는 그럴 듯하지만 각론에서는 그 지반이 튼튼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둘째는 양명학의 보완적 측면이다. "하곡은 이러한 치양지 역시 임정종욕의 폐단이 있다고 비판한다. …… 하곡은 이러한 양명학의 문제를 끊임없이 고민한 끝에 양명학의 병폐를 심과 리의 관계에 있어서 리를 물리와 생리, 그리고 진리로 나누어 봄으로써 임정종욕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했다." "정감과 욕망을 포함한 생리의 인정이다. …… 하곡

은 본성이 본래 선하기 때문에 생리 또한 본래 선하다고 한다. 다만 그 본체를 읽어버리게 되면 생리 또한 본 모습을 잃어 악하게 된다고 하여 생리 속에 진리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즉 생리는 정감과 욕망을 포함하기 때문에 임정종욕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생리 속의 진리를 선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주장 또한 늘 잘 활용되는 주장이다. 이 주장의 가장 큰 논쟁거리는 생리와 진리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다. 물론 박평선은 진리를 포함한 생리라는 개념으로 그간 생리 외의 진리 설정에 대한 비판을 누그러뜨리고는 있다. 그러나 『하곡집』 전체에서 진리의 비중과 생리의 비중을 검토한다면, 진리는 생리를 형용한 용어로 사용된 것이고 하곡 양지론의 중심은 생리 두 글자에 있다. 생리는 물리의 대척점에서 활발발한 양지를 표현하는 용어다.

양명이 심즉리라고 했을 때 이 마음은 본심이고 살아 활동하는 심이다. 사실 현실에서 과불급의 폐단을 피할 수 없는 심을 리라고 한 이상 양명의 심즉리 테제는 늘 논리적 추궁을 당하게 된다. 그럼에도 양명학은 심즉리이지, 심즉리를 버리고 성즉리로 회군하지 않았다. 동일한 맥락에서 하곡의 생리를 바라보아야 한다. 이 점을 간과하면 하곡학의 정신을 놓칠 수 있다.

셋째는 주왕융합적 측면이다. "하곡은 생리가 곧 진리는 아니지만 진리는 곧 생리가 되고, 이러한 생리 속의 진리는 기를 벗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진리의 측면에서 보면 주자학에서 말한 본연지성과 같은 개념이며, 이기일체론의 관점에서 보면 양명학에서의 양지와 같은 개념이다. 이러한 지리와 생리의 차별성은 개념상 주자학의 성정과 비슷하다. 이는 모든 이기일체론적 구조로 설명하는 양명학적 틀에 주자학

적인 심 구조를 용합한 것이라 하겠다.”

여기서 “하곡은 생리가 곧 진리는 아니지만 진리는 곧 생리가 되고”라는 말은 하곡학의 정신을 과연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공격을 받을 수 있다. 양명이 심즉리를 말하기도 하고 성즉리를 말하기도 하는 대목은 심이 아니면 성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곡집』의 맥락에 충실하자면 생리가 곧 진리가 된다고 해야 한다. 이 미묘한 관점의 차이가 사뭇 다른 길로 최종적인 평가를 인도하게 된다. 위당 정인보가 하곡의 종지를 실심실학이라고 했듯이 하곡이 양명에게서 찾아낸 양명학의 정수가 실심실학이며, 그의 실심실학을 지탱하는 개념이 생리 두 글자다.

근대 양명학을 논할 적에 빠트릴 수 없는 인물이 겸곡 박은식이다. 겸곡을 양명학자로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박은식 사상에서 양명학이 차지하는 위치는 부정할 수 없다. 박은식이 주자학 공부를 하다가 양명학을 받아들인 시기와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 김현우의 『박은식의 기독교 수용과 양지론: 영성과 양지를 중심으로』(『양명학』 42호)는 기독교와의 상관성에서 이를 탐구한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연구와 차별화를 보인다.

김현우는 박은식이 양명학으로 전환하는 시기를 논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박은식은 양지론을 중심으로 대체로 1909년부터 양명학으로 전환하였다. 한편 그의 전환에는 기독교의 영향도 있었다. 이 시기는 박은식이 상경이전에 활동했던 북삼도를 중심으로 개신교계 기독교가 급속도로 확산되었고, 또 이후 그의 전적에서 기독교와 관련된 언급이 여러 차례 나왔기 때문이다.” “박은식 양명학의 핵심은 양지를 중심으로 한 종교성 즉 영성이다. 이것은 중국 양계초의 격물치지 인식

론, 일본 다카세 타케지로의 격물치지 실천론과 비교되는 내용이다. 그가 양지를 강조한 것은 1900년도 중후반 북삼도를 중심으로 일어난 개신교 확장운동과 관련이 깊다. 이 사건은 일명 '성령운동'으로 불리는 당시 전 세계적 개신교 신앙운동의 연장으로, 박은식은 개인의 신앙적 변화가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양상을 심도 있게 목도하였다. 그는 개신교의 신앙이 쉬우면서도 개인의 회개와 자각을 강조하는 특징이 있음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는 이를 양지라는 유교 개념으로 수용하고자 하였다. 한편 이 양지는 사변성을 거부하고 평등이하의 국민도 수용하기 쉬워야 했다. 그가 초기에 양지를 왕양명의 주장이 아닌 맹자의 논지이라고 말한 것도 바로 사변성에 대한 반감이라고 할 것이다."

기존의 입장은 박은식이 주자학에서 양명학으로의 전환하는 데에는, 당시 메이지유신의 중요한 사상적 원동력이 되었던 일본 양명학에 대한 성찰이 작동했다는 점에 주목하는데, 김현우는 이른바 평양대부흥운동으로 일컬어지는 성령운동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김현우는 주장의 근거로 『왕양명실기』를 제시한다. "1910년 발행한 『왕양명실기』에서 그는 양지를 영성적 차원으로 설명하였다. 여기서 그는 기존 '양지' 개념에 생명과 변화를 추가하였다. 이를 통해 그는 현실에 올바르게 감응하는 인간상을 모색하였다. 즉 양지는 인간의 생명, 삶 및 변화의 근본적 원인으로 설명되었다. 또한 이 양지론은 기독교의 성령과도 다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양자는 모두 인간 생명의 근원이다. 또한 인간이 선악 실현의 현실적 주체라는 점도 인정하고 있다." "박은식 양명학의 중점 역시 위 두 사상가들과 달랐다. 『왕양명실기』에서 그는 다카세와는 달리 왕양명이 용장대오를 통해 깨달을 것은 바로 '양지'라고 말하고 있다. 나아가 그는 양지를 6개의 범주로

보는 새로운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 삼자의 양지론을 비교해 보면, 양계초는 주로 격물치지 즉 인식론과 중화에, 다카세의 양명학은 지행합일 즉 실천론과 국가에, 그리고 박은식은 영성과 개인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박은식의 양지와 성령은 동일한 것인가? 물론 아니다. 왜냐하면 박은식의 양지는 유학적 토대에서 나온 것이고 성령은 유일신을 신봉하는 기독교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를 김현우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박은식의 양지는 유교적 기반 하에 형성된 영성의 측면이 있다. 그러나 비록 기독교의 성령의 영향을 받았으나, 기독교의 신 즉 인격신의 개념은 부정되고 있다. 즉 리차드 도킨스의 시각처럼, 그의 양지론은 '인간은 신에 의지하지 않아도 충분히 영적인 존재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박은식의 양지론은 '인간을 자기 결정권을 가진 영적이고도 주체적인 존재 '로 인식하는 철학적 근거 '로서, 한국 전통 유교와 근대전환기 전래된 기독교를 통섭하는 철학 담론으로써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김현우는 이와 같은 주장을 전개하면서 몇 가지 자신의 전제를 제시하는데, 먼저 "물론 그가 일본 양명학에 일정한 관심을 가진 것은 겸곡문고(1900)나 학규신론(1904)의 제작 시기인 1900년대 초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이 시기 그의 관심은 '일본이 어떻게 근대화되었고, 그 과정에서 양명학은 어떤 역할을 했는가?'로 양지가 주된 논점 이 아니었다. 때문에 본 고에서는 양지를 대동교 이후 개신교의 영향을 받은 개념으로써 분석할 것이다." 이와 같은 주장은 기존 연구의 입장과 다른 맥락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 주장이 타당한 지는 추후 엄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대동교 이후 박은식의 양지는 크게 둘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개인적 영역과 민족적 영역에서의 그것이다. 『왕양명실기』에 나온 양지는 개인적이자 종교성이 강한 영역에 해당한다. 반면 『몽배금태조』(1911)의 심은 민족적 영역이자 국혼의 성격이 짙다. 이 두 가지 즉 개인적 영역과 민족적 영역, 종교적 영역과 현실적 영역은 이후에도 계속 발현되고 있다. 아마 이를 내성외왕이라는 유교적 공식에 대입하면, 전자는 내성이고 후자는 외왕의 영역일 것이다."라고 한다. 『왕양명실기』를 과연 개인적이자 종교성이 강한 영역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도 마찬가지로 검토가 필요하다.

논의의 연속선상에서, 이제부터는 『왕양명실기』의 내용을 분석한 이혜경의 「박은식의 양명학 해석: 다카세 다케지로와의 차이를 중심으로」(『철학사상』 55집)을 살펴보기로 하자. 잘 알려진 것처럼 박은식은 『왕양명실기』를 지을 적에 다카세 다케지로(高瀨武次郎)의 『王陽明詳傳』을 참고하였다. 그렇다면 다카세의 저작과 박은식의 『왕양명실기』는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이혜경은 이렇게 정리한다. "다카세는 천황에게 충성하는 신민을 양성하는 역할을 양명학에 기대하고, 양명학의 지행합일설로부터 깊이 생각하지 않는 단순한 실천력을 끌어냈다. 그리하여 그는 애국심, 문무겸비, 事功 등을 양명학의 장점으로 평가하였다. 박은식은 다카세와 달리 근대문명과 생존경쟁에 대해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가 조명한 양명학의 장점은, 변화를 받아들이고 거기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중심성과 자신감, 세상을 향해 펼쳐지는 인의의 마음, 온 마음으로 안 것을 온 몸으로 실천하겠다는 신실함 등이다."

이혜경의 설명처럼 다카세는 근대 양명학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

지하는 인물이다. "'교육칙어'가 발표된 이듬해에 이노우에 데츠지로는 '교육칙어' 해설서 勅語衍義를 간행했다. 그의 해석에 의하면, 교육칙어의 주된 뜻은 "효제충신의 덕행을 닦아 국가의 기초를 공고히 하고, '다 함께 애국'(共同愛國)하는 의로운 마음을 배양하여 불의의 변에 대비"하는 것이었다. 그는 '다 함께 애국'도 '효제충신'와 마찬가지로 커다란 德義라고 역설했다. 즉 그는 익숙한 유가적 덕인 '효제충신'과, '애국'이라는 새로운 요구를 같은 차원에서 다뤘다. 이노우에 데츠지로는 독일에서 칸트철학을 전공하고 돌아와, 메이지 초기 일본의 서양철학사가 칸트 중심으로 서술되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지만, 또 한편에서 德育 양성을 위해 양명학을 현창한다. …… 국민적 도덕심을 양성하는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 양명학을 조명하는 일은 동경제국대학 漢學科를 졸업하고 이후 지나학과에서 중국철학 을 다룬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을 다카세 다케지로에 의해 본격적으로 수행된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서 데츠지로 양명학이 지향하는 지점을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

'박은식의 양명학 평가' 장에서는 데츠지로와 다른 박은식의 양명학관을 설명하기 위한 방법론을 서술한다. "박은식의 『왕양명선생실기』는 다카세의 『왕양명상전』과 형식상으로도 닮았고, 박은식 자신이 다카세의 책을 참고했음을 밝히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두 책은 핵심적인 부분에서 갈라진다. 최소한 박은식은 애국과 충군에 양명학을 가두지 않았다. 이 두 책의 차이를 보기 위해, 왕양명에 대한 소개와 양명학에 대해 서술을 검토함으로써 각각의 편집자 의도를 읽어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보다 쉽고 분명하게 두 편집자의 의도를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다카세의 책은 각 절 끝에 「결론」을 넣어 직접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드러냈고, 박은식은 「안」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박은식의 「안」은 많은 경우 자신이 처해있는 상황에서 느끼는 절실한 소회를 드러내고 있다."

이혜경은 박은식의 「안」을 분석하고 다음 몇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박은식은 양명학의 주관성을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했다. 박은식은 고정되어 있는 원칙이 아니라, 양지를 진리의 시금석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양명학이 격변의 시대에 적절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둘째, "박은식의 특징이 드러나는 시의적절함에 대한 평가는 양명의 '事上磨鍊'에 대한 열성적 해석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 양지는 실제 일에서 갈고 닦는 것이므로 '선불교의 頓悟'와는 당연히 다르다. 그러므로 이 길은 '간이진절'하지만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님도 강조된다. 양명 자신이 '오랫동안 여러 일에서 검증하고 실천하여 비로소 홀연히 양지를 깨달았다. 비록 매우 쉽고 간편하나 마음은 홀로 고통스러웠다'고 한다." 셋째, "박은식은 '근대 문명세계의 교육이 유희와 연극을 보조 수단으로 삼는 것이' 양명의 뜻에 부합한다고 감탄한다. 또 음악도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인데 고루한 인사들이 그 변화를 알지 못하고, '옛 음악이 없는 것만 탄식하면서 지금 음악의 실용을 구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한다. 인간의 감성적인 부분에 대한 관심과 함께 변화하는 시대에 열려있는 정신, 박은식은 양명학에서 그것을 본 것이다." 넷째, "양명학의 근대적합성에 대한 박은식의 독자적 평가는 생존경쟁으로 다가온 근대문명에 대한 비판적 태도와 관련된다. …… 박은식이 양명학에서 발견한 것은 근대에 적합한 '시의적절함'뿐만이 아니었다. 근대는 이성을 가진 개인, 자연에 대한 지식을 확대해가는 개인의 존재를 발견하고 인정한 시대였다. 그러나 그 근대는 그 해방의 욕

망을 위해 개인을 전쟁터로 내몰고, 자신의 해방을 위해 타인의 희생을 요구하는 폭력적인 것이었다. 박은식은 그 근대가 무조건의 가치가 아님을 곧 깨달았다. 그리고 인간이, 인간의 마음이 최후의 가치이고 최후의 의지처임을 양명학을 통해 확인했다. '발본색원'은 인간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전제한다. 박은식이 앞으로 어떤 길을 걷든, 그 길은 다시 인간의 본원으로 돌아가, 무엇이 과연 인간으로서 가야할 길인지 고민한 결과일 것이다."

이혜경의 이러한 입장에 대하여 김현우는 본인의 논문 각주에서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이혜경은 박은식의 양지론은 다카세와는 달리 '애국'이나 '충군'이라는 개념이 없다고 분석하였다. 일변 타당한 지적이나, 좀 더 추론해 보면 다카세 『王陽明詳傳』의 핵심키워드는 良知가 아닌 知行合一이었다. 이는 다카세가 이론보다는 현실을 보다 강조한 까닭이다. 반면 박은식은 다카세보다는 인간 내면의 양상을 중시했기에 양지로부터 출발하였고, 당연히 여기에는 애국이나 충군이 빠져있게 마련이다. 하지만 박은식에게서도 양지가 현실 속에서 구체적으로 발현하면 당연히 애국과 충군으로 나타나므로 그의 철학에서 애국이나 충군같은 민족주의적 요소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동일한 『왕양명실기』을 독해하면서 각자의 주안점에 따라 다르게 읽힌다는 평범한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이혜경은 다카세의 국가주의적, 군국주의적 양명학 독해와 차별화된 박은식의 양명학관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김현우는 『왕양명실기』에서 개인적이자 종교성이 강한 양지에 주목하였다.

한국 양명학 연구를 할 적에 필독서 중의 하나가 이능화의 『朝鮮儒界之陽明學派』라는 책자다. 이능화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우진의 『이능화의 한국 양명학 연구』(『양명학』 42호)는 학계의 기대해 충분히 부응하는 좋은 논문이다.

이능화에 대한 평가는 의견이 분분하다. "그는 친일파인가, 아니면 민족주의자인가? 한편에서는 그가 일제의 조선사 편수에 참여하여 민족사를 왜곡하고 식민사학을 확립하는 선봉에 선 친일파였다고 평가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그가 조선사 편찬에 참여하면서 '발해사 의 한국사로의 편입, 건국신화 포함' 등의 활동을 근거로 일제의 한국사 왜곡을 저지하면서 한국의 역사를 올바르게 정리하고, 나아가 희귀한 사료와 전적도 손쉽게 섭렵하고자 하는 기회를 획득하여 민족정신의 계몽에 앞장선 민족주의자였다고 이해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주자학과 양명학에 대한 이능화의 입장은 어떤가? 먼저 주자학에 대한 이능화의 입장을 살펴보자. "이능화는 조선 주자학이 보여주고 있는 형식과 정신의 폐쇄적이고 획일적인 측면에만 비판의 날을 세운 것이 아니다. 더 나아가 서민의식 부족 · 적서차별 의식 · 지나친 모화사상(慕華思想) 등을 통해서도 조선 주자학을 신랄히 비난 하였다. 그는 '근대지향적 사고 '의 바탕에서 조선 주자학을 비판한 것이었다. 특히 이능화는 사대주의 쇄국정책을 고수하도록 하여 세계의 낙오자가 되게 하고 시대에 뒤떨어지도록 했던 근본 원인을 '조선의 폐쇄적인 주자학 제일주의'로 바라보았던 것이다. 그는 이것이 당쟁을 일으켰으며 사상의 자유를 속박 하고 서양의 종교나 문물을 배척케 하여, 우수한 능력을 가진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막아버리게 했던 것이라 파악한다."

다음으로 양명학에 대한 이능화의 입장을 살펴보자. "이능화가 양명학을 시대변혁의 방향에 새로운 가능성을 지닌 사상으로 파악한 것

은 결코 부정할 수 없다. 양명학에 대한 이와 같은 인식은 '20세기 초 사회변동과 더불어 유교전통이 심각한 변화의 진통을 겪는 과정에서 양명학이 변혁의 방향에 새로운 가능성으로 크게 주목한 많은 지식인들의 입장'과 괘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능화의 『朝鮮儒界之陽明學派』의 특징을 몇 가지 나열하면, "먼저 이능화는 南彦經을 조선 최초의 양명학자라고 주장하였다. 정인보가 최명길과 장유를 조선 최초의 양명학자로 보는데 비해, 이능화는 서경덕의 문인인 '남언경 '을 '조선 최초의 양명학자 '로 들고 있었다. 특히 이러한 이능화의 '설 (說)=개념 설정 '은 현재까지 양명학 연구에서 거의 그대로 답습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또한 이능화는 한국의 양명학 전래시기를 1567년 전후 즉 明宗末에서 宣祖初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이능화의 견해는 이후 다카하시 도오루(高橋亨)와 유명종에게도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점은 이 저작이 후대의 연구에 주용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정인보의 『양명학연론』과 마찬가지로, 이능화의 『조선유계지양명학파』 에 나타난 양명학 연구 시각이나 자료 수집의 폭은 이후 연구자들에게 중요한 기초를 제공하였다고 평가되고 있다. 곧 이능화가 구축한 '한국 양명학 연구 '는 다카하시 도오루 (高橋亨)를 비롯하여 윤남한, 유명종 등과 같은 해방 이후의 한국 양명학 연구자들의 토대로서 작동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능화의 본 저작은 어떤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가? "이는 『조선유계지양명학파』에서 조선 주자학과 관련하여 집중적으로 표현되는 '事大主義'와 '黨爭'이라는 두 용어에서 그 면모를 확인 할 수 있다. '사대주의'는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볼 때 독립적 · 자율적이기보다

는 큰 나라에 붙어 생존을 유지해왔다고 하는 식민사학자들의 왜곡된 용어이다. 결국 언제나 의존적인 우리 민족을 일제가 식민지배하는 것을 올바른 것이라고 정당화하는 입장인 것이다. 그리고 '당쟁'은 조선의 붕당간의 대립을 일제 식민사학자들이 왜곡하고 과장한 말로서, 우리 민족의 성향이 본래 분열성이 강하여 자기네들의 목적을 위해 파벌을 만들어 정쟁하다 결국 조선이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조선유계지양명학파』는 이러한 '사대주의'와 '당쟁'이 그 구조적 뼈대를 이루고 있다. …… 이능화는 한국 양명학을 정리함에 있어서, 식민사학에서 주로 이용하는 정치적 대결의 틀로서 정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논문은 김숙필의 『秋史 金正喜 '性靈論'의 陽明心學的 의의』(『양명학』 42호)이다. 양명학은 주자학에 비하여 주체와 정감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런 측면은 명대의 이른바 문예론인 성령론으로 전개되었는데, 이숙필은 성령론을 가지고 추사의 예술세계를 조망하면서 양명심학과 추사를 연결시킨다. 바로 이 점에 본 논문의 특색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김숙필은 "추사의 미학사상은 밖으로는 주자학과 안으로의 양명학이 합일을 이루는 외주내왕적 합일이라는 논리가 도출된다."고 한다. 이런 주장이 학계의 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논거가 제시되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겠지만, 추사의 예술정신을 양명학과 연결시키는 본 논문의 시도는 연구 영역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연구라고 할 수 있다.

4. 평가와 전망주요 논문 분석 및 비평

15년도에 발표된 12편이라는 편수는 전년도에 비하여 증가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많지 않은 편수이고, 그 중 눈에 띄는 몇 편은 주제가 참신하고 학계의 수요에 일정 정도 부응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수작이라고 평가하기에는 다소 미흡하다는 판단이다.

사실 1년 동안 중요 학술지에 게재된 한국양명학 연구 논문 편수가 12편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은 조선유학사에서 차지하는 양명학의 비중을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논문들이 다루고 있는 연구 대상이 소위 강화양명학파에 집중된 것에서도 여실히 알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조선양명학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역시 새로운 양명학자의 발굴과 주제들을 탐색하여 논의의 장을 확대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물론 가장 큰 걸림돌인 문헌의 제약을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라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가령 조선시대 유학자 중에 양명학적 특색을 가지고 있지만 그의 전체 사상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자면 양명학자로 규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든지, 양명학적 색채가 농후하지만 문헌이 실전되어 본격적인 연구가 불가능한 경우 등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중요 논문 비평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김용재의 「조선시대 反양명학 문헌 조사 및 추출을 통한 양명학 비판 내용의 성향 분석과 反양명학 사조의 흐름에 나타난 특징 연구[2]」(『양명학』 40호)와 같은 연구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제7장

한국 실학 연구

허종은

1. 머리말

이 보고서는 "2015년도 한국 학계의 유교 연구 성과 분석과 전망"의 한 부분으로, 2015년도 한 해 동안 국내 학술지에 발표된 학술 논문 및 박사학위논문을 포함하여 '한국실학' 관련 연구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2015년 한 해 동안 발표된 한국실학 관련 논문의 목록을 수집하여 인물별, 주제별로 분류하고, 그 중 주요한 논문 몇 편에 대한 설명과 비평을 하면서 향후 전망에 대하여 간략하게 언급하겠다. 논문 색인은 한국연구재단에 등록된 학술지에 발표된 것으로 한정하였으며, RISS(학술연구정보서비스) 등 데이터베이스(DB)로 제공하는 검색 기능을 사용하였다.

2015년도 국내 주요 학술지에 게재된 한국실학 관련 논문은 약 45편, 박사학위논문이 약 5편으로 전체 약 50편이 검색되었다. 전체 논문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분류 방식에 따라 나누어보았다. 첫째 인물별 분류, 둘째 주제별 분류이다. 인물별 분류에서는 성호학파, 북학파, 실학의 집대성자로 알려진 정약용 · 최한기, 기타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주제별 분류에서는 첫째 경학, 둘째 철학, 셋째 정치 및 경제, 넷째 서학 및 과학, 다섯째 기타로 분류하였다.

2. 인물별 분류

한국실학 관련 논문들을 학파별로 분류하면, 성호학파 2편, 북학파 5편, 다산 관련 26편, 혜강 관련 0편, 심대윤을 비롯한 기타 인물과 주제에 대한 것이 17편이다. 다산 관련 논문이 가장 많고, 북학파와 성호학파에 대한 연구는 줄어들었고, 혜강에 관한 논문은 없으며, 심대윤 등의 기타 인물과 언어 · 문자를 비롯한 특별한 주제에 대한 것이 많은 편이다.

1) 성호학파(星湖學派)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황병기	성호학파(星湖學派)의 주역 상수학설(象數學說) 연구 이익: 신후담 정약용의 역상설(易象說)을 중심으로	『다산학』 26	다산학술문화재단
2	서근식	성호학파(星湖學派)에서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 역학(易學)의 성립과정(1) - 성호(星湖) 이익(李瀷)의 『역경질서(易經疾書)』에 나타난 『주역(周易)』해석(解釋) 방법(方法) -	『한국철학논집』 44	한국철학사연구회

성호나 성호학파를 다룬 논문이 2편이며, 모두 역학(易學)을 연구한 글이다. 하나는 이익 · 신후담, 그리고 정약용의 역상설(易象說)을 연구하여 『주역(周易)』 중에서 상수학(象數學)과 관련한 논문이다. 다른 하나는 이익(李瀷)의 『주역』 해석 방법을 다룬 논문으로, 정약용 역학의 성립과정을 탐구하는 관점에서 시도된 것이다.

2) 북학파(北學派)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신정근	홍대용(洪大容)의 범애(汎愛)의미 연구	『동양철학연구』 82	동양철학연구회
2	이학당	李德懋의 유가(儒家) 동몽교육(童蒙教育) 사상(思想)에 관한 연구(研究)	『한국실학연구』29	한국실학학회
3	조성산	18세기 후반~19세기 전반 연암그룹 지식인들의 천(天) 인식	『대동문화연구』90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4	이춘희	湛軒 洪大容의 『醫山問答』 研究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5	이지선	은유교육연구–박지원의 『호질』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북학파를 다룬 논문은 5편이며, 이 중에서 홍대용 2편, 박지원 1편, 이덕무 1편, 연암그룹에 관한 것이 1편이다. 박사학위논문의 경우 홍대용과 박지원에 관한 것이 각각 1편이다. 대체로 북학파에 관한 연구가 저조한 편이다.

3) 정약용(丁若鏞)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장동우	다산(茶山) 『상의절요(喪儀節要)』의(義) 연원(淵源)과 재성문화(再成文化)의 원칙(原則)	『한국실학연구』 30	한국실학학회
2	방인	우번(虞飜)의 괘변설(卦變說)과 정약용(丁若鏞)의 추이설(推移說)의 비교	『다산학』 27	다산학술문화재단
3	이숙희	욕망과 염치로서의 정약용의 심성: 성기호설의"낙선치악樂善恥惡"에 대한 연구	『다산학』 27	다산학술문화재단
4	주월금	《孟子要義》與《孟子字義疏證》: 丁茶山與戴震的人性論比較	『다산학』 27	다산학술문화재단
5	조성을	『사암선생연보(俟菴先生年譜)』의 문헌학적 검토	『다산학』 27	다산학술문화재단
6	노지현	정약용(1762~1836)의 고문상서 비판	『다산학』 27	다산학술문화재단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7	방인	다산역의 천명관: 청명(請命), 품명(稟命), 순명(順命)	『다산학』 27	다산학술문화재단
8	정길웅	다산 『역』학과 예학의 관계에 대한 연구	『다산학』 26	다산학술문화재단
9	임충군	다산의 한대(漢代) 상수역학(象數易學)에 대한 검토와 평가	『다산학』 26	다산학술문화재단
10	임재규	괘변설의 변천과정에서 본 다산의 추이론	『다산학』 26	다산학술문화재단
11	이창일	다산 효변설의 역학사적 검토	『다산학』 26	다산학술문화재단
12	김영우	다산 정약용의 내지덕 역학 비판	『다산학』 26	다산학술문화재단
13	이난숙	다산의 정현(鄭玄) 역학 비판	『다산학』 26	다산학술문화재단
14	장수, 방호범	창조, 특색, 의의: 다산학에 대한 재조명과 추진	『다산학』 26	다산학술문화재단
15	이행훈	다산 정약용의 심성론: 인심도심의 재해석과 성기호설	『동양철학연구』 84	동양철학연구회
16	이영경	정약용(丁若鏞)의 정의론(正義論)	『유교사상문화연구』 61	한국유교학회
17	정소이	다산 정약용의 윤리론에서 최종 결정권은 어디에 있는가? : 이성과 감정 사이에서	『유교사상문화연구』 62	한국유교학회
18	김문식	정조대 정약용의 경학 연구 방법	『진단학보』 124	진단학회
19	백민정	정약용의 경학 저술에 나타난 '덕(德)' 개념의 철학적 의미와 쟁점 : 현대 서양 덕 윤리학[virtue ethics]의 논쟁과 관련하여	『진단학보』 124	진단학회
20	노경희	일제강점기 일본인 제작 다산 저술의 필사본과 신식활자본	『진단학보』 124	진단학회
21	김보름	『여유당집(與猶堂集)』에서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로 : "전서 초본" 의 재검토를 중심으로	『진단학보』 124	진단학회
22	정대영	다산(茶山)의 '신론(神論)'과 '심학(心學)'의 관계성 연구	『철학연구』 134	대한철학회
23	정일균	동아시아의 관점에서 재조명한 다산의 사서학	『한국사상사학』 51	한국사상사학회
24	김광수	다산 정약용의 상수학적 역학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25	이상아	다산 정약용의 『제례고정』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26	이진정	다산 정약용의 『아언각비』 연구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정약용을 다룬 연구가 26편으로 가장 많은데, 이것은 『다산학』이라는 학술지가 독자적으로 있는 것에도 기인한다. 그리고 박사학위논문의 경우도 정약용에 관한 연구가 3편으로 다른 사상가에 비해 많은 편이다. 이 중에서 경학 분야 14편, 철학 7편, 기타 분야 논문이 5편이다. 철학과 경학을 중심으로 하는 다산의 사상을 다룬 논문이 많은 점이 특징이다.

4) 기타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이상혁	특집: 조선후기 언어(言語).문자(文字) 연구와 지식 교류 : 조선후기 훈민정음의 유통과 담론의 양상	『한국실학연구』 29	한국실학학회
2	신용권	조선후기 언어(言語).문자(文字) 연구와 지식 교류 : 조선 후기의 한어(漢語)학습서와 훈민정음의 사용	『한국실학연구』 29	한국실학학회
3	정승혜	특집: 조선후기 언어(言語).문자(文字) 연구와 지식 교류 : 조선후기 조일(朝日) 양국(兩國)의 언어 학습과 문자에 대한 인식	『한국실학연구』 29	한국실학학회
4	양원석	특집: 조선후기 언어(言語).문자(文字) 연구와 지식 교류 : 소학(小學)과 『설문해자(說文解字)』 연구를 통해 본 조선 후기 한자학(漢字學)	『한국실학연구』 29	한국실학학회
5	정순우	정조(正祖)의 통치이념에 깃든 순자적(荀子的) 사유(思惟)	『한국실학연구』 29	한국실학학회
6	박권수	여암 신경준의 과학사상	『한국실학연구』 29	한국실학학회
7	임형택	특집 1: 백운 심대윤의 문학과 사상 : 심대윤의 공리주의적 사상과 경세론	『한국실학연구』 30	한국실학학회
8	송혁기	특집 1: 백운 심대윤의 문학과 사상 : 심대윤(沈大允) 산문(散文)의 의론성(議論性) 일고(一考)	『한국실학연구』 30	한국실학학회
9	손혜리	특집 1: 백운 심대윤의 문학과 사상 : 심대윤(沈大允)의 남정록(南征錄) 연구	『한국실학연구』 30	한국실학학회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0	김하라	특집 1: 백운 심대윤의 문학과 사상 : 심대윤(沈大允)의 자기서사-노동하는 양반의 정체성과 자기 해명	『한국실학연구』 30	한국실학학회
11	장병한	특집 1: 백운 심대윤의 문학과 사상 : 심대윤의 『예기정해(禮記正解)』에 대한 연구 -19세기 양명학적(陽明學的) 예학론(禮學論)의 한 특징(特徵) 파악(把握)을 中心으로	『한국실학연구』 30	한국실학학회
12	함영대	특집 1: 백운 심대윤의 문학과 사상 : 백운 심대윤의 학자적 자의식과 경전해석의 일 국면 -백운집과 논어 해석의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실학연구』 30	한국실학학회
13	김양진, 신상현	조선 지식인들의 청대(淸代) 만주어(滿洲語) 수용 연구	『한국실학연구』 30	한국실학학회
14	김준태	동고(東皐) 이준경(李浚慶)의 국정운영론(國政運營論) 연구(硏究)	『동양철학』 43	한국동양철학회
15	조현범	조선 후기 유학자들의 서학 인식: 종교/과학 구분론에 대한 재검토	『한국사상사학』 50	한국사상사학회
16	정호훈	20세기 후반 미국에서의 실학 연구 : 제임스 팔레의 「반계수록」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168	한국사연구회
17	이형성	반계(磻溪) 유형원(柳馨遠)의 저술 재검토와 후학의 관련 자료 고찰	『한국사상과 문화』 79	한국사사문화학회

기타로 분류한 인물과 주제에 대한 논문이 17편이다. 이 중에서 심대윤의 문학과 사상에 관한 특집 논문이 6편이며, 조선후기 언어 · 문자 연구와 지식 교류라는 주제로 4편의 논문이 『한국실학연구』에 특집으로 실린 점이 주목된다.

2. 주제별 분류

그리고 주제별로 분류하면, 경학 관련 논문이 17편, 철학 분야가 13편, 정치와 경제 분야가 2편, 서학과 과학사상 분야가 2편, 기타 분야로 심대윤을 다룬 6편의 논문과 조선후기 언어 · 문자 특집을 다룬 4편 등을 합쳐 16편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점은 주목할 만하다. 올해에도 경학과 철학 분야 논문이 여전히 많은 편으로, 이는 한국실학에 관한 연구가 이론적인 측면에 치중한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1) 경학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황병기	성호학파(星湖學派)의 주역 상수학설(象數學說) 연구 이익: 신후담 정약용의 역상설(易象說)을 중심으로	『다산학』 26	다산학술문화재단
2	서근식	성호학파(星湖學派)에서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 역학(易學)의 성립과정(1) –성호(星湖) 이익(李瀷)의 『역경질서(易經疾書)』에 나타난 『주역(周易)』해석(解釋) 방법(方法)–	『한국철학논집』 44	한국철학사연구회
3	장동우	다산(茶山) 『상의절요(喪儀節要)』의(義) 연원(淵源)과 재성문화(再成文化)의 원칙(原則)	『한국실학연구』 30	한국실학학회
4	방인	우번(虞翻)의 괘변설(卦變說)과 정약용(丁若鏞)의 추이설(推移說)의 비교	『다산학』 27	다산학술문화재단
5	노지현	정약용(1762~1836)의 고문상서 비판	『다산학』 27	다산학술문화재단
6	정길웅	다산 『역』학과 예학의 관계에 대한 연구	『다산학』 26	다산학술문화재단
7	임충군	다산의 한대(漢代) 상수역학(象數易學)에 대한 검토와 평가	『다산학』 26	다산학술문화재단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8	임재규	괘변설의 변천과정에서 본 다산의 추이론	『다산학』 26	다산학술문화재단
9	이창일	다산 효변설의 역학사적 검토	『다산학』 26	다산학술문화재단
10	김영우	다산 정약용의 내지덕 역학 비판	『다산학』 26	다산학술문화재단
11	이난숙	다산의 정현(鄭玄) 역학 비판	『다산학』 26	다산학술문화재단
12	김문식	정조대 정약용의 경학 연구 방법	『진단학보』 124	진단학회
13	정일균	동아시아 관점에서 재조명한 다산의 사서학	『한국사상사학』 51	한국사상사학회
14	장병한	특집 1: 백운 심대윤의 문학과 사상 : 심대윤의 『예기정해(禮記正解)』에 대한 연구 –19세기 양명학적(陽明學的) 예학론(禮學論)의 한 특징(特徵) 파악(把握)을 中心으로	『한국실학연구』 30	한국실학학회
15	함영대	특집 1: 백운 심대윤의 문학과 사상 : 백운 심대윤의 학자적 자의식과 경전해석의 일국면 –백운집과 논어 해석의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실학연구』 30	한국실학학회
16	김광수	다산 정약용의 상수학적 역학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17	이상아	다산 정약용의 『제례고정』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경학을 다룬 논문은 총 17편인데, 그 중에서 역학(易學)을 다룬 논문이 10편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 중에서 성호학파와 정약용의 역학의 관련성을 연구한 2편의 논문은 학파의 연속성 문제를 역학을 통하여 논의한 점이 주목된다. 나머지 논문은 심대윤의 예학(禮學)과 『논어(論語)』에 관한 2편을 제외하면 모두 정약용의 경학에 관한 논문이다. 특히 『제례고정(祭禮考定)』이 번역된 점은 그 동안 부족했던 정약용의 예학(禮學)에 대한 연구를 한층 심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정약용의 경학에 관한 논문이 이렇게 지속적이면서도 광범위하게 연구된다는 것은 정약용이 조선시대 실학을 대표하는 인물로 그의 학문적인 성과가 총체적으로 밝혀질 수 있는 계기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2) 철학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신정근	홍대용(洪大容)의 범애(汎愛)의미 연구	『동양철학연구』 82	동양철학연구회
2	이학당	李德懋의 유가(儒家) 동몽교육(童蒙敎育) 사상(思想)에 관한 연구(硏究)	『한국실학연구』 29	한국실학학회
3	조성산	18세기 후반~19세기 전반 연암그룹 지식인들의 천(天) 인식	『대동문화연구』 90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4	이숙희	욕망과 염치로서의 정약용의 심성: 성기호설의"낙선치악樂善恥惡"에 대한 연구	『다산학』 27	다산학술문화재단
5	주월금	《孟子要義》與《孟子字義疏證》: 丁茶山與戴震的人性論比較	『다산학』 27	다산학술문화재단
6	방인	다산역의 천명관: 청명(請命), 품명(稟命), 순명(順命)	『다산학』 27	다산학술문화재단
7	이행훈	다산 정약용의 심성론: 인심도심의 재해석과 성기호설	『동양철학연구』 84	동양철학연구회
8	이영경	정약용(丁若鏞)의 정의론(正義論)	『유교사상문화연구』 61	한국유교학회
9	정소이	다산 정약용의 윤리론에서 최종 결정권은 어디에 있는가? : 이성과 감정 사이에서	『유교사상문화연구』 62	한국유교학회
10	백민정	정약용의 경학 저술에 나타난 '덕(德)' 개념의 철학적 의미와 쟁점 : 현대 서양 덕 윤리학[virtue ethics]의 논쟁과 관련하여	『진단학보』 124	진단학회
11	정대영	다산(茶山)의 '신론(神論)'과 '심학(心學)'의 관계성 연구	『철학연구』 134	대한철학회
12	정순우	정조(正祖)의 통치이념에 깃든 순자적(荀子的) 사유(思惟)	『한국실학연구』 29	한국실학학회
13	이춘희	湛軒 洪大容의 『毉山問答』 硏究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철학을 다룬 논문은 총 13편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적은 편이다.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정약용의 심성론에 관한 논문이 7편으로 압도적이다. 이 중에서 정약용의 성기호설, 그것과 인심도심설을 비교한 논문이 2편, 윤리 문제를 중점으로 다룬 논문이 3편, 청나라 학자인 대진(戴震)과 비교한 논문과 신론(神論)과 심론(心論)의 관계를 다

룬 논문, 천명관(天命觀)을 다룬 논문이 각각 1편씩이다. 그리고 북학파의 사상을 다룬 논문이 3편이고, 순자(荀子)를 정조의 통치이념과 관련하여 연구한 특이한 논문이 1편이다.

3) 정치 · 경제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임형택	특집 1: 백운 심대윤의 문학과 사상: 심대윤의 공리주의적 사상과 경세론	『한국실학연구』 30	한국실학학회
2	김준태	동고(東皐) 이준경(李浚慶)의 국정운영론(國政運營論) 연구(硏究)	『동양철학』 43	한국동양철학회

정치 · 경제 분야에 관한 연구는 2편뿐이다. 앞으로 이 분야에 관한 연구도 기대해야 할 것이다.

4) 서학 및 과학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박권수	여암 신경준의 과학사상	『한국실학연구』 29	한국실학학회
2	조현범	조선 후기 유학자들의 서학 인식: 종교/과학 구분론에 대한 재검토	『한국사상사학』 50	한국사상사학회

조선후기 실학파의 성립에는 중국에서 수용된 서학 및 중세유럽과학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는데, 이에 대한 연구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며, 이번에도 2편이 발표되었다. 개별 학자의 과학사상이 1편이고, 전체적인 시각에서 조선후기 유학자들의 종교와 과학을 분리하려는 서학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논문이 1편이다.

5) 기타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조성을	『사암선생연보(俟菴先生年譜)』의 문헌학적 검토	『다산학』 27	다산학술문화재단
2	장수, 방호범	창조, 특색, 의의: 다산학에 대한 재조명과 추진	『다산학』 26	다산학술문화재단
3	이상혁	특집: 조선후기 언어(言語).문자(文字) 연구와 지식 교류 : 조선후기 훈민정음의 유통과 담론의 양상	『한국실학연구』 29	한국실학학회
4	신용권	조선후기 언어(言語).문자(文字) 연구와 지식 교류 : 조선 후기의 한어(漢語)학습서와 훈민정음의 사용	『한국실학연구』 29	한국실학학회
5	정승혜	특집: 조선후기 언어(言語).문자(文字) 연구와 지식 교류 : 조선후기 조일(朝日) 양국(兩國)의 언어 학습과 문자에 대한 인식	『한국실학연구』 29	한국실학학회
6	양원석	특집: 조선후기 언어(言語).문자(文字) 연구와 지식 교류: 소학(小學)과 『설문해자(說文解字)』 연구를 통해 본 조선 후기 한자학(漢字學)	『한국실학연구』 29	한국실학학회
7	송혁기	특집 1: 백운 심대윤의 문학과 사상: 심대윤(沈大允) 산문(散文)의 의론성(議論性) 일고(一考)	『한국실학연구』 30	한국실학학회
8	손혜리	특집 1: 백운 심대윤의 문학과 사상: 심대윤(沈大允)의 남정록(南征錄) 연구	『한국실학연구』 30	한국실학학회
9	김하라	특집 1: 백운 심대윤의 문학과 사상: 심대윤(沈大允)의 자기서사-노동하는 양반의 정체성과 자기 해명	『한국실학연구』 30	한국실학학회
10	김양진, 신상현	조선 지식인들의 청대(淸代) 만주어(滿洲語) 수용 연구	『한국실학연구』 30	한국실학학회
11	정호훈	20세기 후반 미국에서의 실학 연구: 제임스 팔레의 「반계수록」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168	한국사연구회
12	이형성	반계(磻溪) 유형원(柳馨遠)의 저술 재검토와 후학의 관련 자료 고찰	『한국사상과 문화』 79	한국사사문화학회
13	노경희	일제강점기 일본인 제작 다산 저술의 필사본과 신식활자본	『진단학보』 124	진단학회
14	김보름	『여유당집(與猶堂集)』에서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로: "전서 초본" 의 재검토를 중심으로	『진단학보』 124	진단학회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5	이지선	은유교육연구–박지원의 『호질』 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16	이진정	다산 정약용의 『아언각비』 연구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기타로 분류한 논문이 16편으로 이번 논문들은 크게 4가지의 특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조선후기 언어 · 문자 연구와 지식 교류 및 청대 만주어 수용 문제를 다룬 주제의 논문이 5편이다. 둘째, 심대윤의 문학과 사상에 관한 논문이 3편이다. 셋째, 다산 문집을 검토한 논문이 3편이며, 마지막으로 유형원의 『반계수록』과 저술을 검토한 논문이 2편이 연구되었다. 이는 한국실학에 관한 연구 범위를 깊이 있고, 폭넓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점이다.

3. 주요 논문 분석 및 비평

이 논문 중에서 『한국실학연구』에는 2015년에 실학에 관한 세 가지 특집을 기획하였는데, 그 중에서 두 가지 점이 두드러진다. 29권에서는 '조선후기 언어 · 문자 연구와 지식 교류'라는 주제로 4편의 논문을 게재하였고, 30권에서는 '조선시대 『가례』 연구와 실학'이라는 주제로 4편의 논문을 게재하였고, '백운 심대윤의 문학과 사상'이라는 주제로 6편 등의 흥미로운 논문을 게재한 점이 특징이다.

여기서는 『한국실학연구』 30권에 실린 '백운 심대윤의 문학과 사상'이라는 주제의 논문을 주목해보자. 심대윤(沈大允, 1806 – 1872)은

조선말기인 19세기에 상업으로 생계를 이어가면서 학문에 주력한 인물이다. 「심대윤의 공리주의적 사상과 경세론」에서 임형택은 심대윤이 수립한 복리(福利)사상의 핵심은 이(利)와 욕(欲)에 있었으며, 성리학에서 주장한 것과는 다르다고 보았다. 그리고 심대윤은 이익추구에 빠진 인간 사회를 바로잡고 균형을 취하기 위해 공(公)개념을 도입해서 공공성을 중요시하였다고 강조하였다. 그래서 그의 복리사상은 현대적인 관점에서는 공리주의로 볼 수 있다고 진단하였다.

송혁기는 「심대윤 산문의 의론성 일고」에서 심대윤이 글을 쓰는 이유를 복리(福利)사상을 전하고자 하는 데 있었다고 전제하였다. 심대윤의 글쓰기 특징은 당장 세상을 바꿀 수 없다고 하더라도 글로 남겨야 언젠가 실현될 수 있으리라는 신념과 사명감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대중과 눈높이를 맞추어 설득하기 위한 글쓰기를 시도한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손혜리는 「심대윤의 남정록 연구」에서 『남정록(南征錄)』은 1755년 을해옥사에 연좌되어 유배지에서 죽은 심대윤의 증조모와 조부, 대고모 세 분의 유골을 선영으로 반장(返葬)하기 위해 1841년 10월 4일부터 다음해 4월 1일에 이르기까지 6개월에 걸친 여정을 기록한 저술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이 문헌은 심대윤 가문의 처절한 비극이 오롯이 수록되어 있는 고뇌의 독백이라고 여겼다. 심대윤은 이 글에서 반장을 통해 가족사의 비극을 치유하고 극복하고자 하고, 아울러 그 과정을 자세하게 기록하여 자손들에게 가문 재건에 대한 굳은 의지를 표출함으로써 소론 명문가의 후예로서 자부심과 사명감을 심어주고자 하였다고 평가하였다.

김하라는 「심대윤의 자기서사 - 노동하는 양반의 정체성과 자기

해명」이라는 글에서 『동구자자해(東邱子自解)』에서는 폐족의 후예로 극빈의 처지에 있으면서도 사(士)의 본분과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날카롭게 유지하고 있던 30세 무렵 심대윤의 사대부로서의 면모를 포착할 수 있다고 소개하였다. 그리고 마흔 살을 앞둔 1843년 제자 유영건(柳榮建)에게 쓴 편지인 『여유군하원서(與柳君夏元書)』에서 양반사대부로서의 체면을 포기하고 본격적으로 상업에 뛰어들었던 자신의 28세 때 이래의 경험에 대해 비로소 진솔하게 밝히고 있는데, 이를 통하여 양반의 육체노동에 대한 진일보한 생각을 엿볼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장병한은 「심대윤의 『예기정해(禮記正解)』에 대한 연구 - 19세기 양명학적 예학론(禮學論)의 한 특징 파악을 중심으로 - 」에서 심대윤은 당시의 위기 국면을 타개하는 방안으로 기존에 숭앙(崇仰)되어 온 『예기(禮記)』와 전통적인 이전의 예학 체계에 대한 변통을 시도하였다고 보고, 그런 과정에서 기존의 정주학적 예학에 대한 비판과 해체를 통해 새로운 예학을 제안하였다고 평가하였다.

「백운 심대윤의 학자적 자의식과 경전해석의 일 국면 - 백운집과 논어 해석의 자료를 중심으로 - 」에서 함영대는 심대윤의 시를 통해 볼 때, 가정적 불운과 사회적으로 가난한 형편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삶을 긍정하고 도를 자임하면서 유학자로서의 길을 묵묵히 가고자 했다고 풀이하였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해 터득한 인정(人情)과 사리(事理)에 기초하여 많은 경전들을 해석하려고 하였다고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주목되는 연구는 정약용의 역학에 미친 성호학파의 영향에 대한 2편의 논문이다. 「성호학파(星湖學派)에서 다산(茶山) 정약용

(丁若鏞) 역학(易學)의 성립과정(1) – 성호(星湖) 이익(李瀷)의 『역경질서(易經疾書)』에 나타난 『주역(周易)』해석(解釋) 방법(方法) – 」에서 서근식은 이익(李瀷)의 『역경질서(易經疾書)』에 나타난 『주역(周易)』 해석방법이 호체(互體)법이었음을 밝히고, 정약용의 역학이 이러한 성호학파의 영향을 받아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성호학파(星湖學派)의 주역 상수학설(象數學說) 연구 이익: 신후담 정약용의 역상설(易象說)을 중심으로」에서 황병기는 정약용의 독특한 역리사법(易理四法: 推移 物象 互體 爻變)은 이익과 이를 계승한 신후담 등 성호학파에서 형성된 효변설의 주역 해석방법론을 통하여 성립하였다고 진단하였다. 이 두 논문은 성호학파와 정약용의 학문적인 계승을 주역 해석방법론을 통하여 훌륭하게 입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학 내부의 학파적 계승 관계를 잘 밝힌 연구에 해당한다.

그리고 정약용의 역학에 관해 집중적으로 조명한 8편의 논문은 그의 학술사상을 밝히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정약용의 윤리학에 관한 연구는 그의 윤리론의 최종 결정권이 도덕감정과 이성 중에서 도덕감정이 우선임을 밝힌 것과 서양의 덕 윤리학과의 비교를 통한 논문도 돋보인다.

이 외에도 제임스 팔레의 『반계수록』 연구를 분석하고 평가한 글은 유형원과 당시 조선사회를 조명하는 해외 학술 동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유형원의 저술과 사후, 그의 문인과 후학들이 지은 전(傳)과 행장(行狀) 등을 비교 검토하여 그의 사상을 보다 입체적으로 고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연구도 눈에 띈다.

「조선 후기 유학자들의 서학 인식: 종교/과학 구분론에 대한 재검토」에서 조현범은 기존의 논의들이 대개 조선의 유학자들이 서학 서

적 가운데에서 과학에 관한 내용들은 수용하되, 종교적인 가르침을 담은 내용은 배격하였다는 해석을 내리고 있다고 진단하고, 그는 조선 후기 유학자들의 인식을 잘 담고 있다고 판단되는 명물도수학과 위기지학의 용어법으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였다. 이 연구는 기존의 서학에 대한 구분법을 새로운 개념으로 대체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4. 평가와 전망

2015년도에도 실학에 대한 연구가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2015년에는 경학과 철학 분야의 연구가 많은 편이다. 이러한 경향은 한국실학에 관한 사상적인 성격을 밝히는 측면에서 고무적이며, 앞으로 실학의 성격 규명을 위한 검토가 더욱 심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까지 한국실학을 조선후기 역사에 학문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과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하겠다. 한국실학이 조선후기 전체 역사 지평에서 그 의미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 여전히 많은 관심과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제8장

한국 경학사상 연구

김유곤

1. 머리말

본 보고서는 2015년도 한국에서 발표된 학술 논문 중에서 경학 관련 연구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논문 선정 작업은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와 등재 후보 학술지, 국내 대학의 박사학위논문을 대상으로 삼았다. 경학에 관한 논문으로 선택한 기준은 유교 경전인 十三經에 대한 한국과 중국 유학자들의 주석을 중심으로 분석한 글로 한정하였다. 살펴본 결과 경학에 관한 논문은 총 29편이 있었다(등재 학술지 24편, 등재 후보 학술지 3편, 박사학위 2편). 2014년도에는 경학 논문이 51편이었다.

보고서 구성은 먼저 전체 29편 논문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 위해 크게 두 가지 분류 방식에 따라 나누어 보았다. 첫째 인물별 분류, 둘째 주제별 분류이다. 인물별 분류에서는 한국 유학자, 중국 유학자, 두 명 이상의 학자를 비교한 논문으로 구별하였다. 주제별 분류에서는 연구 대상 경전별로 구별하였다. 그리고 각 경전별로 의미 있는 논문 8편에 대해 분석하고, 2015년 경학 관련 연구 성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앞으로의 연구 방향에 대한 짧은 소견을 제시했다.

2. 인물별 분류

총 29편의 경학 논문 중에서 경전 주석서를 중심으로 학자의 경학 사상을 다룬 논문은 27편이다. 한 인물의 경학 사상을 다룬 논문 중 한국 유학자를 대상으로 한 논문이 20편, 중국 유학자를 대상으로 한 논문이 6편이다. 두 학자 이상을 대상으로 한 비교 논문은 1편이다. 부제목이 '～와의 비교를 중심으로'라고 되어 있는 논문은 비교 논문으로 분류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본래 다루고자 하는 인물의 경학 사상의 특징을 부각시키기 위한 비교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참고로 2014년에는 총 51편의 경학 논문 중에서 경전 주석서를 중심으로 학자의 경학 사상을 다룬 논문은 45편이었다. 한 인물의 경학 사상을 다룬 논문 중 한국 유학자를 대상으로 한 논문이 36편, 중국 유학자를 대상으로 한 논문이 5편이었다. 두 학자 이상을 대상으로 한 비교 논문은 4편이었다.

1) 한국 유학자

한국 유학자의 경학 사상을 다룬 20편의 논문 중 가장 많이 다룬 인물은 丁若鏞(茶山, 1762 - 1836)으로 총 5편의 논문이 있다.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김광수	다산 정약용의 상수학적 역학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
2	김유곤	다산 정약용의 『대학』 이해에 나타난 학문관	Acta Koreana 18-2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3	서근식	다산 정약용의 『대학』 해석에 관한 연구	동양고전연구 60	동양고전학회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4	임헌규	다산의 『서경』 인식	동양고전연구 59	동양고전학회
5	장현오	정다산의 『대학』관에 관한 일고	철학논총 82	새한철학회

다음으로 많이 다루고 있는 인물은 沈大允(白雲, 1806 - 1872)으로 4편의 논문이 있다.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노경희	심대윤의 『論語注說』 역주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2	장병한	심대윤의 『禮記正解』에 대한 연구 Ⅰ(–19세기 양명학적 예학론의 한 특징 파악을 중심으로–)	한국실학연구 30	한국실학학회
3	장병한	심대윤의 『예기』 '舊說'과 '新注'에 대한 辨正 의미(–심대윤의 『禮記正解』 「단궁」편의 분석을 중심으로–)	동양문화연구 22	영산대학교 동양문화연구원
4	장병한	심대윤의 『周禮刪正』과 왕도론에 관한 연구(–19세기 王權 · 法義의 강화와 民利 · 國富의 제창을 중심으로–)	양명학 42	한국양명학회

다음으로 많이 다루고 있는 인물은 李瀷(星湖, 1681 - 1763)으로 3편의 논문이 있다.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서근식	성호 이익의 『論語疾書』 연구(–仁에 관한 해석을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38–3	한국학중앙연구원
2	서근식	성호 이익의 『大學疾書』 연구	정신문화연구 38–1	한국학중앙연구원
3	서근식	성호학파에서 다산 정약용 역학의 성립과정 Ⅰ(–성호 이익의 『易經疾書』에 나타난 『주역』해석 방법–)	한국철학논집 44	한국철학사연구회

각 1편의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인물은 총 8명으로 시대순으로 나

열해 보면 盧守愼(蘇齋, 1515 - 1590), 崔鳴吉(遲川, 1586 - 1647), 安錫儆(雪橋, 1718 - 1774), 鄭赫臣(性堂, 1719 - 1793), 崔象龍(鳳村, 1786 - 1849), 李震相(寒洲, 1818 - 1886), 薛泰熙(1875 - 1940), 申晟圭(遜庵, 1905 - 1971)이다.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정호훈	소재 노수신의 『大學集錄』의 지식 세계와 그 영향	한국사상사학 51	한국사상사학회
2	김윤경	지천 최명길의 『思問錄』에 나타난 사서해석 경향과 사상적 특징 Ⅰ(-『論語記疑』를 중심으로-)	한국철학논집 47	한국철학사연구회
3	양원석	삽교 안석경의 시경론과 『시경』 해설 방법의 특징	한문고전연구 31	한국한문고전학회
4	최정묵	성당 정혁신의 삶과 『대학』에 대한 이해(-명덕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유학연구 33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5	윤기륜	봉촌 최상룡의 『논어』 해석의 특징과 경학사적 위상	대동문화연구 92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6	박인호	한주 이진상의 춘추학(-『春秋集傳』과 『春秋翼傳』을 중심으로-)	한국학논집 60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7	최석기	설태희의 『대학』 해석 연구	한국한문학연구 59	한국한문학회
8	최석기	손암 신성규의 『論語講義』 연구	퇴계학과 유교문화 57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 중국 유학자

중국 유학자의 경학 사상을 다룬 6편의 논문 중 朱熹(晦庵, 1130 - 1200)를 다룬 논문이 3편 있고, 程頤(伊川, 1033 - 1107), 胡安國(青山, 1074 - 1138), 王夫之(薑齋, 1619 - 1692)를 다룬 논문이 각 1편씩 있다.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김동민	주자의 『춘추』 해석방법론에 관한 연구	동양철학연구 83	동양철학연구회
2	이재훈	주희 『詩集傳』 〈鄭風〉 '鄭', 〈緇衣〉, 〈將仲子〉, 〈大叔于田〉 新舊傳 비교 연구	중국어문논총 70	중국어문연구회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3	주광호	『周易本義』의 성리적 성격에 관한 연구	동양철학 43	한국동양철학회
4	김동민	정이천의 理學的 『春秋』 이해에 관한 연구	유교사상문화연구 60	한국유교학회
5	김동민	호안국의 『춘추』 해석을 통해 본 송대 춘추학의 특징	동양철학 43	한국동양철학회
6	임옥균	왕부지의 대학 이해(–주희 이해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국제판 유교문화연구 23	성균관대학교 유교문화연구소

3) 두 학자 이상 비교

2명 이상의 학자를 비교한 논문은 1편이 있다.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임헌규	주자와 다산의 『논어』 學 개념 해석비교	동양고전연구 61	동양고전학회

3. 주제별 분류

이 책의 다른 분과에서는 주제별 분류의 기준으로 경학 사상, 철학 사상, 교육 사상, 정치 및 경제 사상을 삼았다. 이 분과에서는 경학 사상이라는 학문적 특성을 고려하여 주제별 분류 기준을 연구 대상 경전으로 삼았다. 총 29편의 경학 논문을 연구 대상 경전별로 살펴보면 『대학』 관련 논문이 8편으로 가장 많고, 『논어』 6편, 『춘추』 4편, 『시경』 3편, 『역경』 3편, 『예기』 2편, 『맹자』 1편, 『서경』 1편, 『주례』 관련이 1편 있다.

참고로 2014년에는 총 51편 중 『중용』 관련 논문이 15편으로 가장

많았고, 『역경』 12편, 『대학』 6편, 『춘추』 4편, 『논어』 3편, 『맹자』 3편, 『상서』 3편, 『시경』 관련 2편이 있었다. 경전별로 분류하지 않고 한 학자의 경학 사상을 통합적으로 연구한 논문도 3편 있었다. 눈에 띄는 것은 2014년에 15편으로 가장 많았던『중용』 관련 논문이 2015년에는 한 편도 없다는 점이다.

1) 『대학』

『대학』 해석과 관련하여 한국 학자들의 경학 사상을 분석한 연구를 학자의 시대적 순서로 나열해보면 다음과 같다.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정호훈	소재 노수신의 『大學集錄』의 지식 세계와 그 영향	한국사상사학 51	한국사상사학회
2	서근식	성호 이익의 『大學疾書』 연구	정신문화연구 38-1	한국학중앙연구원
3	최정묵	성당 정혁신의 삶과 『대학』에 대한 이해(-명덕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유학연구 33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4	김유곤	다산 정약용의 『대학』 이해에 나타난 학문관	Acta Koreana 18-2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5	서근식	다산 정약용의 『대학』 해석에 관한 연구	동양고전연구 60	동양고전학회
6	장현오	정다산의 『대학』관에 관한 일고	철학논총 82	새한철학회
7	최석기	설태희의 『대학』 해석 연구	한국한문학연구 59	한국한문학회

『대학』 해석과 관련하여 중국 학자의 경학 사상을 분석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임옥균	왕부지의 대학 이해(- 주희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국제판 유교문화연구 23	성균관대학교 유교문화연구소

2) 『논어』

『논어』 해석과 관련하여 한국 학자들의 경학 사상을 분석한 연구를 학자의 시대적 순서로 나열해보면 다음과 같다.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김윤경	지천 최명길의 『思問錄』에 나타난 사서해석 경향과 사상적 특징 Ⅰ(–『論語記疑』를 중심으로–)	한국철학논집 47	한국철학사연구회
2	서근식	성호 이익의 『論語疾書』 연구(–仁에 관한 해석을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38–3	한국학중앙연구원
3	윤기륜	봉촌 최상룡의 『논어』 해석의 특징과 경학사적 위상	대동문화연구 92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4	노경희	심대윤의 『論語注說』 역주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5	최석기	손암 신성규의 『論語講義』 연구	퇴계학과 유교문화 57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논어』 해석과 관련하여 한국과 중국 학자의 경학 사상을 비교 분석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임헌규	주자와 다산의 『논어』 學 개념 해석비교	동양고전연구 61	동양고전학회

3) 『춘추』

『춘추』 해석과 관련하여 한국 학자의 경학 사상을 분석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박인호	한주 이진상의 춘추학(- 『春秋集傳』과 『春秋翼傳』을 중심으로 -)	한국학논집 60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춘추』 해석과 관련하여 중국 학자의 경학 사상을 분석한 연구를 학자의 시대적 순서로 나열해보면 다음과 같다.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김동민	정이천의 理學的 『春秋』 이해에 관한 연구	유교사상문화연구 60	한국유교학회
2	김동민	호안국의 『춘추』 해석을 통해 본 송대 춘추학의 특징	동양철학 43	한국동양철학회
3	김동민	주자의 『춘추』 해석방법론에 관한 연구	동양철학연구 83	동양철학연구회

4) 『시경』

『시경』 해석과 관련하여 한국 학자들의 경학 사상을 분석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노재준	고려 문인의 『시경』에 대한 태도	태동고전연구 35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2	양원석	삽교 안석경의 시경론과 『시경』 해설 방법의 특징	한문고전연구 31	한국한문고전학회

『시경』 해석과 관련하여 중국 학자의 경학 사상을 분석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이재훈	주희 『詩集傳』 〈鄭風〉 '鄭', 〈緇衣〉, 〈將仲子〉, 〈大叔于田〉 新舊傳 비교 연구	중국어문논총 70	중국어문연구회

5) 『역경』

『역경』 해석과 관련하여 한국 학자들의 경학 사상을 분석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서근식	성호학파에서 다산 정약용 역학의 성립과정 Ⅰ(–성호 이익의 『易經疾書』에 나타난 『주역』해석 방법–)	한국철학논집 44	한국철학사연구회
2	김광수	다산 정약용의 상수학적 역학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

『역경』 해석과 관련하여 중국의 경학 사상을 분석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주광호	『周易本義』의 성리적 성격에 관한 연구	동양철학 43	한국동양철학회

6) 『예기』

『예기』 해석과 관련하여 한국의 경학 사상을 분석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장병한	심대윤의 『禮記正解』에 대한 연구 Ⅰ(–19세기 양명학적 예학론의 한 특징 파악을 중심으로–)	한국실학연구 30	한국실학학회
2	장병한	심대윤의 『예기』 '舊說'과 '新注'에 대한 辨正 의미(–심대윤의 『禮記正解』 「단궁」편의 분석을 중심으로–)	동양문화연구 22	영산대학교 동양문화연구원

7) 『맹자』

『맹자』 해석과 관련하여 중국의 경학 사상을 분석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황지원	『맹자』에 대한 한대 훈고학과 송대 주자학의 해석 차이와 그 철학사적 의미(–趙岐의 『孟子章句』와 주희의 『孟子集註』를 중심으로–)	동아인문학 31	동아인문학회

8) 『서경』

『서경』 해석과 관련하여 한국의 경학 사상을 분석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임헌규	다산의 『서경』 인식	동양고전연구 59	동양고전학회

9) 『주례』

『주례』 해석과 관련하여 한국의 경학 사상을 분석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장병한	심대윤의 『周禮刪正』과 왕도론에 관한 연구(- 19세기 王權 · 法義의 강화와 民利 · 國富의 제창을 중심으로 -)	양명학 42	한국양명학회

4. 주요 논문 내용 요약

1) 『대학』 관련

『대학』과 관련된 주요 논문에는 그 동안 연구되지 않았던 설태희의 해석을 다룬 「설태희의 『대학』 해석 연구」(최석기)가 있다. 저자는 설태희의 『대학』 해석의 기본 관점을 4가지로 정리하는데, ① 『대학』을 '大人之學'으로 보되 주자와 달리 수신을 통해 인격을 완성하는 것으로 파악한 점, ② 『대학』의 핵심을 주자가 '수기치인'으로 본 것과 달리 수신에 중점을 둔 것으로 파악한 점, ③ 주자의 '삼강령설'을 따르지 않고 明德을 體, 親民을 用, 至善을 極則으로 보는 '體用極則說'을 주장한 점, ④ 주자의 '팔조목설'을 따르지 않고 '八次序'로 보아 修身의 身과 格物의 物을 인식의 주체와 대상으로 나누어 '八次序區別說'을 주장한 점을 든다.

분장과 편차 개정의 특징으로는 5가지로 정리하는데, ① 『古本大學』을 저본으로 分章하고 編次를 개정한 점, ② 주자처럼 經文 · 傳文으로 나누어 해석한 점, ③ 전1장부터 전5장까지만 편차를 개정하였을 뿐 나머지는 주자의 『대학장구』와 동일한 점, ④ 傳文에 '釋止章'을 둔 점, ⑤ 〈聽訟節〉을 '격물치지'의 사례로 본 점을 든다.

내용적인 특징으로는 4가지로 정리하는데, ① 전2장은 親民을 해석한 것으로 보아 친민이 '止於至善'한 효능으로 본 점, ② 전3장은 至善을 해석한 것으로 보아 명명덕 · 친민이 至善에 이르러야 함을 말한 것으로 본 점, ③ 전4장은 '止於至善'의 止를 해석한 것으로 보아 止를 강조한 점, ④ 전5장은 〈聽訟節〉을 '格物致知'의 사례를 말한 것으로 본 것 등을

든다.

새로운 해석의 요지로는 7가지로 정리하는데, ① 明德을 '良知'·'素仁'의 뜻을 겸한 것으로 본 점, ② 親民을 程子·朱子처럼 新으로 바꾸지 않고 親愛·親近으로 본 점, ③ 至善을 中正한 '正心處'로 본 점, ④ 格物을 언제 어디서나 사물을 대하는 것으로 致知를 나의 감각을 따라 생기는 것으로 해석한 점, ⑤ '격물치지'를 인식주체인 身이 인식대상인 物을 대하면서 이루어지는 인식작용으로 보아 '知行合一'과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본 점, ⑥ '모든 사람이 수신으로 근본을 삼아야 한다'는 점에 중점을 두어 〈수신제가장〉 이하를 주자가 '上行下效'로 본 관점을 비판하며 군주 한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돌린 것이 아니라고 본 점, ⑦ 〈정심수신장〉의 '身有所忿懥'의 身에 대해 程子가 心의 오자로 본 설을 따르지 않고 五官을 총칭하는 것으로 본 것 등을 든다.

결론적으로 저자는 설태희 『대학』 해석의 이러한 특징이 왕수인의 『대학』 해석에서 영향을 받은 바가 크지만, 왕수인의 설을 그대로 추종하지 않고 그 설을 근본으로 하여 자신의 독자적인 견해를 주장한 것이라고 평가한다.

2) 『논어』 관련

『논어』와 관련해서는 그 동안 연구되지 않았던 최명길의 해석을 다룬 「지천 최명길의 『思問錄』에 나타난 사서해석 경향과 사상적 특징 Ⅰ(-『論語記疑』를 중심으로-)」(김윤경)이 있다. 이 논문은 최명길의 『사문록』 가운데 「논어기의」를 중심으로 『논어』 해석 경향과 그 사상적 특징을 검토하였다. 저자는 최명길의 『논어』 해석 경향의 특징으로 주자의 경전 해석을 통설로 여겼던 당시의 학문적 흐름에 의탁하

지 않고 경전 본의를 주체적으로 탐색하기 위해 고주와 일본의 고본주까지 검토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고주와 신주에도 의존하지 않고 자신만의 독창적인 해석을 제시한 점을 든다.

고주를 인용하고 참조한 사례로는 「태백」 20장 '才難不其然乎唐虞之際於斯爲盛云云', 「이인」 18장 '事父母幾諫云云', 「안연」 7장 '足食足兵民信之云云' 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였다. 주자 신주에 비판적으로 접근했을 뿐만 아니라 고주에도 얽매이지 않는 독창적인 해석을 부기한 부분으로는 「선진」 19장 '不踐跡不入於室云云', 「계씨」 9장 '生而知之者上云云' , 「양화」 3장 '上智與下愚不移云云'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였다. 최명길이 양명학을 긍정할 수 있었던 사상적 경향을 살필 수 있는 부분으로는 「리인」 8장 '朝聞道夕死可矣云云', 「태백」 4장 '君子所貴者三云云' 에 대한 해석을 제시한다.

이러한 최명길의 『논어』 해석에 나타나는 그의 사상적 특징으로 心과 道는 본래 분리될 수 없고 공부를 할 때는 마음 상의 본원 공부가 본질이고 우선이라고 파악하고 있는 점을 든다. 그렇지만 이러한 견해는 그가 양명학을 긍정할 수 있었던 사유 경향은 될 수 있지만 그의 양명학 수용 여부나 철학적 특색에 대한 정확한 규명으로는 미흡한 점이 있다고 보고, 이 점을 좀 더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사문록』의 다른 편인 「맹자기의」와 「대학기의」 등의 해석 내용을 아울러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저자는 이 논문의 의의는 당시의 사서 해석 경향에 있어서 주자학 일변도가 아닌 다양성이 존재하는 일례를 검토하였고, 초기 양명학자로 거론되는 최명길의 사상적 특징을 고찰하여 한국 양명학의 전개를 재조망해 볼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평가한다.

3) 『춘추』 관련

『춘추』와 관련해서는 그 동안 본격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던 이진상의 『춘추』 이해를 분석한 『한주 이진상의 춘추학(- 『春秋集傳』과 『春秋翼傳』을 중심으로 -)』(박인호)이 있다. 이 논문은 이진상이 편찬한 춘추학 저술인 『춘추집전』과 『춘추익전』을 통해 당시 척사파 유학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역사의식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저자는 이진상이 『춘추집전』에서는 『춘추』에 대한 전문을 수집하고 안설을 덧붙여 經世와 尊君父의 대의를 밝히고 있으며, 『춘추익전』에서는 춘추 전후의 시대사 편찬을 통해 尊周와 大一統의 대의를 천명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또한 저자는 이진상이 사실에 대한 측면은 『左傳』의 기록을 취하고 의리적인 측면에서는 『胡傳』의 기록을 취하여 책을 편찬하고 있는데, 이는 조선 중후기 주자학자들이 『좌전』을 위주로 하면서도 『호전』을 수용한 것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파악한다. 다만 정조 이후 중국으로부터 고증학 서적이 도입되고 독자적인 경학 연구가 진행되면서 『좌전』 수용의 흐름이 정조와 일부 유신 사이에서 나타났는데, 이진상은 결과적으로 이러한 흐름에서 다시 『호전』을 위주로 한 것으로 평가한다.

결론적으로 저자는 이진상의 위정척사적 행동의 이론적 배경에는 춘추학이 있으며, 생애 말기에 『춘추집전』과 『춘추익전』을 통해 경세의식과 존주 의식을 보이려고 한 것은 당시 제국주의의 침략에 대한 학문적 대응이었다고 파악한다. 즉 이진상은 자신의 척사적 입장이 『춘추』 의리에 닿아 있음을 『춘추』 연구를 통해 표방함으로써 경학적 측면에서 행동의 정당성을 뒷받침한 것이라고 평가한다.

4) 『시경』 관련

『시경』과 관련해서는 「삽교 안석경의 시경론과 『시경』 해설 방법의 특징」(양원석)이 있다. 이 논문은 안석경의 『識聞 · 詩傳』에 대한 검토를 통해 안석경 시경론의 주요 내용과 『시경』 해설 방법의 특징을 고찰해 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목표 아래 먼저 안석경의 경전과 문장에 대한 인식 및 『지문 · 시전』의 구성과 내용 등에 대해 살펴보고, 이어서 주자주 존숭과 주자 '淫詩說' 긍정 등의 시경론을 파악하고, 또한 경문 해설 방법에 대한 고찰을 통해 『지문 · 시전』은 수사학적인 방법을 적극 활용한 『시경』 주해서라고 그 성격을 정리한다.

저자는 안석경이 『지문 · 시전』에서 주자주 외의 다른 주석은 언급하지 않았고 오직 주자의 주석 특히 『詩集傳』을 인용하거나 이에 대한 보충 설명을 진행하였는데, 이는 주자의 주석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입장임을 보여주며, 주자의 주석을 '聖譯'이라고 칭하는 등 매우 존숭하는 입장이었다고 평가한다. 또한 저자는 안석경이 주자의 '음시설'에 대해 기본적으로 긍정하는 입장이었지만, 주자가 음시라고 판정한 상당 수 시편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거나, 음시에 관련된 언급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안석경은 음시 판정의 문제 보다는 시편의 문장 수사의 측면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 것이라고 평가한다.

저자는 『지문 · 시전』에서 볼 수 있는 경문 해설의 가장 큰 특징으로 수사학적 방법론을 적극 활용하였다는 점을 들고 있는데, 이는 『藝學錄』에서 찾아볼 수 있는 '篇章의 수사학'과 '字句의 수사학'을 『지문 · 시전』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파악한다.

결론적으로 저자는 『지문 · 시전』은 일반적인 경학 저술과 그 성격

을 달리하고 있지만, 오히려 새로운 경서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경학사에서 더 큰 의의를 부여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

5) 『역경』 관련

『역경』과 관련해서는 「성호학파에서 다산 정약용 역학의 성립과정 Ⅰ(－성호 이익의 『易經疾書』에 나타난 『주역』해석 방법－)」(서근식)이 있다. 이 논문은 이익 『역경질서』의 『주역』 해석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저자는 이익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역』을 해석하려고 하지만, 그 가운데 互體가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인식하였는데, 그 이유는 이익이 호체를 통해 『주역』을 아우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파악한다. 또한 저자는 이익이 적용한 호체의 핵심은 六十四卦→十六卦→四卦→陰陽인데, 여기서 음양은 乾·坤이고 四卦는 乾·坤·既濟·未濟이고 十六卦는 乾·坤·剝·復·夬·姤·頤·大過·漸·歸妹·蹇·解·家人·睽·既濟·未濟이며, 이익은 이러한 호체 이론이 『周易』의 六十四卦를 모두 아울러 설명할 수 있다고 파악한 것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저자는 이익이 16卦에서 64卦를 연역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호체를 사용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호체는 이익이 주장한 것처럼 『주역』을 아우를 수 없었고, 다만 뒤에 정약용이 호체를 중요한 이론으로 삼는 데는 기여했다고 평가한다.

결론적으로 저자는 정약용이 「貞軒墓誌銘」에 쓴 글을 증거로 정약용이 중국의 『역학』 저술뿐만 아니라 성호학파 내부의 『역학』 저술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여, 정약용의 易理四法은 西河의 『역경』에 영향을 받기도 하였지만 성호학파 내부에서 오랫동안 숙고를 거쳐 완성된 것이라고 평가한다.

6)『예기』 관련

『예기』와 관련해서는「심대윤의『禮記正解』에 대한 연구 Ⅰ(－19세기 양명학적 예학론의 한 특징 파악을 중심으로－)」(장병한)이 있다. 저자는 심대윤이 당시 19세기 전·중반의 시기를 위기적 국면으로 진단하고, 그와 같은 위기의 원인처로서 이전 관학의 보호아래 정치와 사상의 중심에 있었던 鄭玄·孔穎達·朱熹·陳澔의 예설을 주목했다고 파악한다. 요컨대 저자는 심대윤이 이들의 예설이 선왕의 禮와 道를 기이한 것으로 변모하게 함에 따라, 그만 예가 인간의 常情과 常理에서 멀어지게 되었다고 진단했다고 평가한다. 이에 심대윤은 선왕의 예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기존의 예설에 대한 변통의 필요성을 자각하고, 공자의 禮觀에 기준하여 오직 옛 것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大同의 정치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군자에 의한 예학의 變通政策이 요망됨을 先唱했다고 평가한다. 또한 심대윤은 스스로 시대의 군자로 자처하고, 당시의 위기적 국면의 현실 타개책으로 기존의 禮經으로 숭상 되어 온『예기』와 전통적 관학의 중심에 있었던 한·당·송의 예학 체계에 대한 변통을 시도했다고 평가한다.

저자는 심대윤이 기존의 정주학적 예학론에 대한 비판과 해체를 통해 제안한 새로운 예학적 입장의 특징을 3가지로 정리하는데, ① 禮는 人禮이며 人道로 파악한 점, ② 예는 實文이며 實利로 파악한 점, ③ 禮制는 때에 따라 편리함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을 든다. 이러한 심대윤의 예학적 특징들은 기존의 한국 통치 이념과 예학의 중심에 있었던 정주학 계열의 游氏와 李氏, 주희 그리고 진호의 예설과는 많은 차별성을 가지고 있으며, 實利와 文飾 및 便利의 강조, 仁의 조절성을 중요시 한 점 등은 기존 정제두의 양명학적 예론의 특징 즉, 仁의 '精神根幹', '從簡主

義', 奢侈와 文飾의 拒絶, 實用과 實利의 중시 등에 많은 부분 접맥되어 있다고 파악한다.

결론적으로 저자는 19세기 심대윤의 학적 체계가 17 - 18세기 정제두의 학맥을 계승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人民(農 · 工 · 商人)의 禮重視, 人情과 事理 및 公利와 公益의 강조, 實文과 實利 및 便利 · 常情 · 常理 · 多衆 · 公利 · 大同의 제시 등은 한국의 실학성과 근대성의 가치 지향에도 일면 편입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심대윤의 예학사적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 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

7) 『서경』 관련

『서경』과 관련해서는 「다산의 『서경』 인식」(임헌규)이 있다. 이 논문은 정약용의 『서경』 인식을 고찰하여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저자는 정약용의 학문적 과제는 堯 · 舜 - 周公 - 孔子之道라고 하는 본원유학의 원형과 정신을 復命하고, 그를 통해 질곡된 현실을 극복하는 데에 있는데, 정약용의 『서경』에 대한 관심과 해석 역시 여기에서 유래한다고 파악한다. 또한 정약용은 육서오경에 대한 방대한 식견과 청나라의 고증학적 경향, 심지어 일본의 유학 연구에도 정통하여 『서경』에 대한 단순한 의문 제기를 넘어 체계 전반을 문제 삼았다고 파악한다. 따라서 정약용은 후대 위작으로 간주된 古文의 유출 경의를 증명하고, 방대한 자료를 검토하여 원 자료의 수집과 채록을 통해 『서경』의 본 모습을 회복하려 했다고 평가한다.

저자는 정약용이 『서경』을 정치의 표준이 제시되어 있는 옛 성인의 정사를 알려주는 역사책으로 이해했으며, 이러한 표준을 제대로 알아 소통하기만 하면 곧바로 현실에 응용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

다고 파악한다. 정약용은 『서경』을 알기 위해서는 당연히 자구에 대한 訓詁가 우선되어야 하지만, 자구에 대한 훈구를 하려면 우선 경문이 정립되어야 하는데, 『서경』은 殘缺이 가장 많은 경전이므로 먼저 당시 통행되고 있던 『상서』 중에서 후대에 위조된 부분을 변별한 다음 그 본모습을 회복해야 함을 강조했다고 평가한다. 정약용이 회복하려고 했던 원형 『상서』란 공자가 직접 산정하고 序를 썼다고 말한 100편(「虞書」 20편, 「夏書」 40편, 「周書」 40편)인데, 100편의 원형 회복이란 진본이 망실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평가한다. 따라서 정약용은 우선 방대한 문헌적 지식을 원용하여 漢代 이전의 경전 가운데 신뢰할 수 있는 것을 채록하고 배열한 다음 여러 학설을 모으고(『尙書古訓蒐略』), 수집된 고훈들의 同異를 대비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덧붙여(『尙書知遠錄』) 합본했다(『尙書古訓』)고 파악한다.

결론적으로 저자는 정약용의 이런 시도의 목표는 『상서』를 해석하기 보다는 옛 원형을 보존하여[存古] 『상서』의 본래 모습 혹은 大體를 알게 해주는 단서를 제시하려는 것이었다고 평가한다.

8) 『주례』 관련

『주례』와 관련해서는 「심대윤의 『周禮刪正』과 왕도론에 관한 연구(-19세기 王權·法義의 강화와 民利·國富의 제창을 중심으로-)」(장병한)가 있다. 저자는 15-16세기 이황과 이이를 비롯한 일군의 성리학자들은 修己의 心性論的 修養論에 치우쳐 명물제도의 『주례』적 왕도론에는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고, 그 외 17-18세기 성리학자 계열의 老論이나 少論 학파에서도 역시 『주례』에 대해 특별한 관심이나 연구가 진척되지 않았으며, 『주례』 연구와 그것의 정치적 활용은 대체

로 조선 건국기 정도전을 비롯하여 17세기 南人系 개혁적 성향의 실학자들인 이수광, 윤휴, 유형원을 이어 19세기 정약용에 이르면서 계승되고 있다고 평가한다.

또한 저자는 심대윤의 『주례』관이 이전의 학자나 학파들과는 확연하게 다른 특징을 3가지로 정리하는데, ① 이전의 대다수의 학자들이 『주례』를 주공의 眞書로 기정사실화 한 반면 심대윤은 聖人인 周公의 眞書가 아니라고 규정한 점, ② 기존의 17 - 18세기 노론이나 소론학파에서는 『주례』에 대해 특별한 관심이나 연구가 진척되지 않았던 것에 비해, 심대윤은 소론의 당맥과 하곡의 양명학적 세계관에 기맥이 닿아있는 가운데 『주례산정』, 『禮記正解』, 『儀禮正論』을 저술하여 미래의 王道論的 指南書가 되기를 제안한 점, ③ 조선 건국기 정도전을 비롯하여 17세기 남인계 개혁적 성향의 실학자들이 『주례』의 이념과 제도에 근거한 현실 개혁을 통해 과거 『주례』적 이상에로의 복구를 희망한 것(取古酌今)에 비해, 심대윤은 옛 경전인 『주례』적 가치를 무조건 맹신하지만은 않고 先王의 易簡主義와 현실적인 국가와 백성의 實益性에 기준하여 再刪正함을 통하여 작금의 經世濟民에 적합한 즉, 19세기 새로운 유가적 『주례』를 기획한 점을 들고 있다.

결론적으로 저자는 『주례산정』에 나타난 심대윤의 19세기 경세적 왕도론은 당시 낡은 봉건 구조의 정치 사회적 모순을 개선하고 개혁함을 통해 더 나은 조선 근대 유가의 왕도론을 구상하고 기획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유학의 근대사상사에서 차지하는 의미가 크다고 평가한다.

5. 평가와 전망

앞으로 한국 경학 연구가 지향하고 이루어야 할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는 각 경전별로 경학사가 서술되고, 이를 종합하여 구체적인 한국 경학사를 서술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에 연구되지 않은 경학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2015년 경학 연구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경학 측면에서 기존에 거의 연구 되지 않았던 노수신 · 설태희 · 정혁신의 『대학』, 최명길 · 최상룡 · 신성규의 『논어』, 이진상의 『춘추』, 안석경의 『시경』, 심대윤의 『예기』와 『주례』 등에 대한 연구 성과는 의미가 있다. 앞으로도 기존에 연구되지 않았던 학자들의 경학에 대한 연구 성과가 많이 나오길 기대해 본다.

한편 「다산 정약용의 『대학』 해석에 관한 연구」, 「정다산의 『대학』관에 관한 일고」 등은 기존에 발표된 정약용의 『대학』 연구 성과와 큰 차이점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미 많이 연구된 주제를 연구할 때에는 기존 연구 성과를 치밀하게 분석한 이후 이전에 밝혀지지 않은 사실이나 특징을 찾는데 집중해야 할 것 같다.

제9장

한국 근대유학 연구

김현우

1. 머리말

본 장에서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술정보서비스(RISS)[1]를 중심으로 대략 19세기 후반부터 1945년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한 한국 근대 유교 관련 연구 현황을 정리 · 평가하였다. 한국에서 근대라 하면, 굴절된 학문, 굴절된 역사, 굴절된 철학이라는 일종의 콤플렉스가 있었다. 그것은 당시 한국이 근대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심지어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망국의 통한을 겪었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과거 근대를 연구하는 것은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처럼 두려움에 싸여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의 경향은 단순히 이와는 다른 각도이다. 이미 전년도 해당 장에서도 일부 언급했지만, 현재 우리의 국제적 지위가 높아질수록 근대에 대한 관심은 대외적으로 심도있게 진행될 것이다. 왜냐하면 서구의 몰락과 더불어 비서구권인 일본, 한국 그리고 중국의 성장이 세계적인 관심사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학의 경우는 특히 다양한 측면에서 세계화의 추세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어를 배우려는 세계인들은 더욱 늘어나서 이를 담당하는 세종학당 역시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한류를 중심으로 한 한국 컨텐츠는 인터넷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내부만 모르는 세계화한 한국의 위상은 점차 한국학 차원에서 관련 연구를 요구할 것이며, 특히 수 년내 근대 또는 근대성과 관련한 연구의 심도있는

1 www.riss.kr

요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국학계에서도 이러한 자각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다. 2015년이 2014년보다 달라진 것은 바로 연구 주제의 변화이다. 그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첫째는 근대성과 관련한 연구이다. 이전에는 주로 중국 근대 유학에서 나타난 근대성 관련 연구가 이제는 한국 유교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초보적인 수준이고 특히 중국학이나 일본학 연구자들이 한국학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섣부른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도 든다. 둘째는 이 시기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가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과 한림대학교 HK연구단 등은 에릭 홉스봄이 창안한 "장기 19세기"(The long 19th century) 개념을 도입하여 한국 및 동아시아에 적용하여 지속적으로 연구하는 한편, 조선대학교 우리철학연구소(소장 이철승 교수)에서는 "우리철학"이라는 주제로 한국학중앙연구원 지원으로 근대전환기 한국철학을 '我·理·心·實·氣·敎·民·美'의 8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3년의 연구를 시작하였다. 여기에 한국전통문화대학의 정신문화센터(센터장 최영성 교수)에서도 한국의 전통문화원류를 모색하려는 근대기의 다양한 시도에 대해 연구하고 금년(2016) 11월에 관련한 학술대회를 준비 중에 있다.

이러한 연구 기획들은 한국학에서 그동안 소외되었던 근대기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시키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 영향으로 그동안 상대적으로 연구가 미진했던 근대 유교에 대해서도 다양한 연구 시도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2014년에 이어 2015에도 지속되었는데, 본 분석과 평가를 통해 보다 질과 양에서 보다 진전하기를 기대한다.

2. 인물별 분석

2015년에는 박은식과 더불어 전우도 중요한 연구 대상으로 부상하였다. 이외에도 황헌, 이상은, 김창숙, 신채호, 최한기 등 이전에는 연구 성과가 미진했던 인물들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분야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철학	金建佑	한말 유학자의 위기의식과 근대문명 담론 비판	유교사상문화연구 61	한국유교학회
철학	김경호	매천 황헌 – 구한말 유교 지식인으로 산다는 것	孔子學 28	공자학회
철학	김낙진	경로(卿輅) 이상은(李相殷)의 한국유학 연구 방법과 정신	孔子學 29	공자학회
철학	김세정	한국 성리학 속의 심학	예문서원	2015
철학	김현우	박은식의 기독교 수용과 양지론	陽明學 42	한국양명학회
문학	나종선	艮齋(간재) 田愚(전우)의 序跋文(서발문)에 나타난 世敎(세교)와 道本文末(도본문말)에 대한 考察(고찰)	東方漢文學 62	東方漢文學62
사학	노관범	대한제국기 신채호의 "아(我)" 개념의 재검토	개념과 소통 14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사학	서동일	1910년대 한인의 안동 이주와 접리수 한인촌 형성	한국사연구 171	한국사연구171
문학	이영호	心山과 艮齋 門人들의 出處是非論爭을 통해 본 일제하 유교지식인의 초상	大東漢文學 42	대동한문학회
철학	이혜경	박은식의 양명학 해석	철학사상 55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철학	이혜경	박은식의 사상전변	철학사상 58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사학	임태홍	근대 전환시기 최한기와 니시 아마네의 학문관 비교	동양문화연구 22	동양문화연구22

박은식 관련 연구는 김현우와 이혜경에 의해서 3편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김현우는 지속적으로 박은식 관련 연구를 진행해 왔지만, 이

혜경은 그동안 양계초 등 중국 근대 사상가들을 전공한 연구자로 한국 유교에 대해서는 처음 연구 성과를 발표하였다. 전우 관련 연구는 박은식보다 한 편 많은 4편으로 김건우, 김경호, 김세정, 이영호에 의해 진행되었다. 김건우의 경우는 전우의 양계초 비판을 중심으로 그의 보수적 철학에 대해 연구하였고, 나종선은 전우의 문학적 측면을 다루었다. 김세정은 저서인 『한국 성리학 속의 심학』에서 심설논쟁의 한 측면인 전우의 심론을 다루었으며, 이영호는 심산과 간재 문인들간의 논쟁을 소개하였다. 특히 이영호, 김낙진, 김경호 등의 연구는 근대를 넘어서 현재까지 이어진다는 측면에서 한국 유교의 현대적 고찰이라고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3. 주제별 분석

2015년도 이 분야 관련 연구들은 주로 근대성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이전에는 주로 중국이나 동아시아 유교연구에서 나타났고 한국의 유교연구에서는 보기 힘든 것이었다. 관련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분야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철학	권보드래	특집 근대전환기 개념의 운동과 변주: 1910년대의 "혁명" –3,1운동 전야의 개념과 용법을 중심으로–	개념과소통 15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철학	金璟鎬	탈식민과 한국유교	유교사상문화연구 62	한국유교학회

분야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철학	나종석	전통과 근대 : 한국의 유교적 근대성 논의를 중심으로	사회와 철학 30	사회와 철학 연구회
철학	박정심	식민기 부정적 주체의식과 유학인식에 대한 비판적 성찰	東洋哲學硏究 83	東洋哲學硏究83
철학	이병태	한국철학과 “modern”	시대와 철학 26-1	한국철학사상연구회

이런 연구 흐름은 한국의 정체성을 찾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 볼 수 있다. 서구 근대성에 대한 회의와 대안은 이미 1960년대 유교자본주의의 등장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한국 유교 연구와 관련해서는 이에 대해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주로 일본, 중국 나아가 동아시아의 범주 내에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현재 이런 연구 성과들의 출현은 한국의 유교가 한국의 근대성이나 이 지역의 근대성을 설명하는데 가장 적절하다는 공감이 연구자들 사이에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한국 유교는 중국이나 일보의 그것과는 다른 양상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주제는 실학파들이나 근대기 개혁적 유교지식인들이 주장한 실업 또는 실학과 1960년대이후 한국의 산업화를 연장시키는 전통적인 한국의 근대 이해를 벗어난 것이기도 하다. 이는 또한 근대를 단순히 산업화로 보지 않고 인식의 변화로 설명하려는 시도를 배경으로 한다. 이에 앞으로도 보다 추론적이고 철학적인 방향의 다양한 관점에서 한국 유교와 근대성간의 관계를 연구하는 시도가 출현하기를 기대한다.

4. 주요 논문 분석 및 비평

먼저 분석할 연구는 이혜경의 두 편의 연구이다.[2] 이혜경은 중국 근대 연구자로 2015년에도 「양계초와 "혁명" 개념의 전변 - 『청의보』, 『신민총보』」(『인문논총』72 - 2, 서울대 인문학연구원)를 발표하였다. 동시에 한국근대철학, 그것도 박은식에 관한 두편의 논문, 「박은식의 양명학 해석 - 다카세 다케지로와의 차이를 중심으로」(『철학사상』55, 서울대 철학사상연구소, 2015)와 「박은식의 사상 전변 - 생존과 자존 모색의 도정」(『철학사상』 58, 서울대 철학사상연구소, 2015)을 발표했다.

전자는 박은식의 『왕양명실기』와 다카세 다케지로(高瀨武次郎) 『王陽明詳傳』를 통해 양자의 양명학을 비교한 연구로써, 이에 대해 그녀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본고는 그 문제(근대적 지향으로써 '지식'과 '도덕' 중 선택에 관한 갈등)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이전에, 박은식이 근대의 학문으로 요청한 양명학의 성격이 다카세 다케지로의 그것과 얼마나 , 어떻게 다른지 밝히는 것을 당면의 목표로 한다.

그리고 이혜경은 이 차이를 "최소한 박은식은 애국과 충군에 양명

2 이혜경은 원래 중국근대철학 전공자로써, 서울대에서 동양철학으로 석박사 과정을 거쳐 일본 교토(京都)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요 논저로는 『천하관과 근대화론 : 양계초를 중심으로』(문학과 지성사, 2002), 『량치차오 : 문명과 유학에 얽힌 애증의 서사』(태학사, 2007) 등이 있다.

학을 가두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박은식이 양명학을 수용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부연하고 있다.

> 박은식 역시 양명학에서 이전과 달라진 세상을 살 수 있는 힘을 얻으려고 한다는 점에서 다카세와 다를 바 없다. "학문하는 까닭"에 대해 박은식 "자신의 몸을 닦아 … 세상에 보탬이 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 이유 때문에 양명학의 "간단하고 쉽고 진실하고 절실함[簡易眞切]"이 "시의적절"하다고 말한다. 박은식은 량치차오의 말을 빌려와 그 이유를 설명한다. 즉 당시처럼 확대되고 복잡해진 세상에 과학을 비롯해 배우고자 한다면 양명학의 "간이진절"한 방법이 아니라면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서였다.

박은식이 애국과 충군에 양명학을 가두지 않았다고 한 평가에서 충군은 맞으나 애국은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1911년 서간도 망명기에 작성한 『몽배금태조』에서는 心 즉 양지를 국가 회복의 원동력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동시에 박은식이 양명학에서 간이직첩(簡易直捷, 위 글에서는 簡易眞切)을 강조한 이유는 당시 한국 유학계의 지나친 사변론 즉 심설논쟁이나 호락논쟁에 대한 비판이지 결코 서구 수용에 대한 이해는 아니다.

박은식은 『왕양명실기』에서 '이전의 양명학은 지나친 사변론에 빠졌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는 그의 양명학이 추구하는 바를 분명히 밝힌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간이직첩 또는 간이진절이라는 표현은 문명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전 한국 전통에 대한 비판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또한 이 논문을 비롯해 이혜경의 연구에서는 양명학의 고유한 핵심적 이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양명학이 주자학과 다른 핵심적 가치는 '格物致知', '知行合一', '親民'의 세 가지이다. 격물치지는 인식론에 관한 것으로 '진아', '진여' 등을 양지와 결부시킨 양계초와 관련이 있다. 『왕양명상전』에서는 용장대오의 이치가 지행합일이라고 주장하고 양지론은 만년설로 기록하고 있다. 그러므로 다카세 다케지로의 관점은 바로 지행합일이다. 반면 박은식은 이 둘과는 달리 친민에 가깝다. 그는 「유교구신론」(1909)에서 유교가 가야할 길 중 하나를 '보통국민'에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양지를 '천지간에 흐르고 성인과 범인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그는 용장대오의 결과를 지행합일이 아닌 양지로 설명하고 있다. 이혜경은 이러한 차이를 분석해 내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근본적으로 유교철학과 한국철학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기인한 것이라 평하지 않을 수 없다.

이혜경의 두 번째 논문도 전자의 관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그녀는 1. 문제제기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 본고는 거시적으로 박은식의 사상전변을 좇는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주로 박은식의 사상을 영역별로 분류하고 각 영역의 주제에 초점을 맞춰 이루어진 박은식 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가령 사상전변을 배제하고 '교육과 식산'에 의한 '자강' 사상을 다루게 되면 박은식이 지속적으로 문명론자였다는 오해를 부를 수 있다. 마찬가지로 박은식의 양명학을 다룬 대부분의 연구는 박은식이 주목한 양명학을 시대적 흐름과 무관하게 처리했다.

박은식의 사상의 근저는 '퇴계학에 기반한 주자학 → 다산학 → 양명학'으로 진행되어 갔다. 물론 이 과정에서 위 언급대로 교육과 식산, 자강이라는 사고가 가지를 쳤다고 볼 수 있다. 이런 평가는 최근 발표된 김현우의 「황성신문의 실학 인식」(인문학연구,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6)의 근대전환기 문명론의 형성과 변화에 대한 이해와 같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박은식이 「구습개량론」(1907)이나 1909년 대동교 창설이후 등에서 문명론자들을 비판하지만, 이는 그가 시종 서구 문명 자체를 비판하지 않았다는 점과 구분해야 한다. 오히려 박은식은 서구 문명을 인류 문명의 긍정적 부분으로 이해한 측면이 강하다. 그는 이미 『겸곡문고』에서 동서의 보편성을 언급하고, 『한국독립운동지혈사』(1920)에서도 '대동의 기운'을 서구를 제외한 동아시아 즉 유교적 사고라고 한정하지 않았다는 데서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박은식이 문명론자들을 비판하고 여기에서 탈피했다고 할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그가 서구 문명을 부정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이 글에서는 그도 양계초처럼 서구문명을 비판하고 유교적 전통질서로의 복귀를 추구하였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이는 박은식과 그의 유교 즉 양명학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박은식은 양계초와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양계초가 양명학을 칸트와 접목시켜 현실을 초월한 중국의 문화적 정체를 발견하고자 했다면, 박은식은 양명학을 통해 식민지 현실을 부정하고 새로운 근대적 독립 국가로의 실천을 추구했기 때문에 양자를 양명학이란 공통의 경계로 한정시킬 수는 없다.

그 밖에 몇 가지를 더 지적하자면, 이 논문은 본문, 초록, 앱스트랙, 참고문헌 등 포함 총 26쪽이지만 박은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양계

초에 관련 내용이 1/3에 해당하는 9쪽에 걸쳐 있어서, 과연 이 논문의 무게추가 박은식에 있는지 아니면 양계초에 있는지 분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동시에 인용과 평가에서도 문제점이 있다. 이혜경은 '박은식이 주목한 양명학을 시대적 흐름과 무관하게 처리했다.'는 논문으로 주 11)에서 박정심의 『백암 박은식의 철학사상에 관한 연구』(성대 박사논문, 2000)을 들고 있다. 그런데 박정심 교수는 이후 박은식의 다양한 철학사상을 발굴하였고, 동시에 동아시아 근대공간에서 양명학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논문을 발표했다. 또한 참고 문헌을 보더라도 최근 연구 성과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들은 이 연구의 정합성을 떨어뜨린다고 볼 수 있다.

이혜경의 위 두 논문은 박은식과 그의 양명학에 대한 기존과는 다른 패턴의 연구이다. 하지만, 중국 근대 연구에 대한 기존 본인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하다 보니, 정작 한국근대철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측면도 있었다. 특히 조선시대에 왜 양명학이 비판받았고, 근대로 접어들면서 한국의 철학은 어떻게 흘러갔으며, 그 와중에서 박은식의 양명학은 어떤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좀 더 진지한 고민과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왜냐하면 이 논문들이 다루는 내용은 사상 또는 사상사적 부분이 아니라 이들을 일관하는 즉 보다 추론적인 철학적 영역이기 때문이다.

반면 김경호의 연구는 새로운 영역의 개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근대성과 관련해서 호락논쟁의 호학에 더 비중을 둔다고 말한다. 호학은 한원진의 인물성이론을 계승한 학자들이다. 이는 인간과 사물을 구분하는 인식의 변화가 근대적 가치와 보다 잘 연결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평가는 과거 최영진 교수가 한원진의 인물성이론을 '인문주의'로

평가한 것과 유사한 평가라 할 수 있다.

그는 『탈식민과 한국유교』, 『매천 황헌 - 구한말 유교 지식인으로 산다는 것』의 두 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그의 연구 주제는 호락논쟁, 심설논쟁을 포함한 근대 유교 담론과 유교지식인의 사고이다. 그는 근현대 한국유교가 식민성과 근대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고 현대 유교는 이를 극복한 새로운 양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그의 연구는 한국 유교와 근대성이라는 차원의 연구를 보다 심화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김현우의 연구는 이와는 다른 특징이 있다. 그는 최근 근대기 종교와 관련한 연구를 하고 있다. 박은식도 이미 대동교라는 유교계 종교 설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고, 한일강제합병 이전부터 대종교와도 직접적인 관련을 맺어 왔다. 하지만 사상적으로 볼 때 양명학을 포함한 그의 근대 유교는 기독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의 이 논문 「박은식의 기독교 수용과 양지론」은 박은식의 철학에서 기독교의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그를 비롯하여 성균관대 몇몇 소장 연구자들은 근대시기 기독교를 한국학 차원에서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천주교의 전래가 250년이 넘고, 개신교 역시 130년이 흐른 지금에 있어서 기독교를 어느 때까지 외래종교로 한정시켜 볼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동양철학 연구회의 『동양철학』이나 한국유교학회의 『유교사상문화연구』에 유교와 기독교를 절충한 인물들에 대한 연구의 투고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향후 이 분야에서도 진전된 연구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5. 평가와 전망

2014년부터 한국 근대 유교에 대한 정부차원의 연구 지원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 2015년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공모한 한국학총서사업에 위에서 언급한 조선대 우리철학연구소 이외에도 선정된 연구주제는 모두 "장기 19세기" 영역에 들어가는 연구들이다. 이런 추세라면 근현대 유교연구도 향후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런 연구가 자칫 한국학의 고유적 정체성을 해치는 것으로 발전해서는 안 된다. 이글에서 이혜경의 연구를 비판적으로 본 것은 박은식의 철학은 물론 성리학이나 양명학에 대한 깊은 이해없이 중국 근대 철학의 도식을 그대로 적용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근대기 한국학에 대한 연구는 먼저 한국학 고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논자는, 비록 2016년 연구 성과로 올 초에 발간된 박정심의 『한국 근대사상사』(천년의 상상)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 책에는 한국 근대철학과 사상에 대한 박정심 교수의 기존 연구가 수록되어 있다. 이 책은 관련 연구를 진행함에 앞서 한국철학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학의 국제화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한국학은 한국의 국제적 인지도 향상과 더불어 이제 세계적인 학문으로 발전하는 추세이다. 그리고 그 중에는 특히 서구적 가치에 대한 대안철학으로서의 유교의 역할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즉 이러한 요구는 근대 또는 현대와 유교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 해당하는 것들

이다. 때문에 연구자들은 한국 유교의 국제화를 위해 번역 등의 저변을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해외 연구자와 교류를 통해 연구자생력을 키워야 할 것이다.

제10장

‘한류와 유교’ 연구

임태홍

1. 머리말

'한류'란 무엇일까? 그것은 원래 중국 사람들이 만든 단어다. 그것을 우리말로 다시 풀이하자면 '한국문화 붐' 혹은 '한국문화 열풍'이라고 할 수 있다. '한류'와 '한국문화'는 엄밀히 따지면 서로 다른 개념이다. 한국 사람들이 즐기는 문화를 외국사람 들이 엿보고 같이 즐기는 것이 한류다. 예를 들면 강남스타일로 전 세계적인 선풍을 일으킨 싸이가 한국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면 그것은 '한류'가 아니다. 해외에 나가서 공연을 하면 그것은 '한류'다. 물론 외국인들이 싸이의 한국 공연을 인터넷으로 보고 같이 즐기는 것도 '한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미묘하지만 한류의 주체는 한국인들이기도 하고 외국인들이기도 하다. 콘텐츠를 만들어낸 한국인들과 그것을 즐기는 외국인들이 서로 주체가 되어 만들어내는 것이 한류라고 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2015년도에 한국과 일본, 중국에서 발표된 논문 중에서 '한류와 유교문화'의 관련성을 연구한 논문을 소개하고 성과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류와 유교문화'의 관련성이란 엄밀히 말하자면 외국에 소개된 한국문화 콘텐츠에 유교문화라고 볼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 그 요소는 한류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하는 문제 등을 다룬 논문에 주목한다는 뜻이다. 동시에 한중일의 한류 관련 논문 경향을 거시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 국내의 '한류와 유교' 연구

국회도서관에서 키워드로 '한류'를 검색해보면 2015년도에 338건의 논문이 검색된다.(2016년 9월 3일 현재) 해외의 한류에 관심을 두고 연구한 논문들이다. 그 중에 도서자료 20건, 학위논문은 46건, 학술기사 214건, 기타 인터넷자료 등은 58건이다. 같은 조건으로 2014년도에 발표된 논문을 검색해보면 총354건이 검색된다. 그중에서 도서자료는 30건, 학위논문은 31건, 학술기사는 225건 기타 인터넷자료 등은 68건이다. 전체적으로 2015년은 2014년보다 16편 줄었다. 도서자료는 10건, 학술기사는 11건이 줄었다. 하지만 학위 논문은 15건이 늘어났다. 이 수치는 앞으로 전문적으로 한류를 연구하려고 하는 연구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2015년에 발표된 학술논문만을 대상으로 연구 주제를 살펴보면 중국의 한류를 다룬 논문이 20편 가깝게 가장 많았다. 동남아시아, 남미, 일본은 각각 6편 - 9편 정도였다. 미국과 중동지역과 북한은 각각 3, 4편 정도였다. 유럽, 대만, 아프리카, 몽골, 루마니아 등 지역도 1, 2편씩 발표되었다. 한류 현상은 동아시아 지역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널리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 된 것이다. 그 바람이 특히 큰 지역은 한중일과 동남아시아 지역이지만, 미국, 유럽, 남미 등지에서도 한국문화를 즐기는 사람들이 조금씩 많아지고 있는 것은 한류 콘텐츠 안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더 보편적인 매력이 담겨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보편적으로 신기하거나 기이한 내용이 담겨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러한 것마저도 지역을 가리지 않고 어필할 수 있는 매력

을 담았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한류 논문 중에는 경제나 산업과 연계시켜 분석한 것이 적지 않다. 적어도 50여 편 이상의 논문에서 그러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중에서도 가장 논의가 많은 것은 화장품과 뷰티산업, 그리고 패션과 디자인 관련 논문으로 20편 정도다. 관광 산업과 관련된 논문은 약 10편, 국가 브랜드와 국가이미지 관련 논문은 6편, 한국어 교육과 관련된 논문은 5편 정도다. 외국인들이 한국문화를 즐기면서 한국인들이 잘 사용하는 화장품과 의상을 즐기고 한국여성들처럼 꾸미고자 하는 욕구가 생긴 것이다. 동시에 한류는 한국이라는 국가의 이미지를 바꾸게 하고, 한국말을 배우고 한글을 배우고자 하며, 기회가 되면 한국을 방문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이 논문들은 분석하고 있다. 한국하면 6 · 25전쟁, 혹은 호전적인 북한만을 떠올리던 외국인들이 그것과는 전혀 다른 한국 이미지를 갖게 된 것이다.

대만의 어떤 예능 프로그램(WTO姉妹會)에서 대만의 국적을 버리고 다른 나라 국적을 선택한다면 어느 나라 국적을 갖고 싶으냐는 앙케이트 조사를 하였다.(2016년 7월 12일) 759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한국 국적을 갖고 싶다는 응답은 336명으로 가장 많았다고 한다. 2위인 일본, 싱가폴은 137명, 3위인 미국은 45명이었다. 방송 관계자들은 일본이나 미국보다 더 선호하는 것도 놀랍지만 그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다는데 더 놀랐다. 마당 바깥 담장에서 한국인들이 노는 모습을 지켜보던 외국인들이 이제는 마당 안으로 들어와 같이 뛰놀고 싶은 마음인 것이다.

한류 분야별로 살펴보면 K-POP 관련 논문이 약 20편, 드라마가 약 10편, 언론과 방송 관련 내용도 10편 정도였다. 그리고 한식, 만화, 영

화 등 분야의 한류를 분석한 논문도 각각 3편~5편이었다. 한류가 드라마나 K-POP에 국한되지 않고 한국문화의 다양한 분야로 퍼지고 있음을 반영한 수치다.

이러한 논문들 중에서 한류와 유교문화를 본격적으로 분석한 논문은 없다. 하지만 일부 논문에서 유교와의 관련성을 언급한 대목이 보인다.

「동아시아 3국의 한류 : 한국, 중국, 일본 수용자 분석을 중심으로」(박승우, 『커뮤니케이션학연구』, 제23 - 1호, 2015. 2)는 한국영화가 한중일 삼국의 관객들에게 지니는 의미를 분석하면서 "유교적인 장유유서의 도덕관이나 가족애 등을 다룬 콘텐츠적인 요소에 있어서는 3국 관객 모두가 보편적 가치에 대한 호의를 표하고 있으며, 폭력적이고 혐오스러운 소재나 장면에 대해서는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였다. 한국영화에 담긴 유교적인 도덕관과 가족애가 중국과 일본의 관객들에게 긍정적으로 어필이 된다는 것이다.

「인문학적 관점에서 본 '문화한류'의 계시」(박영환, 『중국학보』71권, 2015)는 유교적인 전통 문화에 대한 저항이 한류를 창출해낸 핵심적인 요소라고 본다. 저자인 박영환은 우선 중국의 지식인들이 한류의 정체성을 '동양의 정신과 영혼이 충만한 내실 있는 문화' 혹은 '전통유교문화를 승화시킨 문화'로 정의하고 있음을 소개한다.

예를 들면 북경사회과학원의 리우진(劉瑾)이 〈대장금〉 속에는 유가 공맹의 도인 인의예지(仁義禮智)가 잘 표현되어 있다고 지적한 것이나, 중국사회과학원의 경제연구소 연구원 짠샤오홍(詹小洪)이 〈대장금〉을 보면 유교전통문화의 정수가 진열된 박물관을 참관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하는 발언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그는 강철근(『한류이야기』, 이채, 2006)이 한류가 21세기 신낭만주의 산물이자, 탈식민주의, 탈근대주의의 계기 하에 나온 산물이며, 한류는 광복이후 한국의 최대 걸작이자 기존 질서와 기성세대에 대한 통쾌한 도전이라고 정의하였음을 지적한다. 또 그는 민주와 반전통, 획일화와 다원화를 한국 현대사회의 발전과정으로 보고 "폐쇄적인 시스템 보다는 개방적인 시스템, 남성위주 · 권위주의 사회보다는 양성위주 · 민주적인 평등한 사회, 유가적인 획일화된 문화보다는 탈유가적인 다원화된 문화, 하드웨어를 중시하는 정책보다는 소프트웨어를 중시하는 정책, 전통적인 질서의 고수보다는 기존질서에 대한 변화를 추구하는, 이러한 전통과 반전통의 대립과 조화를 토대로 한국사회의 다양성과 개방을 추동하였고, 한류문화는 규제와 보호의 틀에서 벗어나 자생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그는 "한국의 '문화한류'열풍의 주역은 여성들이다. …… 여성위주의 드라마 작가들은 '문화한류'의 유행에 크게 공헌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내적으로도 드라마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한국사회의 변혁을 이끌어 왔다. 하지만 상당수의 한국 남성들은 보수적인 관점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21세기 디지털 문화시대에 사회적인 변혁에도 주도적이지 못하였다. …… 여성들은 유연한 사회와 탈근대적인 철학으로 한국 사회의 보수성과 낙후된 관념에 대해 비판을 가하면서, 안방에서 TV를 통해서 한국사회의 진보성을 견인하였고, 이를 통해서 한류 열풍을 세계로 유행시킨 '소프트 파워'의 역할을 담당했다."고 평가했다.

박영환은 한류를 '문화한류'라는 개념으로 바꾸어 표현한다. 문화한류에 대해서 그는 특별한 정의를 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으나, 그의 논문에서 보여주는 문맥에 따라 해석하자면 다음과 같다. 문화에는 고

급문화와 저급문화, 즉 대중문화가 존재한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대중문화를 통속적이며 깊이가 없는 다소 천박한 문화로 여기는 편견을 갖고 있다.' 그런데 현재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대중문화는 그러한 이분법적인 구분의 틀에서 벗어나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 한류는 더 그러한 특징이 두드러진다. 그러므로 '문화한류'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천박한 대중문화의 이미지를 지우고자 한 것이다.

사실 한류는 문화가 아닌 것이 없다. 그러므로 그가 '문화한류' 개념을 도입한 점은 다소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어찌되었든 그가 말하는 '문화한류'란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한류'를 의미한다. 저질적인 문화로 볼 수 있는 한류가 세계인들에게는 고급문화로도 인정받는다는 것을 암시하고자 한 개념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중국과 일본의 고위 지도층들이 한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언급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그가 한류 안에 담긴 반전통적인 측면과 탈근대성, 개방성, 탈유가적 개방성 등을 강조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자면 현대 '한국문화'의 발전 추이에 대한 담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한국문화의 일부에 대해서 해외 사람들이 열광적인 지지와 찬사를 보내는 것이다.

머리말에 언급하였듯이 해외의 한류는 한국내의 한국문화와는 분명히 다르다. 전통에 치열하게 저항하는 한국문화가 해외에 발신되었는데, 해외에서는 그것을 다양하게 해석하고 감상한다. 그 해석하고 감상하는 부분이 우리가 말하는 '한류'다. 이러한 점에서 중국의 지식인들이 '한류'에서 유교적인 전통의 모습을 찾아내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물론 박영환도 그렇게까지는 나가지 않았지만, '한류'라는 개념을 엄밀하게 정의하지 않는다면, 미묘하지만, 치밀한 논리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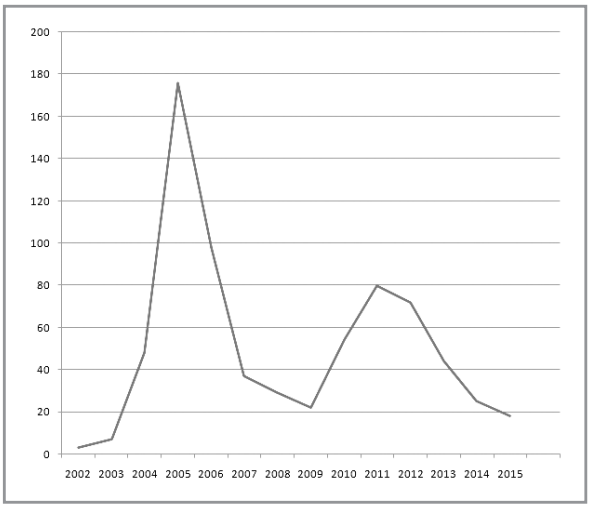
전개해나갈 때 다양한 혼선이 벌어질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이러한 지적을 해두고 싶다.

박영환의 지적에 대한 평가는 좀 더 심층적이고도 치밀한 연구를 기다릴 필요가 있다. 한류를 받아들이는 해외 한류 팬들, 특히 여성들에게 한류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동경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신들이 처한 현실 세계에 대한 불만을, 심리적으로 나마, 해소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기도 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대개 중국에서 한류를 언급한 사람들은 지식인들이나 정치가들이다. 이들의 목소리가 아닌 일반 민중의 반응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 한류 연구의 새로운 영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일본의 '한류와 유교' 연구

일본의 학술 논문사이트(http://ci.nii.ac.jp/)에서 검색어 '韓流'로 검색을 해보았다. 이 사이트는 순수한 학문적인 논문뿐만 아니라 일본 내에서 발간한 일반 주간지, 잡지 등 기사도 포함한다. 검색된 결과에 근거하여 2002년부터 2015년까지 논문 발표수를 그래프로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그래프의 왼쪽이 논문 편수고 오른쪽은 연도다.

그래프를 보면 한류 연구의 역사에서 두 차례의 붐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첫 번째는 2005년이다. 〈겨울연가〉가 2003년 4월에 방영되어 일본 전역에 큰 붐을 일으켰는데 그 결과 '한류'에 대한 논문이 180편 가깝게 급증했다. 그 전 해만 해도 겨우 50편 정도였다. 이때는



〈겨울연가〉에 주인공으로 출연한 배용준 붐, 즉 욘사마 붐과 함께 한국 드라마 붐이 크게 일어났었다.

두 번째는 2011년으로 80건이 발표되었다. 욘사마 붐이 이후에 한류 관련 논문은 20편정도 까지 줄었으나 2010년에 소녀시대를 필두로 한국의 아이돌 그룹이 일본에 진출해 K-pop붐이 크게 일어났다. 그러한 분위기가 반영된 것이다.

2015년에는 18편이 발표되었다. 이는 두 번의 고조기와 비교해보면 크게 줄어 든 것이다. 드라마 붐이 일어난 뒤 다소 침체되었던 2009년의 수준이다.

그러면 2015년에 발표된 문장은 어떠한 경향을 보이고 있을까?

한류의 영향에 대해서는 6편, 한류의 현황소개는 5편, 한류를 분석한 경우는 4편, 기타는 3편이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한류가 한국 인식에 미친 영향, 한류가 한일 관계에 미친 영향, 일본 언론의 혐한 보도,

한류 스타의 병역사정 소개, 아시아 지역의 한류 정착상황 소개, 일본의 한류 비즈니스 현황소개, 한류 미디어 분석, 한류의 문화 융합성 분석 등이다.

전체적으로 2015년의 연구 경향을 간단히 소개한다면 첫째, 한류가 이미 정착한 것으로 보는 경향, 둘째 한류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려는 경향, 셋째, 어떻게 하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제시, 넷째 일본에서 활약하는 외국인 학자들이 적극적으로 한류를 소개하고 분석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일부 주목되는 논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월경하는 한류문화의 문화융합적 특성에 관한 이론적 탐구(越境する韓流文化のハイブリッド性に関する理論的探求)」(李光鎬, Journal of mass communication studies 86, 2015.1.31)는 미디어를 전공하는 일본 게이오대학 문학부 교수 이광호의 논문으로 한국의 영화, 드라마, K-POP 등 문화를 만들어내는 창작자가 한국의 로칼 문화에 글로벌 문화의 각종 요소를 어떻게 융합하여 세계의 여러 문화권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상품을 만들어 냈는가를 분석, 소개한 것이다.

「여성의 자유를 반영하는 한류(女の自由を映す韓流)」(北原みのり, 『社会運動』417, , 2015.3)는 〈한류에서 배우자〉는 특집논문으로 실린 것으로 『이제 안녕, 한류(さよなら´韓流)』(2013)를 쓴 기타하라 미노리의 문장이다. 열렬한 한류팬이기도 하고 일본 사회와 정치를 비판하는 여성활동가이기도 한 기타하라는 한류 안에 여성의 자유를 반영하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어떤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한류 현상을 보면 "대단한 기

세로 아시아 여성들이 한국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한다. 여성들이 움직이면 분명히 문화도 경제도 움직인다. 나는 그것을 계속 지켜보고 싶다. 앞으로 한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 자신이 지켜보고 싶다. 『이제 안녕, 한류』를 쓸 때 까지는 한류가 '자신의 욕망을 풀어주는 대상'이었지만, 지금부터는 '아시아 여성들을 움직이는 무엇'이다. 그러므로 일본에서 비난받고, 일본 남성들이 무시하고 싶은 한류와는 '이제, 안녕'한다. 하지만 지금부터의 한류와는 아직 절대로 '안녕'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다."(〈news - postseven〉, 2013.4.14)

「한류가 정착한 아시아(「韓流」が定着したアジア)」(『潮』679, 2015.9)와 「아시아 시장에서 한류 소프트파워를 이기기 위해서(アジア・マーケット 韓流ソフトパワーに勝つには)」(『文藝春秋』 9 - 1, 2015)라는 문장을 쓴 하라다 요헤이(原田曜平)는 시장분석가이다. 아시아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일본 기업들은 좀 더 현지 시장에 밀착한 비즈니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한류 상황을 이렇게 소개하였다.

> "아직도 동남아시아 어느 나라나 TV를 틀면 한류 드라마나 영화가 방송되고, 한국 가수들이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춘다. 동남아시아 나라들의 평균 연령은 20대로 매우 젊다. 그러한 연령층에게 한류 문화의 호소력은 매우 크다. 그것은 패션이나 스마트폰, 가전이나 자전거, 자동차 등의 소비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한류 스타가 드라마에서 사용한 삼성 스마트 폰을 갖고 싶다는 것이다. 화장품도 많은 동남아시아 나라들에서는 한국 제품들이 석권하고 있다. 장근석 등 인기 있는 배우 사진을 판넬로 만들어 화장품 매장에 놔두

는 것만으로 젊은이들이 쇄도한다. 소프트 파워의 상승효과인 것이다. 일본도 NHK드라마 등을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에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민간 방송사 연맹에서 베트남에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였지만, 시작한지 얼마 안 돼 효과가 없다. 한국과 비교하면 너무 늦어버렸다."

「K-pop붐 시기의 미디어와 팬 관계 분석 - '보이는 라디오'를 중심으로(K-POPブーム期の韓国メディアとファン:「見えるラジオ」の調査結果から)」(吉光正絵, 『東アジア評論』 7, 2015.3)는 일본의 연구들이 한류 붐을 주로 한국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여 성공한 것으로 보는데 반하여 이 논문은 '보이는 라디오' 프로듀서들을 인터뷰하여 한류의 성공요인을 팬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인터넷 기술의 효과적인 활용을 연계하여 분석한 것이다. 저자는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K-POP붐은 한국정부가 주도한 한류진흥정책이나 대형 기획사의 해외시장 전략의 성과라고 평가되어왔다. 또 대중문화연구나 팬덤연구, 혹은 시청자 연구의 문맥에서는 세계 각국에 산재하는 팬들이 인터넷에서 거대한 커뮤니케이션을 구축하여 능동적으로 활동한 결과로서 그 영향력을 주목하기도 하였다. K-POP붐은 팬덤의 힘을 발신자인 기획사나 매스 미디어가 잘 이용함으로써 발신자와 수신자의 상호 작용으로 대규모적인 붐이 일어나고 있다. K-POP붐은 유튜브에 올려진 커버댄스에 대해서 트위터에서 언급함으로서 전 세계에 확산되는 측면이 있다. 이런 것을 볼 때, K-POP의 세계적인 붐은 미국발의 글로벌 정보통신 기술이 매개가 되어 다양한

반응이 잘 수렴되어 달성된 결과라고 생각된다. 물론 다른 한편으로 한국은 정보통신 기술을 잘 활용한 독특한 기술이나 문화를 생산해왔다."

「세계로 나가는 대중문화: 한류(走向世界的大眾文化 : 韓流)」(严明, 『人文研究』 187, 2015)은 중국인 연구자가 발표한 논문이다. 이 글은 2014년에 대만에서 출간된 『中日韓城市文學及藝術創新比較』(聖環出版社)에 실린 글인데, 상해 사범대학 교수인 저자가 상해시의 지원을 받아 연구한 성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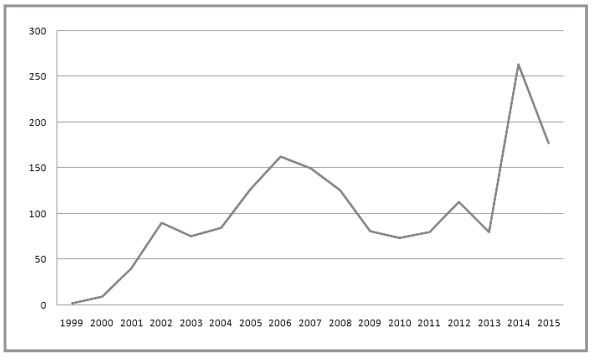
저자는 한류의 발전과정을 소개하고 한류가 전통적인 요소와 현대적 오락성을 잘 갖춘 문화라고 분석하였다. 그는 한국은 유교문화를 받아들이고 아직까지도 잘 보존하고 있는데, 한류 스타들이 예의를 잘 지키는 모습이라든지, 드라마 중에서 보이는 유교의 예의 사상에서 그것을 확인해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는 또 한국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문화에 서방의 문화를 잘 수용하고 융합하여 독특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냈다고 보았다. 즉 한류는 과거와 현재의 동서 문화를 융합한 결과라는 것이다. 그는 또 한국인들은 특히 예술적인 재능이 뛰어난데, K-pop과 드라마는 그러한 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나아가 그는 한류를 1.0시대, 2.0시대, 그리고 3.0시대로 나누고 3.0시대에 해당하는 지금은 전방위로 한국 문화가 전 세계에 확산되는 단계라고 하였다. 또 한류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지적하였는데, 부정적인 측면으로 국가가 문화 활동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점을 들었다. 이 논문에서 그의 유교와 관련된 지적은 다소 피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논문의 전체적인 방향이 한류를 개괄적으로 설명하는데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한류의 탄생과정과 발전, 그리고 한류의 발전배경, 한국문화의 특징 등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정리를 하였다.

4. 중국의 '한류와 유교' 연구

중국의 학술 논문사이트(http://www.cnki.net/)에서 주제를 '韓流'로 검색을 해보았다. 1999년 이전에는 논문이 검색되지 않았다. 1999년에 2건의 문장이 검색되었는데, 하나는 한국 바둑계의 맹렬한 기세를 소개한 것(「汹涌韩流正当红」(谢锐, 『棋艺』, 1999/12)이고 다른 하나는 베이비 복스의 북경공연 소식을 알리는 문장(「强劲"韩"流袭击内陆」(『音乐世界』, 1999/12)이었다. 이 두 문장에서부터 '한류'라는 단어가 출발된 것 같다. 검색한 결과에 근거하여 2015년까지의 논문 발표수를 그래프로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논문 수로 본다면 총 1739건으로 일본에서 발표된 713건과 비교해 보면 약 2.4배에 이른다. 위 표를 보면 중국의 한류는 2002년, 2006년, 그리고 2014년에 커다란 붐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2년에는 〈가을동화〉가 중국 전역에 방영되었으며, 2006년에는 전 해에 방영된 〈대장금〉이 큰 반향을 일으켰다.

2006년 이후에는 한국 드라마 방영이 다소 침체되기 시작했다. 〈대장금〉과 같은 수준의 드라마가 나오지 않고, 중국에서는 정책적으로 미국이나 태국 등 다른 나라로부터 드라마를 수입하기 시작했다. 거기다 중국 내부의 드라마 제작 편수도 많아지고 수준도 차츰 높아졌다.

그리고 2013년에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 〈나는 가수다〉와 〈아빠, 어디 가〉 포맷이 중국에 수출되어 크게 성공했다. 이어서 인터넷을 통해서 드라마 〈상속자들〉과 〈별에서 온 그대〉가 중국에서 방영되어 다시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 그러한 상황이 2014년의 논문발표 편수에 반영되어있는 것 같다.

발표된 논문을 내용별로 살펴보면 한류 현상을 소개하거나 분석한 논문이 약 60편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한류의 영향에 대한 연구가 30편 정도인데, 이 가운데에는 중국의 청소년 혹은 대학생들이 한류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분석이 상당수 차지한다. 이러한 연구가 거의 없는 일본과는 대조적인 현상이다. 그리고 한류로부터 중국이 배워야한다는 입장에서 자국의 문제점이나 개선 방안을 제시한 논문이 약 20편정도 발표되었다. 이러한 연구도 일본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다. 그 외에 한국어 교육과 관련된 논문, 한류를 경제와 연관시켜 논한 논문이 각각 15편 - 20편 정도 발표되었다.

한류를 유교와 연관시켜 전문적으로 분석한 논문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한류문화의 보편적인 미학 법칙 - 한류문화의 '진선미'(释读韩流文化中普适的美学法则 - 韩流文化中的"真善美")」(郝梦琪, 『大众文艺』, 2015.6)는 한류 속에 담긴 유교 정신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다.

"중국의 고령 계층의 여성들은 특히 더 한국의 가정 윤리 드라마를 더욱 좋아한다. 극중에 전통 유가 도덕 윤리가 충만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절대적인 공동체 의식을 느끼게 한다. 중국은 지금까지 예의의 나라라고 불려왔는데, 한국은 이러한 예의범절을 가정교육에 더욱 강조하여 융합해 넣었다. …… 가정에서 음식을 먹는 것에서부터 대화하는 방법까지 모두 거기에 맞는 방식과 예절이 있다. 바로 이 때문에 한국 드라마는 수많은 대중들을 끌어들이는 것이다. 그 귀결점은 바로 아름다움의 추구다. 인간성 가운데의 아름다움이며 질서가 있는 예절의 아름다움인 것이다."

한류에 담긴 유교사상이 대중들을 끌어들이는 중요한 요소라고 본 것이다.

「한류의 문화적 현대성 재조명("韩流"的文化现代性再审视)」(张生茂, 『山西农业大学学报(社会科学版)』, 2015/02)도 한류의 유교적 요소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했다.

"한류 드라마는 (드라마에 출연하는 주인공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인 미모를 잘 활용하고 있다. 그러한 점 외에도, 그것은 동양과 서양

문화의 불평등한 교류를 뒤흔들어 놓았는데, 그 승리의 비결은 유교적 전통문화를 활용한 것이다. …… 한중일 삼국은 서로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다. 서로 교류가 활발하고, 글자도 한자는 같이 사용한다. 특히 중국은 유교문화의 발원지인데, 한류 드라마는 유교 교리를 내용으로 삼아서 중국의 드라마 판도를 장악해버렸다."

「'한류' 계시록("韩流"启示录)」(张硕, 杨艳丽, 『中国市场』, 2015/36)은 한류가 중국문화산업의 발전에 큰 교훈을 주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한국의 문화가 그렇게까지 전 세계에 한류열풍을 만들어 낸 원인으로 1) 정부의 주도적인 지원, 2) 동아시아 지역의 문화적 공통성, 그리고 3)성공적인 문화상품 판매 전략을 들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중국을 예로 들어본다면, 원래 중국인들은 유교 문화에 젖어 예의와 겸양을 존중하고 스스로를 낮추고 함부로 드러내지 않게 되었다. 따뜻하고 온화하기가 구슬처럼 고왔다. 이러한 품성과 특징이 중국인들의 인격과 문화의 기초를 구성했었다. 그러나 신중국이 성립한 뒤에 여러 차례의 정치 운동과 개혁개방이 가지고 온 거대한 물질적 재산과 풍요로움으로 충격을 받아 중국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문화를 신속히, 그리고 모두 버려버렸다. 새로운 문화이념과 제도는 아직도 여전히 세워지지 않고 있다. 중국인들은 점점 민족적 전통과 현대적인 문화 사이에서 길을 잃고 전통문화의 계승과, 감상, 나아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결여되어버렸다."

중국의 현상을 이렇게 분석한 뒤에 그는 이어서 '한류'에 대해서 평가했다.

"그러나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 작품을 보면, 전통적인 기법을 아주 뛰어나게 잘 채용하여 동아시아 문화권의 공동체 인식인 어떤 가치관과 심미의식을 훌륭하게 표현해 냈다. 그리고 그들만의 독특한 매력을 만들어 냈다. 중국 내에서는 점차 쇠퇴해가고 있는 중화 문명의 잔잔한 물결, 예를 들면 가정과 가족을 중시하는 마음, 윗사람을 공경하고 효도를 다하는 마음,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젊잖게 예를 잘 갖추는 모습 등을 한류 영화와 드라마에서는 아주 잘 표현하였다. 중국사람들의 잠재의식 가운데에 있는 전통적인 공동체 인식과 귀속감을 잘 환기시켜줌으로써 한국 드라마로 대표되는 '한류'는 중국에서 커다란 붐을 일으키게 된 것이다."

중국인들의 잠재의식에 남아 있는 옛 전통시대의 유교적인 윤리와 공동체 의식을 다시 느끼게 해 줌으로써 한류는 성공을 한 것이라는 평가다.

사실 이러한 평가와는 달리 대다수 논문들은 한류 현상을 좀 더 '표피적'으로 보려고 한다.

예를 들면, 「'한류' 현상 분석("韩流"现象之探析」(余燕, 『戏剧之家』, 2015/10)은 중국에서 한류 현상이 일어난 원인으로 1) 풍부한 전파 통로의 존재, 2) 한류 자체의 지속적이고도 부단한 개선, 3) 연예 기획사의 완벽한 체계와 기획 3) 한국 정부의 지원, 5) 중국 개혁개방의 산물 등을 들었다.

물론 저자가 말하는 이러한 요인이 없었다면, 중국에서 한류가 일어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예를 들면 풍부한 전파 통로, 즉 인터넷이나 SNS 등 기술이 발전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큰 반향은 없었을 것이라는 점은 자명하다. 2013년 말부터 2014년까지 방영되어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끈 〈별에서 온 그대〉도 인터넷 온라인으로 중국 측에 제공되었다. 이러한 온라인서비스가 없었다면 중국에서 방영자체가 안되었을지도 모른다.

「한국 문화산업의 발전이 중국 문화산업의 발전에 주는 계시(浅谈韩国文化产业的发展对中国文化产业发展的启示)」(李萧, 『山西师大学报(社会科学版)』, 2015/S2)라는 논문도 한류가 흥성하는 원인으로, 1) 정부의 지원, 2) 기업들의 부단한 노력, 3) 국제적인 시장의 활용, 4) 한국 국민 특유의 위기의식 등을 들었다.

이러한 요소들 역시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러한 문화를 다시 창조하려고 하는 측에서 본다면 좀 더 심층적이고 사상적인 분석보다는 현실적이고 현상에 드러나는 요인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대다수 연구들은 그런 점에 주목을 하는 것 같다.

5. 평가와 전망

2014년 4월 3일에 국내 신문(〈조선일보〉)에 「'별 그대' 등 한류 열풍에 빗장 걸어 잠그는 중국」이라는 기사가 실렸다.

> "한류 열풍이 거세지자 중국이 자국 문화 보호를 이유로 규제를 강화하고 나섰다. 중국정부는 TV 방영시간, 콘텐츠 수입 제한 등에 이어 최근에는 인터넷 방영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앞으로 한국 드라마가 유쿠 · 투도우 등 중국 동영상 사이트를 통해 방영되기 위해서는 중국 국무원 직속 기구인 국가광파전영전시총국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광전총국은 심사를 통과한 콘텐츠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방영을 중단할 수 있다."

같은 기사는 또 다음과 같이 전한다.

> "미국은 중국 정부의 이번 조치로 큰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국 TV잡지 'TV가이드'는 "테러 소재 영상물이나 공포물 등은 중국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듯하다. 미국 드라마의 80%가 중국에서 방영 중단 조치를 받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요즘은 또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로 중국 측에서 한류 규제에 나선다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한류'가 없었다면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일본에서는 2011년 이후에

'한류'가 많이 사그러지고 있다. 그러면 그러한 문제가 '한국문화'의 문제일까? 혹은 한국인들의 문제일까?

당연히 그렇지 않다. 한국문화를 즐기는 중국인들, 일본인들, 그리고 해외사람들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한류'와 '한국문화'를 개념적으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 다시 한 번 언급하자면 '한류'란 한국문화가 아니고 엄밀히 말하자면 외국인들의 문화다. 조금 과장해서 말하자면, 일본 한류는 일본인들의 것이고, 중국 한류는 중국인들의 것이다. 대만 한류는 대만의 문화고, 태국 한류는 태국인들의 문화다. 이러한 개념의 문제는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한류의 흥성으로 한국인들에게 많은 이득이 돌아갈 수도 있으나 진정으로 큰 이득은 외국인들의 것이라는 점을 우리 스스로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중국 한류는 중국인들에 커다란 이득을 안겨주는 것이지 한국에 그렇게 큰 이득을 안겨주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일부 연예인들이나 정치가들은 한류를 좀 더 본격적으로 이용해 돈을 벌고, 거기에 모든 것을 걸려고 한다. 하지만 국내 무대를 벗어나 외국으로 진출한 많은 스타들이 좌절하고 돌아오는 것을 보면 그러한 시도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학자나 경영학자, 그리고 산업과 관련된 전공을 하는 연구자들은 문제의 심층적인 부분보다는 현실적인 측면이나 현상적인 측면에 매달리는 경향이 강하다. 원래 그런 학문의 방법론이나 성격이 그렇기 때문이다. '한류'는 그러한 연구만으로 모든 것을 시원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은 아닌 것임에 틀림없다.

인문학자들의 분발이 필요한 대목이다. 역사, 문학, 그리고 철학 등 다양한 인문학 분야에서 한류를 연구한 성과가 나와서 사회학자들의

연구와 결합을 하여야 진정으로 훌륭한 한류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달리 말하자면,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한류'의 참모습과 그것이 이 시대에 의미하는 바를 조금이나마 알 수 있게 되지 않을까?

2015년도에 동아시아 삼국에서 발표된 한류 관련 논문을 분석해 보고 '한류와 유교문화'의 관련성을 언급한 연구 성과를 살펴보았다. 보고의 목적으로 삼은 부분이 매우 빈약하다는 것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다. 유교를 긍정적으로 보든지, 부정적으로 보든지 다양한 측면에서 수많은 논의가 가능한 것이 유교라고 할 수 있다. 한류 역시 마찬가지다. 한류와 유교가 접합된 다양한 논의들이 내년에는 더욱 흥성하게 나오길 기대하면서 이 보고를 마친다.